도서관연구소자료집 : 41

2014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2014)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편]. --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4
p. ; cm. -- (도서관연구소자료집 ; 41)

ISBN 979-11-5687-031-9 94020 : 비매품
ISBN 978-89-7383-223-1 (세트) 94020

도서관[圖書館]

026-KDC5
027-DDC21 CIP2014018881

목 차

2014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최 우 수 상

(가족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온가족 독서 · 문화 프로그램 ····· 1
: 개포도서관 온(溫)가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포도서관 | 이 미 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우 수 상

책, 현장, 사람이 만나 독서문화의 장(場)을 열다 ····· 29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 | 김 정 연

이제 들으면서 읽는다! 책소리 서비스! : 스마트폰 NFC기능 활용 서비스 사례 ···· 71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 김 태 민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장 려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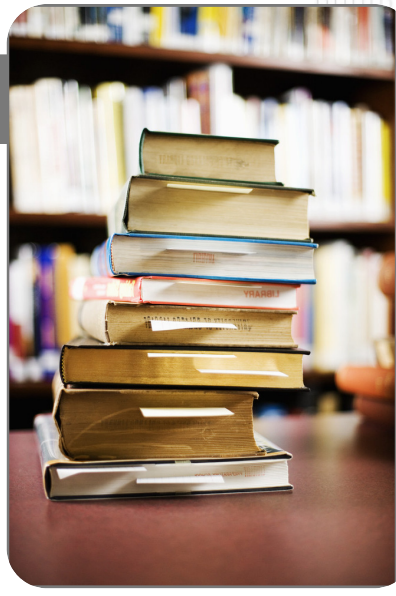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교류협력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 국민 독서 진흥을 위한 도서관기능(역할) 제고방안 ····· 95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 김 보 일 · 최 문 정

영어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도서관 영어독서 활성화 방안 ····· 119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영어도서관 | 원미경 · 박혜영 · 성재운 · 최종환 · 김지현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 155
부산광역시립 구덕도서관 | 조 수 금 · 김 수 미

서귀포, 책으로 하나 되다 : 책 읽는 서귀포시 운영사례 ····· 191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 정 순 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최우수상



(가족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온가족 독서·문화 프로그램

: 개포도서관 온(溫)가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포도서관 | 이 미 정

현황 및 소개

개포도서관은 강남구 개발 사업이 한창일 때 개포동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도서관 시설물을 인수받아 1984년 3월에 개관하여 2014년 올해로 개관 30주년을 맞았다. 건립 당시에는 어땠을까마는 30년 세월동안 주변의 나무들이 무성해져서 지금은 도심 속 별장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그림 같은 풍경을 갖추고 있다.

2003년 디지털자료실을 개설하고, 2008년 어린이실 리모델링과 새싹실을 개실하여 시대의 변화와 주민의 이용 수요에 적극 부응하였으며, 2012년 페이스북을 운영하여 이용자와의 원활한 SNS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다. 2013년에는 RFID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료이용서비스의 편리함과 신속함을 지원하며, 계층별 추천도서와 학습정보, 생활정보 등 매월 12종의 다양한 정보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정보제공과 아울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주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 평생교육 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개포도서관은 10,000m²의 대지에 2,377m²의 건물이다. 내부시설은 문헌정보실, 어린이실, 디지털 · 연속간행물실로 구성된 자료열람실과 제1학습실, 제2학습실과 같은 자율학습실, 평생교육시설로서 강의실과 시청각실, 기타 편의시설로는 휴게실 등이 있다. 자료는 도서 192,975권, 비도서 10,039점, 전자자료 1,243종, 연속간

행물 808종을 갖추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1,296,690명이 이용하였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연간 182,007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협력·소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 모두를 위한 학습공동체를 구현하고 온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포도서관은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문화공간이자 랜드마크로서 자리하고 있다.

우수사례 개요

가족은 소중하다. 각기 다른 서로가 만나 부부가 되고 2세와 함께 새로운 인연으로 만남을 시작하는 가족. 그래서인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은 모두가 꿈꾸는 소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이혼율 상위라고 하며, 이혼인구 중 과반수 이상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가족 해체 현상은 청소년 문제와 다양한 사회문제의 근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개포도서관은 지역의 핵심 문화교육센터로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도서관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이해, 인정,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족관계의 재정립을 돕고자 온가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온가족 독서문화 프로그램 사업 구성도]

온가족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첫째, 온(溫) 가족은 따뜻한 가족이라는 의미로 가족이 함께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독서·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으로 서로의 마음과 정을 나누는 따스한 가정을 의미한다. 즉, 공공도서관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추억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이 책과 함께 하는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가족이지만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던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깊은 포옹을 하는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단절된 그들의 마음을 따스한 온기로 데워주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온(On) 가족은 가족의 참여와 소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음을 나누었던 가족이 다양한 독서·문화·체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가족이 책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서 책과 함께 사랑과 추억을 쌓아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온(All) 가족은 이렇게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과 가족이 함께 감동을 나누며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지역 내 다른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서로 다른 가족이 함께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것은 이제 내 가족만이 아닌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다른 가족도 가족구성원으로 함께 인식하여 따스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이 이제는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와서 서로에게 미소를 보내며 안부를 챙겨주는 따스한 가족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이것은 지역사회가 서로 관심을 갖는 공동체로 변화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하겠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이 기점이 되어 건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작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자국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으로 흩어져 있던 가족 개개인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책을 매개로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단단하게 묶이고 이러한 가족들이 모여 우리 지역사회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가장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에서 깊은 상처로 힘들고 아파하는 가족 구성원을 도서관에서의 감동 체험으로 변화시켜가면서 그들을 서서히 독서인구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개포도서관.

2012년부터 우리 도서관이 운영해 온 〈온가족이 함께 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잔잔한 감동과 함께 우수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공공도서관은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며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 기관으로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교류 및 소통하는 공간이다. 사회 최 일선의 교육 기관으로,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그 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단위는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에 초점을 두고 가족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과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을 고민하였다. 가족의 사전적 정의는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이다. 하지만 개별적인 활동으로 혈연 이상의 '가까운' 의미가 퇴색되어버린 오늘날 가족의 모습에서 공동체를 떠올리자니 씁쓸하기만 하다. 매스컴은 연일 자살, 학교 폭력, 왕따 등 청소년 문제를 비롯하여 노인 문제, 가족 해체, 가족 갈등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시끄럽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가정에 있음을 이야기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개포도서관에서는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가족이지만 바쁜 일상 및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대화가 단절된 가족을 위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부모 · 자녀 감동캠프, 가족대화법, 자녀감정코칭 등의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였다.

가족 변화를 위한 조그만 노력은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가족단위로 함께 참여하면서 가족 간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고 도서관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쌓음으로써 향후 공공도서관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책 읽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가족 독서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평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책읽기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자연스레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평소 도서관과 거리가 먼 사람들, 도서관을 방문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온 가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가족 간 관계 개선을 지원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독서마라톤, 독서릴레이, 가족 독서퀴즈, 한 책 읽기 등 다방면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연계 하였다. 이 외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일상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문화향유의 기능도 함께 지원하였다.

국민독서진흥을 위해 온 가족이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고 즐거운 추억을 공유하면서 나아가 이렇게 공공도서관과 함께 하는 생활습관을 대물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하였던 개포도서관의 온가족 독서문화프로그램! 그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어 보자.

Ⅱ 온가족 프로그램 운영

1. 온가족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를 하다 : 워밍업 프로그램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단순 참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 가족이 하나의 구성원이 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가족 구성원이 온 가족으로 마음을 열고 향후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가자가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워밍업 프로그램을 모색하였다.

우선 주 대상은 학부모로 선정하였다. 이유는 가정의 문제에 가장 민감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늘 고민을 하고 있을 터이니 그들에게 가정의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지원한다면 가족구성원을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주요 프로그램 구성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핵심 주제로 선정하고 자녀교육과 왕따나 학교 폭력 등 현재 가정과 사회에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워밍업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공감을 끌어내고자 했다.

〈표 1〉 온가족 참여를 위한 워밍업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 횟수	참여 인원	주 요 내 용
훌륭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 아이 키우기	1	35	가정에서의 자녀양육법, 삶과 진로의 변화를 주는 책의 소중함, 부모의 역할 등
학교폭력의 이해와 대처	1	15	학교폭력의 다양한 사례 및 구체적 응대법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4	105	가족관계의 문제와 회복, 부모와 자녀의 역할
부모자녀 눈높이 맞추기	1	12 (5가족)	시적 발상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견해차를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도움

1) 훌륭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아이 키우기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자녀에게 책의 소중함에 대해 피력하고, 의사소통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녀양육법 등의 소개와 가정에서의 원만한 대화와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자녀교육으로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내용은 올바른 자녀양육방법, 독서지도법,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 지원을 포함하여 가정에서의 자녀를 지도하는 부모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2) (내 자녀 이해를 돕는)학교폭력의 이해와 대처

학교폭력은 2011년 연일 매스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사례가 보도되면서 학생 및 학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내용은 다양한 학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연극을 통해 심리를 체험하고 다양한 사례 대응에의 구체적 응대방안을 부모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학교폭력 대응 방안에의 매뉴얼도 제시하였다.

3)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가정의 의미를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관계 회복을 돕고자 하였다. 내용은 가정폭력, 이혼, 가족 간의 갈등, 청소년 문제 등 현대 가정의 현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나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였다. 또한 아름다운 가정에서의 책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 독서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삶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총 4차시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각 가정에서 처하고 있는 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와 책을 통한 행복한 가정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며, 자녀에 대한 이해와 부모의 역할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였다.

4) 부모자녀 눈높이 맞추기

우리 도서관에서는 문학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견해차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화로 가족 간의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내용은 시적발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부모와 자녀가 실제 시를 쓴 후 시의 분석을 통해 서로의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를 알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출륭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아이 키우기

학교폭력의 이해와 대처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부모자녀 눈높이 맞추기

2. 온(溫)가족! 도서관에서 감동을 공유하다 : 가족힐링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 우리 도서관에서는 대화가 단절된 가족. 그리고 감정의 치유가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이 서로 마음의 빗장을 열고 따스한 가슴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표 2〉 가족과 통하는 힐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 횟수	참여 인원	주 요 내 용
부자(父子) 감동캠프	2	44 (22가족)	2012년, 2013년 2회 운영.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어울리기, 바로알기, 마음열기, 체험하기, 다짐하기로 구성·운영
도서관에서 온가족 하룻밤	2	42 (21가족)	2012년, 2013년 2회 운영. 도서관에서 사서가 중심이 되어 책을 중심으로 운영. 가족 체험활동, 가족독후활동, 가족편지쓰기 등
우리 가족 대화법	2	68	가족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하고 가정안에서의 상처주지 않는 비폭력대화법, 가족회의 진행 방법 등

1) 부자(父子)감동캠프

부자 감동 캠프는 말 그대로 소홀해지기 쉬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의 신뢰 형성 및 건강한 가족문화 지원을 위해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2012년과 2013년 2회 운영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어울리기[조별 활동], 바로알기[부모 강의 및 자녀 강의], 마음열기[부모·자녀 간 편지쓰기와 읽어주기], 부자간 사랑 체험하기[세족식], 다짐하기[수료식]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처음 참가자를 모집할 때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가족이 과연 다른 사람 앞에 그것을 노출하면서 참가할 수 있을까?', '과연 몇 사람이나 참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가슴 졸였는데 막상 신청자를 접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결과 그건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프로그램 내내 진지하게 참여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은 서로의 갈등을 최대한

이해로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부모와 자녀를 두 파트로 나누어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엉엉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트렸다. 그동안 힘들게 했던 부모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한 게 너무 미안하다며..... 자녀가 아버지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진행할 때는 옆에서 지켜보는 나까지 울컥해졌다. 지켜보는 나에게까지 전해지는 그 진한 감동을 가족들이 잊을 수 있을까?

부자 감동캠프는 닫혀있는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어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참가자 모집 등으로 힘이 들긴 하지만 온(溫)가족 프로그램으로 지속하여 운영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어울리기(조별 활동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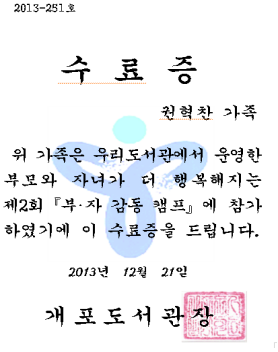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모습

세족식을 마친 후

부자감동캠프 수료식

구분	주요 프로그램 내용
가족별	참가 가족별 사진촬영
전체	영상물 시청(가족의 사랑 주제)
조별	조별활동(특징, 바라는 가족상 등)
전체	허깅 지도
계층별	부모특강, 자녀 특강 및 편지쓰기
전체	편지 읽기, 전체 나눔
전체	세족식
개별	나의 다짐
전체	수료식
전체	매일 과제: 허깅 하기, 문자 보내기

프로그램 운영 내용



2013-251호

수 료 증

천혁찬 가족

위 가족은 우리도서관에서 운영한 부모와 자녀가 더 행복해지는 제2회 『부·자 감동 캠프』에 참가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21일

개포도서관장

수료증

2) 도서관에서 온 가족 하룻밤

도서관에서 온가족 하룻밤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가족이 함께 하는 하룻밤 캠프로 운영하게 되었다. 매년 1회 여름방학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책과 친근해 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온가족 하룻밤 참가자와 함께

가족 주제 특강 운영 모습

구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전체	도서관 탐방
가족별	가족 팀명 정하기, 명패 꾸미기
전체	주제특강
가족별	가족 서클 북 만들기
전체	가족사랑 편지 읽고 감동나누기
전체	세족식
전체	야호! 도서관 미션수행(책읽기)
전체	도서관에서 하룻밤 소감문쓰기
전체	내 보따리 챙기기
전체	수료식

주요 프로그램

3) 우리 가족 대화법

부모와의 대화부족과 소통부재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여 가족 간의 건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고자 우리가족 대화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가족구성원은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자 하나, 막상 대화내용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법을 알려주고자 운영했다. 주요 내용은 가족 간의 언어폭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비폭력 대화방법,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가족회의의 이론에 대해 설명한 후 실제 모의 가족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실제 가족 간의 대화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차에 비폭력 대화법을 알게 되고, 가족회의 진행방법까지 터득하게 되어 매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 이후 도서관 주 고객이 된 한 이용자는 지금도 집에서 매월 한 번씩 가족회의를 진행하는데 가족관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바른 소통방법 익히기

우리가족 대화법

3. 온(on)가족! 도서관에서 문화를 체험하다 : 문화체험 프로그램

〈표 3〉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운영 횟수	참여 인원	주 요 내 용
온가족 도서관 Day	12	1,256	주말을 활용하여 다식 만들기, 전통놀이, 가족신문, 우리가족회사 로고 만들기, 가족화분만들기 등 (통계는 2013년 운영 실적만 기재함)
아빠, 과학실험실습 함께해요	11	216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실험교육으로 부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우리 동네 음악회	2	246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실내악 연주를 유치하여 도서관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연주회
북(Book) 콘서트	2	98	책과 음악회를 접목한 콘서트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꿈비 빛 그림잔치	5	502	우리 도서관 학습동아리인 “어린이책 시민연대”가 2009년부터 매년 운영하는 그림자극으로 가족이 참여
온가족 도서관데이 영화감상	9	274	매월 첫째 토요일을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영화로 선정하여 상영
책, 도서관 그리고 영화	60	2,526	매주 일요일마다 다양한 테마의 영화 상영

가족이 도서관에서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하는 문화체험! 학교를 가지 않는 노는 토요일이 격주로 운영되다가 2012년부터 전면 주5일제 수업으로 바뀌면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가족이 도서관에서 함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들의 문화격차가 크다는 보도기사를 접하고 도서관에서

되도록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평소 도서관을 이용하는 가족이 아니라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은 가족이 도서관에 와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자료와 독서관련 프로그램 등을 보면서 차츰 독서가족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고자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가족이 함께 그 시간을 공유하며, 즐거움을 오래도록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1) 온(溫)가족 도서관 Day

2012년 주말에 가족이 함께 하는 〈토요 온가족 체험교실〉은 평소 가족(父+母+子女)이 함께 도서관에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말인 토요일에 도서관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에서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독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다 가족이 함께 하는 도서관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2년 4월 "온가족 도서관 가는 날" 운영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안하였고, 2013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가족 도서관 Day〉로 정하여 산하 공공도서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다. 2012년 처음 시작할 때는 평소 책을 좋아하지 않는 가족이라도 부담 없이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과 어린이 영어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가 차츰 가족독서퀴즈, 가족영화상영 등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개포도서관에서 그동안 운영한 온가족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은 매월 그 달의 특징을 감안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예를 들면 식목일이 있는 4월에는 우리가족 화분 만들기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우리 고유 전통 문화와 추석의 유래를 함께 공부하면서 다식 만들기를,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가족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가족회사 로고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회사마다 로고가 있는 것처럼 참여 가족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족 회사를 만들고 로고를 만드는 것을 무척 재미있어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부여되어서인지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다. 2014년인 올해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매월 빠지지

않고 가족 도서관 Day를 기다리는 고정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도서관을 방문해 프로그램만 참여하다가 이제는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하여 오후 체험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 꾸러미를 손에 들고 온다. 토요일 아침 가족의 도서관 나들이로 시작하는 주말풍경은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가족 참여 프로그램은 강의실이 협소하여 많은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온 가족 도서관 Day는 진정한 가족독서문화 프로그램이라 확신한다.

〈표 4〉 온가족 도서관 Day 주요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운영시간	내 용
독서퀴즈	09:00~17:00	유아, 어린이, 성인 계층별로 독서퀴즈 문제를 매월 제시
영어동화 스토리텔링	10:30~11:30	초등저학년 이하 자녀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영어동화 들려주고 독후활동
가족영화상영	13:00~14:30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영화상영
가족체험 프로그램	15:00~17:00	매월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

봄의 향취를 담은 화분 만들기

명절예절교육과 다식 만들기

가족앨범만들기

가족회사 로고 만들기

복주머니 만들기

가족신문 만들기

2) 아빠, 과학실험실습 함께해요

도서관 프로그램에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아버지에게도 흥미가 있을 만한 과학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주말을 이용해 부자(父子)가 함께 참여하는 과학실험실습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기초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LED 광섬유 조명, 풍향 풍속계, 방향제 만들기 등의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이론 및 실험교육을 통한 기초과학교육을 중심으로 구성·운영하였다.

강의모습

아버지와 함께하는 실험

할아버지와 함께 발표하는 모습

3) 우리 동네 음악회

서울시립교향악단 실내악 팀의 연주로 함께 한 〈우리 동네 음악회〉는 별도의 시설 없어서 1층 로비에서 운영하였다. 다행히 1층 로비는 천정이 높아 아름다운 선율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2012년 2013년 2회에 걸쳐 음악회를 개최하였는데, 가족이 함께 음악회에 가기 쉽지 않아서인지 이용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또한, 집과 가까운 도서관내에서 고품격 실내악을 감상할 수 있어서인지 참가자의 만족도는 98%였으며, 응답자의 96%가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 도서관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향유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4) 아름다운 동행 북(Book)콘서트!

낭독이 있는 북(Book) 콘서트를 통하여 어렵게 느껴지는 책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북 콘서트를 운영하였다. 2012년에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어렵게 느껴지는 시 읽기와 쓰기의 방법을 소개하고 가족 참가자가 함께 시를 낭독해 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가족의 화합을 유도하고 책읽기에 대한 신선한 자극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3년에는 〈낭랑공방과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기획하여 가족의 사랑이 전해지는 컵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과 북 콘서트를 함께 운영하여 참가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체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였다.

5) 꿈비 빛그림 잔치!

우리 도서관의 독서동아리인 “어린이책시민연대”가 매년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하여 개최하는 그림자극이다. 내용은 노래 및 율동 배우기로 시작하여, 어린이 동화책을 주제로 그림자극, 인형극, 체험활동, 슬라이드 영상 등을 상영하며, 참여 학부모를 위한 대상별 권장도서를 별도로 제공한다. 2010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북콘서트 참가자 낭독모습: 父

북콘서트 참가자 낭독모습: 子

북콘서트 참가자 낭독모습: 祖母

북콘서트

우리 동네 음악회

우리가족 컵 만들기

4. 온(on)가족! 도서관에서 함께 하다 : 가족독서프로그램

건강한 가족 구성원 지원과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읽기이다.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의 책읽기에 관심이 많다. 습관이 잘 된 아이들이라면 모를까 도서관에 왔다고 모든 아이들이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평생 독서문화 향유에 대한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책읽기 관련 프로그램을 고민하였다.

가족치유 프로그램으로 감동을 받은 가족들이 책으로 그 소통과 이해를 심화하고, 가족의 성장 동력을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족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가족이 함께 책 읽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독서마라톤, 독서릴레이를 통하여 혼자 읽기 보다는 가족이 함께 읽는 독서문화를 장려하여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을 자연스레 유도하였다. 그리고 가족 책읽기를 어려워하는 부모를 위하여 온가족 책읽기 등 다양한 독서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가족과 함께 하는 책읽기 지원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운영 횟수	참여 인원	주요내용
우리 아이 어떻게 책으로 이끌까	1	23	자녀를 책으로 이끄는 가정독서환경 방안 등
책으로 행복한 온가족 책 읽기	4	70	자녀와 함께 하는 다양한 책읽기 방법 안내
즐거운 책읽기 온가족 함께 함	4	88	가족이 함께 하는 책읽기, 책놀이 등 안내
(입말로 들려주는) 우리 겨레 옛이야기	1	26	옛이야기 특징 등
온가족 독서 퀴즈대회	1	32 (16가족)	2013년 독서의 달에 주최
가족 독서마라톤 대회	연중	402	2013년에 시작한 제1회 대회
가족 독서릴레이	1	(30가족)	2014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임

1) 우리아이 어떻게 책으로 이끌까

책을 읽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책으로 이끌어야 할까?

이 프로그램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자발적 책모임을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가정에서의 책읽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내용은 가정에서의 독서지도법, 독서활동의 다양한 유형, 독서토론 및 독후활동 내용 등 책과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안내하였다.

2) 책으로 행복한 온 가족 책 읽기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책을 읽음으로써 건전하고 따뜻한 온(溫)가족 문화를 확산하고 밥상에서의 가족 간의 원활한 대화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같은 시선으로 책 읽기, 다른 시선으로 의견 나누기, 그리고 책을 통한 놀이 활동을 주 내용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자녀와 함께 책을 읽음으로써 책 읽기와 삶이 연계되어 있음을 깨우치고 즐거움을 알게 하였다.

3) (입말로 들려주는) 우리 겨레 옛 이야기

옛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재해석을 통해 학부모에게는 좋은 이야기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자녀에게는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옛이야기 특징, 옛이야기 다시쓰기와 좋은 옛이야기와 옛이야기의 힘, 그리고 옛이야기 들려주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우리아이 어떻게 책으로 이끌까

책으로 행복한 온가족 책 읽기

우리 겨레 옛이야기

4) 펀스토리텔링

영어독서리더 과정을 마친 학부모들이 모여서 2012년 결성한 동아리 모임으로 2012년에는 자체적으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모임을 갖고 2013년부터 매월 2주째 일요일에 도서관을 방문한 유아에게 율동과 함께 하는 영어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

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서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5) 온가족 독서퀴즈대회 & 온가족 독서퀴즈

가족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우리 도서관에서는 2013년 제1회 가족 독서퀴즈 대회 〈북(Book)소리를 울려라〉를 운영하였다. 처음 실시하는 대회였지만 그동안 도서관 Day 및 꾸준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대회 문제는 그동안 매월 첫째 토요일에 운영하였던 가족 도서관 Day에서 독서퀴즈로 출제 되었던 도서들을 선정하여 책읽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아울러 온가족 독서퀴즈는 매월 도서관 Day에서 유아, 어린이, 성인 분야의 책을 한권씩 선정하여 독서퀴즈를 출제하여 현재 많은 이용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6) 독서마라톤 대회

2013년 처음으로 운영한 독서마라톤 대회는 그동안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 가족 이용자와 도서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독서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였다. 마라톤은 책 1페이지를 마라톤 1m로 환산하는 독서대회로 3㎞, 5㎞, 10㎞ 20㎞, 42.195㎞로 구분하여 신청자가 스스로 완주할 목표를 설정하게 하였다. 2013년 참여 인원은 총 402명이었으며, 그 중 194명이 목표를 달성한 완주자가 되었다.

이 대회에 참여한 완주자를 중심으로 전년도 대비 독서증진율의 향상도를 조사한 결과 62.5%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가족이 함께 독려하면서 책을 읽는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독서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사람에게 기념품을 주거나, 완주자에게 상품을 준다면 좋겠지만 도서관의 운영예산 등을 감안할 때 아무것도 제공해줄 수 없었다. 그래서 완주자 격려를 위해 독서마라톤 완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도서관 현관 출입문에 게시하였다. 게시 성과는 의외로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게시자 명단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고, 완주자는 게시물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 매우 흡족해 하였다. 독서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가족에게는 격려를, 참가하지 못한 이용자에게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독서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완주한 사람에게는 도서관 대출권수를 1권씩 추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가족독서퀴즈대회

온가족독서퀴즈

독서마라톤 완주자 명단 게시

5. 온(all)가족! 도서관에서 하나로 어울리다! : 가족 공동체 프로그램

온(all) 가족은 우리 가족과 도서관에서 만난 다른 가족이 하나의 가족으로 어울린다는 의미이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핵심 기반 시설로 온(all) 가족 프로그램을 통하여 내 가족만이 아닌 지역사회내의 다른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하여 지역이 함께 따뜻한 애정으로 청소년들을 키워가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온가족 프로그램을 다른 공공도서관과 연합·운영함으로써 다른 가족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행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며, 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네트워크는 책 읽는 독서문화 확산의 단단한 기반이 된다 하겠다.

〈표 6〉 가족 공동체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운영 횟수	참여 인원	주요내용
가족의 재발견	8	310	강남구내 공공도서관의 연합 프로그램으로 7월~11월까지 주말을 활용하여 도서관별 참여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격유형 검사, 요리 만들기, 문화체험답사, 가족사진 찍기 등 운영
선릉으로 소풍가자	1	25	강남구내 공공도서관이 연합하여 각 도서관에서 이용자 가족을 모집하여 강남구에 있는 '선릉' 체험과 함께 생태환경가가 들려주는 자연생태 이야기, 한 책을 주제로 한 독서 가족놀이 등 체험
가족 재능기부단 '개포아띠'	매주	1,705	2012년부터 운영한 개포아띠는 가족 재능기부단으로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연합하여 지역 초등학생의 수학과 과학 학습을 지도해 주고 있음 (참여인원은 2012년~2013년 통계임)

1) 가족의 재발견

가족의 재발견 프로그램은 2012년도 강남구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운영한 사업으로 강남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개포도서관, 강남교육지원청, 강남구립도서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하였다. 다양한 주말 여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이 함께 어울리며 행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회가 거듭될수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이 늘면서 한 가족과 다른 가족이 만나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지역 속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으로 '재'탄생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내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성격유형검사, MBTI 아빠와 만드는 휴일 일품요리, 부부를 위한 비폭력대화, 가족회의 A to Z. 책을 읽고 독서토론, 모의 가족회의, (야외) 가족문학기행, 컨셉이 있는 가족사진 찍기 & 포토테라피 등으로 구성하였다.

메밀 체험관

가족회의

야외 가족 문학 기행

가족의 재발견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함께 한 가족사진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컨셉이 있는 가족사진 찍기'는 가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한 모습을 앨범으로 담아 개별적으로 전달하여 함께 한 추억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 8회 동안 함께 참여했던 가족을 하나의 가족사진으로 촬영하여 지역사회가 하나의 가족임을 재인식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2) 선릉으로 소풍가자

이 프로그램은 강남구내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한 프로그램이다. 각 도서관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선릉에서 강남구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함께 모여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한 도서관 한 책을 기반으로 강남구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포도서관, 강남도서관, 강남교육지원청, 강남구립도서관이 함께 각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강남구내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3) 가족 재능기부단 “개포아띠”

개포도서관 자원봉사단 〈개포아띠〉는 도서관을 기반으로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청소년의 재능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기에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단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취지였다. 2012년에 봉사단원 13명으로 시작한 개포아띠는 2014년까지 이어져 19명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개포아띠의 주된 봉사활동은 매주 일요일마다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의 학습 지도를 돕는 〈자기주도학습방〉 운영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으로 초등학생 멘티를 모집하여 학생들과 1:1로 짝지어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와 멘토, 멘티가 안 쓰는 물건과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하는 〈나눔의 장터〉는 연1회로 운영하는 장터로 올해까지 총 3회를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금으로 어린이실의 낡고 훼손된 도서를 교체하는데 전액을 기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개포아띠의 학생과 학부모가 어우러진 봉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은 지역사회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학부모는 멘티 학생을 함께 길러내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1 학습 멘토링, 책임감 저절로 생겨요”

내일신문 – 2013. 4. 25

〈표 7〉 개포아띠 운영 현황

연도별	등록인원 (학부모)	운영기간	운영횟수	참여인원	비고
2012년	13(13)	자기주도학습방	49	438	
		나눔의 장터	1	120	수익금전액 도서기부
		박물관 등 관외 견학	1	25	과천국립과학관
		계	50	583	
2013	14(14)	자기주도학습방	86	800	185
		나눔의 장터	1	185	수익금전액 도서기부
		계	87	985	
2014 (진행 중)	19(18)	자기주도학습방	30	372	
		나눔의 장터	1	201	수익금전액 도서기부
		계	31	573	

개포아띠 발대식 선서모습

자기주도학습방 운영모습1

자기주도학습방 운영모습2

나눔의 장터 운영모습

Ⅲ 결론 및 제언

공공도서관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가족 독서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민독서진흥을 위해 무엇보다도 도서관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도서관과 호흡하는 가족 이용자가 많아진다면 그리고 그 가족들의 도서관 이용습관이 자연스럽게 대물림 된다면 그게 바로 독서진흥이 아닐까?

개포도서관에서 시작한 가족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서는 매월 첫째 토요일을 〈가족 도서관 Day〉로 운영하면서 정착되고 있다.

사회 문제의 근원을 가정에서 찾아 그 가족을 따뜻한 가족으로 변화하려는 노력과 평소 도서관을 잘 이용하고 있는 가족보다는 도서관과 다소 거리를 둔 지역주민을 위한 고민으로 운영하게 된 가족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이제 가족 독서릴레이, 가족 독서마라톤 등 다양한 형태의 책읽기 사업으로 확산되어 서서히 책읽기를 즐겨하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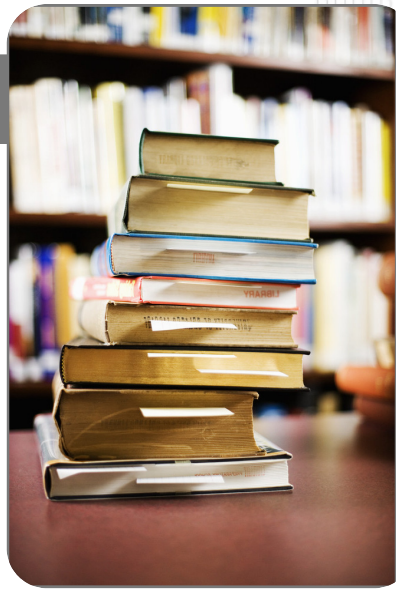
온가족 독서문화사업은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도서관으로 이끌어 내고 그들이 도서관에서 만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또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가족이 함께 만나 지역이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 되기를 꿈꾸면서 운영하였다.

가족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각 지역마다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변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여부에서 담당자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다. 늘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도서관이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으며, 오늘도 다른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관 프로그램을 고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우 수 상

책, 현장, 사람이 만나 독서문화의 장(場)을 열다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 | 김 정 연

현황 및 소개

소백산, 부석사, 소수서원으로 유명한 선비의 고장 영주에 위치한 영주공공도서관은 1983년 개관이래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도서관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평생교육 운영, 지식정보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1983년 12월 22일 영주시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하여 1991년 3월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9년 1월 경상북도립풍기공공도서관이 분관으로 편입되었다. 2001년 12월 디지털자료실을 개실하였고, 2003년 2월 움직이는 도서관(이동도서관)이 분관에서 이관되었다. 2003년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역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평생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제42회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종합 2위를 한 바 있다.

2013년 7월 29일에는 영주공공도서관[시립+도립] 통합 신축 운영관리에 관한 합의각서(경상북도교육청과 영주시)를 체결하여 교육청과 자치단체로 이원화된 행정체제인 공공도서관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의 내실화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도서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서관은 대지면적 5,112㎡, 건물총면적 1,807㎡의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로, 열람석은 총 582석이다. 현재 93,602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388종의 연속간행물과 4,771점의 비도서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며 도서관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14개 지역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 여름방학특강 등 33개 강좌를 운영하여 6,681명이 수강하였다.

영주공공도서관은 인문학과 평생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지역주민과 365일 함께 하고자 한다.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 연혁

1983's	02월 25일	영주시공공도서관 설치 조례 제정 공포
	12월 22일	개관
1991's	03월 25일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1999's	01월 01일	경상북도립풍기공공도서관을 분관으로 편입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 1676호)
2001's	12월 26일	디지털자료실 개실
2003's	02월 10일	[움직이는 도서관] 분관에서 본관으로 이관
2008's	12월 24일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공공도서관 평가 교육정책부문 장려상 수상
2010's	02월 22일	[움직이는 도서관] 자료이관
	02월 25일	제42회 한국도서관상 수상
	09월 05일	제1회 경상북도평생학습축제 작품전시관 운영부분 우수상 수상
2011's	09월 14일	2011년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평가 종합 2위 수상
2013's	07월 01일	제13대 김순연 관장 취임
	07월 29일	영주공공도서관[시립+도립]통합 신축 운영·관리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

출처: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 홈페이지/도서관안내/연혁
(http://www.yl.or.kr/ylib_new/index.php?g_page=intro&m_page=intro02)

우수사례 개요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은 각종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2013년 봉사대상인구 112,62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한 결과 459,884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다. 영주지역은 아버지들의 이용이 많고 주말에는 특히 온 가족이 도서관을 다함께 이용하는 분위기가 정립되어 있다. 이용자들의 높은 이용에 반해 도서관 자체예산은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영주공공도서관에서는 높아져가는 이용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주력하였고 '책, 현장, 사람이 만나 독서문화의 장(場)을 열다.'라는 주제로 운영사례 4가지를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1. '도서관문화 100배 즐기기, 2013' 운영

이 사업은 경상북도교육청이 28개 경상북도립도서관에 공모한 특성화도서관 사업으로 우리도서관은 '도서관문화 100배 즐기기, 2013'으로 공모하여 외부자원 10,000천원을 유치한 사업이다. '도서관문화 100배 즐기기, 2013'은 지역도서관과 연계한 도서관문화 100배 즐기기와 소외계층 및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문화 100배 즐기기로 영주지역 안에 있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마을도서관(9개관)과의 협력을 통해 경북 최초로 영주지역 도서관문화지도 2,000매를 제작하여 영주지역 도서관에 대한 이용안내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영주지역 전체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였다.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로 떠나는 독서기차여행'을 운영하여 가정의 달 5월에 소중한 가족이 추억의 기차를 타고 독서하며 여행을 즐기는 독서기차여행을 통해 '공부가 되는 삼국유사'를 주제도서로 선정해 책도 보고 여행도 즐기며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즐긴 단연 최고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오감쑥쑥! 동화요리를 운영하여 중국,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등 다문화가족 18가족이 아이를 위한 요리도 배우고 재미있고 유익한 동화도 배워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일요일이면 감동과 웃음을 주는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도서관에서 즐기는 영화 관람을 운영하여 제대로 된 영화관이 없는 영주에서 온 가족이 문화를 만끽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이 명실상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운영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사업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121개관 중 하나로 선정되어 외부자원 8,300천원을 지원받은 사업이다.

말로만 듣던 인문학을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내가 직접 참여해 체험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영주의 선비문화를 찾아서'란 주제로 박석홍 소수박물관장님을 모시고 우리지역 영주의 소수서원, 무섬마을을 둘러보면서 인문학 강연 및 탐방을 진행하여 내 고장 영주와 선비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애향심 및 자긍심을 키울 수 있었다.

3. '도서관 속의 물리강연' 운영

2013년 2월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와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사업은 전국에서 중·소도시 인구 15만 명 이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12개 도서관이 '도서관 속의 물리강연' 개최지로 선정되어 저명한 과학자의 과학강연, 인터뷰 및 사인회를 지원받았다. 이에 우리도서관에서는 타임머신과 블랙홀이라는 주제로 과학공화국법정시리즈의 저자 정완상 교수가 강연하는 '도서관 속의 물리강연'을 개최하여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 65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자와 대중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타임머신과 블랙홀 이라는 주제로 토론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과학문화의 혜택을 몸소 누린 소중한 시간이었다.

4. RFID system구축

2013년 가장 두드러진 사업 중 하나인 RFID system구축으로 자료실 자가대출 반납기 비치로 대출 반납이 자동화 되었고 도서무인반납기의 설치로 자료실 개방시간 이후나 휴관일에도 자료를 반납할 수 있어 연체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료분실 방지에 대한 맹점도 해결할 수 있는 RFID 기술을 적용한 U-도서관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렇듯 영주공공도서관은 비록 자체예산은 빈약했지만 그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2013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에 도전했고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관장 및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이런 일련의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이 배웠고,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이 만족해하는 모습 속에서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다. 2014년 올해에도 우리도서관은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특성화도서관사업,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안동 MBC 뉴스의 한 컷을 장식하기도 했다.

영주공공도서관은 2014년에도 공모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도전으로 책, 현장, 사람이 만나는 독서문화의 장(場)을 열어갈 것이다.

Ⅰ 들어가며

모두들 인문학, 인문학하며 인문학이 유행이 되어버린 요즘,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영주공공도서관은 수년 전부터 우리의 뿌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문학, 역사, 철학에 관련된 다양한 평생교육강좌로 연간 40개 강좌를 어린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2013년 8월,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지원관 공모가 있었고 문화적으로 열악한 영주 지역주민들에게 저명한 인사의 인문학 강연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탐방을 통해 인문학이 주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그 깊은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연과 탐방 프로그램을!" 즐기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가 주최하고 (사)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사업이며 이에 영주공공도서관에서는 '영주의 선비문화와 경북 신도청의 풍수와 명문가 집성촌을 찾아서'란 주제로 공모에 선정되어 외부자원 8,300천원을 유치하였다.

2013년 2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특성화도서관 공모가 있었다. 이에 영주공공도서관에서는 영주지역 중심도서관으로서 지역 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과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외계층 및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을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정착시키고자 '도서관문화 100배 즐기기, 2013'이란 주제로 공모하여 예산 10,000천원을 지원받았다.

2013년 2월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와 한국도서관협회는 전국에서 중·소도시 인구 15만 명 이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속의 물리강연'을 개최할 도서관을 공모하여 12개 도서관이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저명한 과학자의 과학강연, 질의응답, 인터뷰 및 사인회로 과학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영주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전문가의 과학강연을 통해 과학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이 주는 재미를 알게 하였다.

과학자와 대중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타임머신과 블랙홀이라는 주제로 토론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영주공공도서관은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영주지역 중심도서관으로 한해 예산이 215,000천원 정도이다. 빈약한 자체예산으로는 엄두도 못 낼 만큼 우수한 기관에서 주최하는 훌륭한 공모사업에 도전할 기회가 많아져 요즘은 사업하기 참 좋아졌다. 공모분야가 다양해졌고, 지원되는 내용이나 예산도 많아 관장님과 담당자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 진짜 골라가면서 원하는 주제에 관한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도서관은 외부자원 유치, 우수한 강사, 저명한 과학자의 강연 등 2013년 한해 공모사업을 통해 펼친 책, 현장, 사람이 만나 독서문화의 장(場)을 연 대표적 운영사례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운영사례 : 책, 현장, 사람이 만나 독서문화의 장(場)을 열다

1. 도서관문화 100배 즐기기, 2013

1) 지역도서관과 연계한 도서관문화 100배 즐기기

(1) 영주지역 도서관문화지도 제작

① 기　간 : 2013년 11월~12월

② 협력도서관 : 영주공공도서관, 풍기분관, 영주시립도서관, 휴천작은도서관, 상망작은 도서관, 동양대학교중앙도서관, 봉현학교마을도서관, 문수학교마을도서관, 대영한빛도서관(9개관)

③ 제작매수 : 2,000매

④ 내　용 : 영주지역 도서관(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마을도서관)의 위치정보, 이용안내 및 문화행사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지역주민에게 배포

〈그림 1〉 영주지역 도서관문화지도 리플렛

⑤ 운영평가

- ▸ 영주지역 도서관문화지도는 처음 보는 것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아주 유용한 자료이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알게 되었다.(학부모 천○○)
- ▸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좋은 정보 감사

평가 분석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는 영주지역 도서관문화지도 한 장만 펼치면 관련정보가 다 수록되어 있어 유용한 자료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영주지역 내 도서관과의 협력으로 지역 내 전체도서관 이용이 활성화 되었다.

(2) 영주지역 도서관 어디어디 가봤니?

① 기　간 : 2013년 11월~12월

② 협력도서관 : 영주공공도서관, 풍기분관, 영주시립도서관, 휴천작은도서관, 상망작은 도서관, 동양대학교중앙도서관, 봉현학교마을도서관, 문수학교마을도서관, 대영한빛도서관(9개관)

③ 참여인원 : 370명

④ 내　용 : 우리 영주지역 도서관의 활발한 이용을 위해 협력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증 발급, 도서대출,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후 영주지역 도서관문화지도에 도서관 이용확인 스탬프를 3개 이상 찍어오면 기념품을 증정함으로써 우리지역 도서관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 함

⑤ 운영평가

- 영주지역에 이렇게 많은 도서관이 있었다니, 다양한 도서관들을 알게 되었고 그곳을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책 넣을 수 있는 가방도 너무 좋다. (초등5학년 권○○ 학부모)
- 선착순 370명에게 주어지는 도서관가방 너무 좋아요. 가족회원으로 책을 빌리고 있어 아쉬웠는데 책가방을 받으니 영주지역 도서관 많이 이용하고 이 가방에 책 많이 빌려 볼게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초등2학년 오○○ 학부모)

평가 분석	영주지역 도서관문화지도와 영주지역 도서관 어디어디 가봤니?를 연계한 운영이 참 잘 되었다는 이용자들의 칭찬이 많았다. 또한 미션수행자에게 주어지는 도서관 가방 증정은 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3) 원화전시를 통한 그림책 깊이 읽기

① 기　간 : 2013년 4월~12월
② 장　소 : 영주공공도서관 2층 로비
③ 참여인원 : 5,000여명
④ 내　용 : 매월 출판사를 통해 원화를 신청하고 도서관 로비에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여 그림책을 원화로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운영평가

- 그림책을 액자로 보니 더 실감나요 (초등5학년 김○○ 학생)
- 책이 아니라 큰 액자로 보니까 커서 좋아요 (7세 이○○ 어린이)
- 매월 원화전시가 바뀌어서 볼거리가 생겨서 좋습니다 (초등3학년 박○○ 학부모)

평가 분석	매월 새로운 원화그림책을 전시하여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개방된 공간에 전시를 함으로써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그림책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영주 BOOK페스티벌 운영

① 기　간 : 2013년 9월 13일~9월 14일(2일간)
② 장　소 : 영주문화예술회관
③ 내　용 : 영주북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영주교육지원청이 함께 주관한 2013 영주 BOOK 페스티벌 행사에 참가하여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프로그램 운영

〈표 1〉 영주 BOOK 페스티벌 운영프로그램

행사명	운영내용	참여인원
내 손으로 만드는 동화	어린이들이 직접 동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을 만들어보면서, 그림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함	700명
그림책 원화전시	강아지(현덕 글/길벗어린이) 원화전시	820명
원화 읽고 퀴즈 풀자	전시된 원화(강아지/길벗출판사)를 보고 퀴즈풀기	770명
책 읽는 버스에서 역사보물찾기	책 읽는 버스에서 책 읽고, 비치된 역사책 읽은 후 역사퀴즈를 풀고, 직접 역사보물 그리기	550명

〈사진 1〉 참가자 소감

- 구름 빵을 그림책으로만 보다가 주인공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신났다. (6세 김○○)
-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속 한 장면을 만들어볼 수 있어서 좋아했다. (지역주민 이○○)

- 퀴즈를 잘 맞추고 싶어서 원화를 더 열심히 보게 되었고, O·X판을 들고 정답을 맞추는 퀴즈가 정말 재미있었다. (초등3학년 김○○)
- 그림책 원화도 보고 퀴즈도 풀고, 게다가 퀴즈 다 맞추고 선물도 받고 완전 좋았다. (7세 박○○)

④ 운영평가

- 올해에는 영주시와 영주교육지원청이 함께 주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었던 축제였다. 도서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은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었다. (북페스티벌 추진위원 권○○)
- 어린이들이 어렵게 느끼는 역사를 역사책을 보면서 퀴즈를 풀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역사보물을 그려보면서 역사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매우 유익한 체험프로그램이 도서관에서 운영되어서 좋았다. (지역민 윤○○)

평가 분석	2013 북페스티벌은 영주시와 영주교육지원청이 함께 주관하여 공연 및 체험, 전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체험 및 전시 부스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책 축제로서의 의미가 더해졌으며 동아리 공연도 함께 진행되어 학생 및 지역주민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특히 우리도서관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생, 어른까지 아우르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2) 소외계층 및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문화 100배 즐기기

(1) "도서관으로 책소풍 오세요"(도서관주간)

① 기　간 : 2013년 4월 12일~4월 18일
② 장　소 : 도서관 로비 및 앞마당
③ 내　용 :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운영되어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 소풍 온 듯한 기분을 만끽하였다.
④ 협력기관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표 2〉 "도서관으로 책소풍 오세요" 운영프로그램

행사명	운영내용	참여인원
그림을 읽다, 그림책원화전시	- 물은 어디서 왔을까/ 길벗어린이	1,690명
책은 네모다	- 책에 관한 생각쓰기	404명
도서관 벚꽃 길에서 찰칵~!	- 가족 및 친구들과 즉석사진 찍기	680명
잠자는 책을 깨워라! 도서교환전	- 집에서 잠자는 책을 도서관에서 교환하는 도서교환전	702권 교환

행사명	운영내용	참여인원
책 읽는 버스타고 책속으로 풍덩~	- 이동도서관 버스 체험, 이야기 들려주기	630명
내가 독서왕! 동화책 O,X퀴즈	- 동화책 속 퀴즈풀기	720명
달콤한 솜사탕	- 체험행사 참여 후 솜사탕 증정	1,070명
도서관에서 만나는 국립공원	- 야생화 액자 전시, 책갈피 만들기, 솔방울 던지기	680명
균형 잡는 잠자리 만들기	- 균형 잡는 잠자리 만들기	320명

〈사진 2〉 참가자 소감

- 어린이가 책 읽어달라고 그림책을 내미는 모습이 너무 예뻤고, 내가 읽어주는 책을 재미있게 봐주어서 좋았다.(자원봉사자 유아교육과 정○○)
- 버스 안에 책이 있어서 신기했고, 책에 둘러싸여서 마음대로 책을 꺼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7세 김○○)

- 평상시에 재미있게 보았던 책 내용을 퀴즈로 풀어서 다 맞출 수 있었다. 앞으로도 책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1학년 신○○)
- 솜사탕 쿠폰을 받으려고 퀴즈를 풀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중학교 2학년 김○○)

■ 야생화를 전시된 액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어서 유익했고, 솔방울 던지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 (지역민 최○○)

■ 솔방울이 잘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갔다. 하지만 솔방울을 하나 넣어서 재미있었다. (7세 김○○ 어린이)

⑤ 운영평가

▸ 가족이 함께 책 빌리러 도서관을 찾았는데 앞마당 행사에도 참여하고, 가족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지역주민 이○○)

▸ 어린이들에게 이동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면서, 도서관이 어른과 어린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꼈다. (자원봉사 백○○ 대학생)

평가 분석	따뜻해진 봄 날씨에 도서관을 찾아, 책도 읽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도서관 나들이를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맞게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소백산국립공원이 협조를 하여 더욱 다채로운 체험이 운영되었고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협력을 이루어 행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보도자료 1〉

2014년 개교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每日新聞

2013.04.05 크게 작게

"책소풍 떠나요" 영주공공도서관 독서문화행사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관장 장경숙)은 제49회 도서관주간(12~18일)을 맞아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마련한다. '도서관으로 책소풍 오세요'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그림책 전시와 테마도서 전시, 집에서 잠자는 도서교환전, 책은 네모다, 어린이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인 친구야 우리 도서관에 놀러가자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또 영주공공도서관은 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인 3권이던 도서 대출을 5권으로 상향대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13일(토요일)은 도서관 앞마당에서 벚꽃길에서 즉석사진 찍기, 책읽는 버스 체험, 동화책 OX퀴즈, 달콤한 솜사탕 만들기가 진행되고 소백산국립공원과 함께 솔방울 던지기, 동물발자국 책갈피 만들기, 균형잡는 잠자리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장경숙 영주공공도서관장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독서의욕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희망서울
서울특별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서울 공공주택
자세히 보러가기 GO

(2)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로 떠나는 독서기차여행

① 일　시 : 2013년 5월 25일(토) 9:20～19:30
② 장　소 : 군위 화본역, 화본마을
③ 대　상 : 가족단위 4명 이하(초등3～6학년을 둔 가족)
④ 인　원 : 72명
⑤ 내　용
- 가족과 함께 떠나는 독서기차여행, '공부가 되는 삼국유사' 깊이 읽기, 달고나 체험, 문화관광해설로 듣는 삼국유사, 화본역, 화본마을 이해하기, 삼국유사 독서골든벨,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추억의 박물관 관람, 레크레이션
- 기차 1냥을 대여해 소중한 가족이 함께 추억의 기차를 타고 독서하며 여행을 즐기는 독서기차여행으로 참가 희망가족을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군위 화본역으로 떠나는 독서기차여행

〈표 3〉 독서기차여행 운영일정

운영시간	소요시간	운 영 내 용	비　고
09:20~09:40	20분	영주역 집결(인원점검)	
09:40~09:50	10분	열차 탑승(무궁화호)	영주역
09:50~11:20	1시간30분	독서기차여행 '공부가 되는 삼국유사' 깊이 읽기	영주역→화본역
11:20~11:30	10분	화본역 도착(인원점검)	화본역
11:30~12:30	1시간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삼국유사 군위, 화본마을 깊이 이해하기	급수탑 화본마을
12:30~14:00	1시간30분	점심, 개별체험 달고나체험, 자전거 타기	점심 개별지참 화본마을
14:00~16:00	2시간	삼국유사 독서골든벨 가족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16:00~17:10	1시간10분	화본마을투어 벽화길 따라 걷기	
17:10~17:30	20분	회본역 집결(인원점검), 열차탑승	화본역
17:30~19:00	1시간30분	독서기차여행 함께 나누는 여행후기	화본역→영주역
19:00~		귀　가	영주역

기차타고 군위 화본역에 도착

기차타고 가며 '공부가 되는 삼국유사' 깊이 읽기

문화관광해설 들으며 추억의 박물관에서

내가 최후의 1인 삼국유사 독서골든벨

가족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독서기차여행

⑥ 운영평가

- 지금까지는 막연히 차로 여행만 했는데 독서기차여행을 통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관련 책을 미리 읽고 그 현장을 찾아가는 이런 좋은 방법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 독서기차여행을 통해 모처럼 가족이 함께 추억의 기차를 타고 여행하게 되어 행복했고 교과서로만 접하다가 직접 설명을 듣으니 이해도 쉽고 참 인상 깊었다. (4학년 석○○ 학생)

평가 분석	독서기차여행은 참가자 모두가 만족한 프로그램으로 5월 가정의 달 소중한 가족이 함께 추억의 기차를 타고 독서하며 여행을 즐긴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행사

(3)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오감쑥쑥! 동화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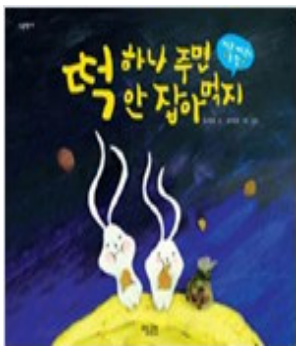
① 기　간 : 2013년 5월 6일~7월 1일 매주 월요일 19:00~21:00, 7회 운영, 휴관일 제외
② 장　소 : 영주공공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
③ 대　상 : 다문화가족 18가족 36명(자녀1인, 부모1인)
④ 인　원 : 252명
⑤ 내　용 : 맛있는 요리 만들기, 그림책 깊이 읽기, 독후활동
- 강　사 : 장효선(아동요리연구가, 동화구연가)

⑥ 협력기관 : 영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영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수강생모집 및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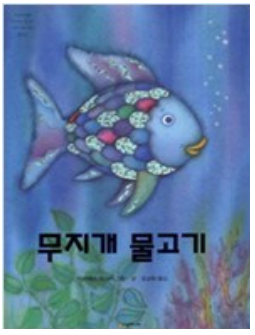
〈표 4〉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오감쑥쑥! 운영일정

1회 5.6(월) 우리엄마
엄마와 만드는 김밥도시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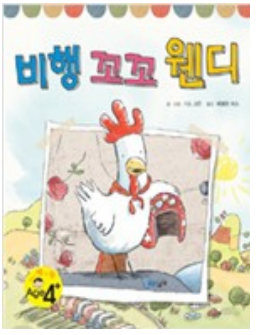
2회 5.13(월) 꼬마버스타요
신호등 샌드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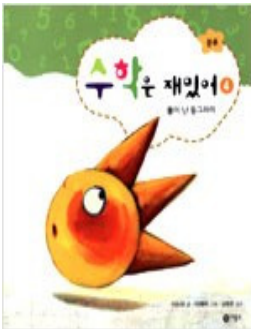
3회 5.20(월) 김치떡피자
떡 하나주면 안 잡아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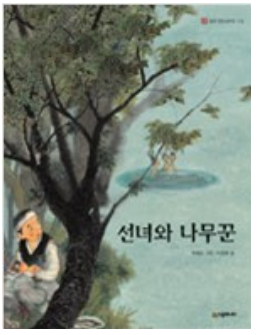
4회 6.3(월) 무지개 물고기
레몬향 미니 마들렌 만들기



5회 6.10(월) 비행 꼬꼬 웬디
꼬꼬 치킨 핑거 샐러드



6회 6.17(월) 초코 쿠키
뿔이 난 동그라미



7회 7.1(월) 선녀와 나무꾼
임금님이 드시던 궁중떡볶이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오감 쑥쑥! 동화요리

영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강의 시작

재미있는 동화도 배우고 맛있는 요리도 만들고

다문화가족 엄마와 아이들의 행복한 시간

요리를 통해 오감이 쑥쑥 자라고

동화배우고 요리 만들고 독후활동까지

⑦ 운영평가

- 아이가 자꾸 월요일을 기다린다. 도서관에 빨리 가서 요리도 하고 동화도 배우고 독후활동으로 했던 시장놀이가 너무 재미있어 동생에게 알려주는 게 참 인상깊었다. (참가자 멜리○)
- 저녁시간 아이와 함께하는 나들이, 요리를 직접 해보고 함께 만들면 어느새 훌륭한 요리 완성, 만들고 먹고 가져가는 이렇게 좋은 과정 만들어주셔서 감사 (참가자 부티○○)

평가 분석	다문화가족이 도서관에서 오감쑥쑥! 동화요리를 통해 동화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한 인기 있는 강좌였다.

〈보도자료 2〉

경북일보

2014년 04월 28일 (월) 날씨 : 영덕11/16℃

통합검색 검색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뉴스 지역뉴스 스포츠·연예 사설·칼럼 특집 커뮤니티 사람들 시민기자

헤드라인 | 정치 | 자치행정 | 국제 | 사회 | 경제 | 문화

지역뉴스

· 대구
· 포항·울릉
· 경주·영천·경산·청도
· 안동·영주·의성·예천
· 구미·김천·상주·문경
· 군위·칠곡·성주·고령
· 울진·영덕·영양·청송·봉

동영상뉴스

부활의 기쁨을 …

사타구니를 왜 긁어?

itempage3.aucti…

씻어만 주면 OK 살균 항 그 놈의 남성청결제 히즈클린 아닙

영주공공도서관, 요리 만들고 책놀이 하며 '오감 쑥쑥'

7월 초까지 다문화가족 대상 강좌 운영

기사입력 | 2013-06-08

영주공공도서관은 6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오감쑥쑥! 동화요리' 강좌를 운영한다.

영주공공도서관은 6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총 7회에 걸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오감쑥쑥! 동화요리' 강좌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특성화도서관 '도서관문화 100배 즐기기, 2013'의 일환으로 영주공공도서관이 경상북도교육청에 공모해 선정된 사업이다.

이에따라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다문화가족 36명에 대한 수강생 모집 및 홍보를 지원받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태국, 일본에서 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오감쑥쑥! 동화요리' 는 부모님 1인과 자녀 1인이 1가족이 되어 맛있는 요리를 함께 직접 만들고 표현하고 먹는 과정을 통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된 동화를 배운 후 하게 되는 재미있는 책놀이를 통해 오감이 쑥쑥 커지고 창의력도 풍부하게 길러지게 된다.

장경숙 영주공공도서관장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오감쑥쑥! 동화요리를 통해 다문화가족도 운영자도 만족하는 우수 다문화프로그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4) 도서관에서 즐기는 영화관람

① 기　간 : 2013년 9월 8일~10월 27일 매주 일요일 14:00~, 8회 상영
② 장　소 : 영주공공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
③ 대　상 : 도서관 이용자 누구나, 학생 및 학부모
④ 인　원 : 320명(매회 40명 정도)
⑤ 내　용 : 주말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도서관,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영화관람
⑥ 도서관에서의 영화상영 : 저작권법 제11조에 의거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화 선정

〈표 5〉 상영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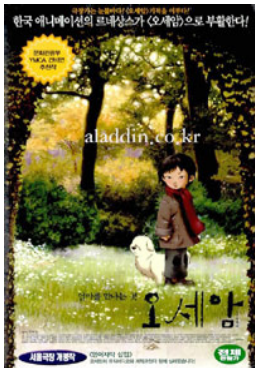
1회 9.8(일) 14:00

2회 9.15(일) 14:00

3회 9.22(일)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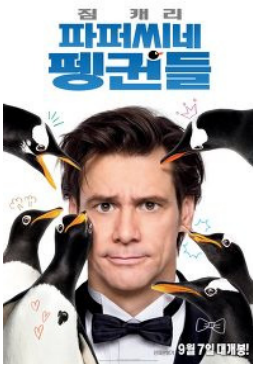
4회 9.29(일) 14:00

5회 10.6(일)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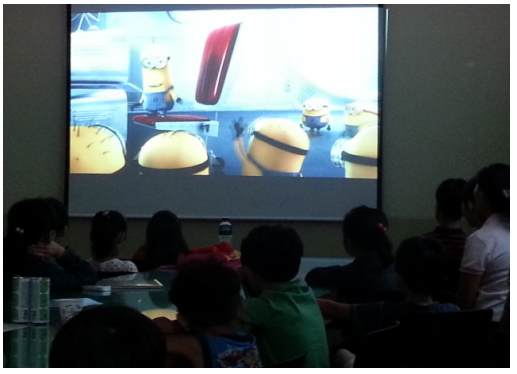


6회 10.13(일) 14:00

7회 10.20(일) 14:00



8회 10.27(일) 14:00



일요일엔 영화 보러 도서관으로

가족과 함께 도서관에서 즐기는 영화관람

320명 참여, 매회 40명씩 총8회 운영

감동과 웃음을 주는 영화 즐기기

⑦ 운영평가

- 주말이면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하는데 도서관에 와서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너무 좋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해서 주말마다 맛있는 간식 사들고 도서관으로 가족 나들이 나온다. (지역주민 김○○)
-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본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화를, 보고 싶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주어 일요일엔 도서관에 오는 게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되었다. 7번방의 선물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슴 벅참으로 행복했다. (지역주민 심○○)

평가 분석	영주지역 엄마 아빠들은 일요일 아이들을 데리고 1주간 볼 책을 보고 빌리러 도서관에 온다. 점심먹이고 아이들에게 영화 보여주러 온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다 더 열심히 영화에 몰입한다. 때론 눈물도 흘리고, 수없이 웃기도 하고,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도서관에서 영화 관람을 즐겼다고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총3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매회 40명씩 선착순 입장하여 8회 운영되었고 영화 상영할 때마다 설치하던 스피커를 2층 문화강좌실에 장착형으로 비치하였다.

2.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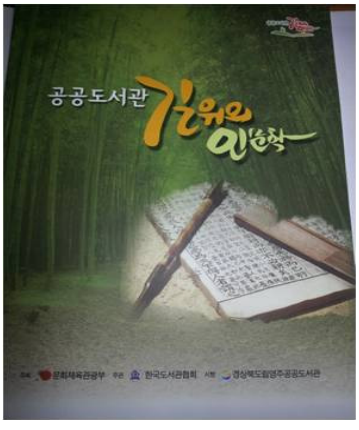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인문학 강연과 탐방으로 구성되며 1차·2차에 걸쳐 운영되었다.

1) 1차 주제 : 영주의 선비문화를 찾아서

(1) 1회 : 박석홍 소수박물관장 강연회

1차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우리 고장 영주를 먼저 알아본다는 취지에서 영주문화에 해박하신 박석홍 소수박물관장을 모시고 '선비문화를 찾아서'란 주제로 2013년 10월 4일(금) 19:00 영주공공도서관 3층 문화강좌실에서 지역주민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회가 열렸다. 강연회에 사용할 자체 자료집도 발간했다.

〈사진 3〉 강연회를 위해 직접 제작한 자체자료집 100부 발간



박석홍 관장님께서 어찌나 열강을 하시던지 우리는 모두 관장님의 팬이 되었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 내고장 영주를 바로 아는 절호의 계기가 되었고 영주에 살고 있어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절감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진 4〉 박석홍 소수박물관장 강연회

(2) 2회: 박석홍 소수박물관장과 함께하는 탐방

10월 5일(토) 버스에 몸을 싣고 '선비문화를 찾아서' 영주일대 탐방을 시작했다. 맨 처음 간 곳은 순흥으로 이곳은 한국정신문화의 창출지이자 우리나라에 주자학(朱子學)을 처음 도입하신 회헌 안향 선생이 이 고장(순흥) 출신이고, 그분이 도입한 학문이 조선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된 곳이다.

〈사진 5〉 영주일대 탐방시작, 순흥 척화비

이곳은 소수서원 숙수사지 당간지주(보물 제59호),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절에서 석조지주 가운데 기둥을 높이 세워 깃발을 걸었던 곳이다.

강연회 때 들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박석홍 관장님의 설명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니 “우리가 마치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것 같다.”며 너무 좋다!를 연발하였고 “진작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며 단 한순간도 단 한마디의 말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듣고 배우는 마냥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진 6〉 소수서원 당간지주, 돌무덤

여기는 소수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조선 중종 37년(1542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 말의 유학자이며 최초의 성리학자이신 회헌 안향선생이 태어나 자란 이 곳에 그 분을 기리고자 백운동서원을 건립한데서 비롯되었다. 그 후 퇴계 이황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조정에 건의하여 「소수서원」이란 사액을 받게 되었다. 사액서원은 임금으로부터 책, 토지, 노비를 하사받고 면역의 특권을 가진 서원을 말한다. 경내에는 강학당, 장서각, 일신재, 직방재, 학구재 등의 옛 건물이 있으며 국보 제111호인 회헌 초상과 보물 5점 등 많은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사진 7〉 소수서원–경렴정, 백운동서원

소수서원은 영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지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늘 상주하고 있으니 반드시 해설을 들으며 소수서원을 관람하기를 권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아무런 설명이나 해설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것은 그저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유교(성리학)와 관련된 전통문화유산을 체계화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서 유교이상을 간직한 소수서원을 통하여 민족정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소수박물관을 둘러보았다.

〈사진 8〉 소수박물관-고인돌, 전시실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예전과 달리 지원되는 금액이 넉넉해서 담당자가 운영하기도 좋고 참가자는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참으로 좋은 경우였다. 하지만 시행지침에 식비사용은 불가하여 점심은 1만원은 개인이 부담하였다.

점심을 먹고는 삼국시대를 읽을 수 있는 순흥읍내리벽화고분(고구려 벽화고분, 사적 313호)을 둘러보았다. 순흥 읍내리 비봉산 기슭에 자리한 이 고분은 539년경에 축조된 것으로, 고구려에 인접한 신라의 변방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고구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외형은 둥글고 내부는 방형의 널방과 널길로 이루어진 남한유일의 고구려식 돌방무덤이었다. 이토록 귀한 것을 옆에 두고도 몰랐다니!

〈사진 9〉 순흥읍내리벽화고분(고구려벽화고분, 사적313호)

소수서원, 부석사, 그리고 무섬마을로 유명한 영주! 우리는 무섬마을로 갔다. 물 위에 떠 있는 섬이라하여 무섬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은 굽이굽이 돌아 흐르는 강줄기에 감싸여 자연의 정취로 가득 채워진 수도리 전통마을이었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선조들의 숨결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외나무다리로 유명한 무섬마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외나무다리에 올라가 다리를 건너며 상대에 대한 배려와 기다림을 몸소 체험했다.

〈사진 10〉 무섬마을–외나무다리

〈보도자료3〉 경상매일(2013. 9. 25.)

경상매일

자치행정 경북 대구 사회 경제 스포츠 방송·연예

영주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80명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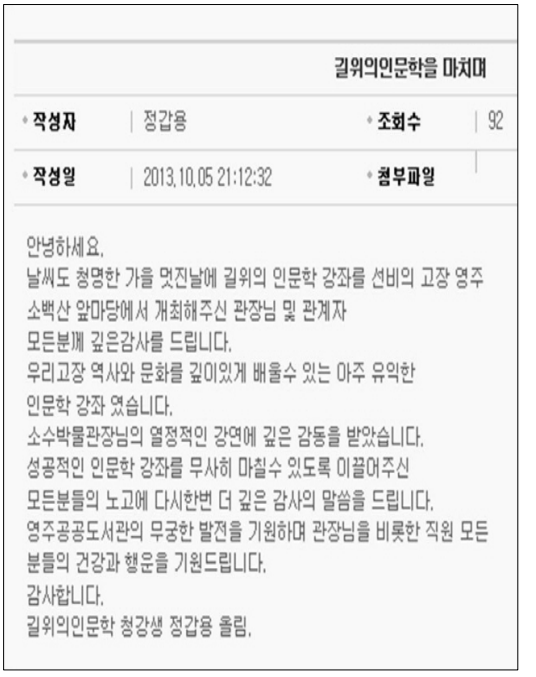
인쇄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싸이월드공감

조봉현기자

경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은'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을 시행한다.
우리동네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연과 탐방을 즐기고자 하는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 협회가 주관하는'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공모사업에 영주공공도서관이 지원하여 선정되어서 외부자원을 유치한 결과다.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1차.2차에 걸쳐 인문학 강연회 및 탐방으로 운영된다.
1차는 '선비문화를 찾아서'란 주제로 오는 10월4일 박석홍 소수박물관장의 강연회가 있고 오는 10월5일에는 소수서원→금성대군 신단→고구려 벽화고분→무섬마을→고려와요지를 탐방하게 된다.
2차는'경북 신도청 소재지의 풍수와 명문가 집성촌을 찾아서'란 주제로 10월8일 류동학 교수의 강연회가 있고 10월19일에는 경북 신도청 소재지인 검무산→오미마을→기일마을→하회탈춤 공연관람→하회마을을 탐방하여 인문학에 대한 깊은 매력에 푹 빠져 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영주공공도서관 에서는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참가할 참가자 8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yl.or.kr)나 전화631-8139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3-09-25 14:47] 최종편집: ⓒ 경상매일신문

〈참가자 소감〉 도서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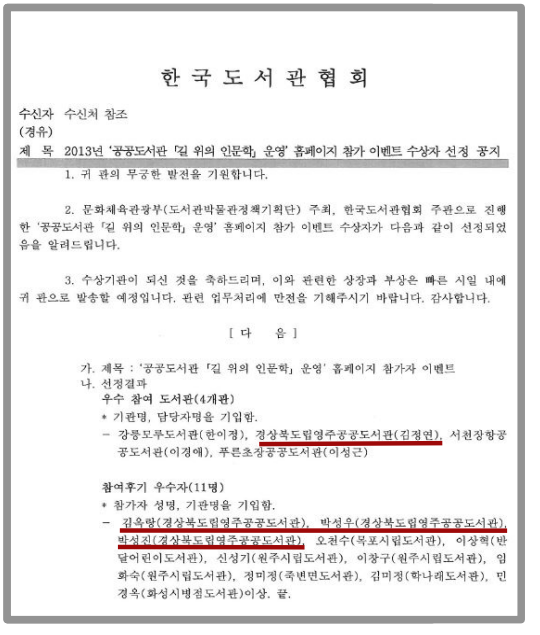
길위의인문학을 마치며

작성자 | 정갑용 조회수 | 92

작성일 | 2013.10.05 21:12:3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날씨도 청명한 가을 멋진날에 길위의 인문학 강좌를 선비의 고장 영주 소백산 앞마당에서 개최해주신 관장님 및 관계자
모든분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고장 역사와 문화를 깊이있게 배울수 있는 아주 유익한
인문학 강좌 였습니다.
소수박물관장님의 열정적인 강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인문학 강좌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모든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공공도서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위의인문학 청강생 정갑용 올림.

〈배너, 우수참여도서관 선정 공문〉



한 국 도 서 관 협 회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2013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홈페이지 참가 이벤트 수상자 선정 공지

1. 귀 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진행한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홈페이지 참가 이벤트 수상자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상기관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이와 관련한 상장과 부상은 빠른 시일 내에 귀 관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음]

가. 제목 :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홈페이지 참가자 이벤트
나. 선정결과
우수 참여 도서관(4개관)
* 기관명, 담당자명을 기입함.
- 강릉모루도서관(한이정),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김정연), 서천장항공공도서관(이경애), 푸른초장공공도서관(이성근)

참여후기 우수자(11명)
* 참가자 성명, 기관명을 기입함.
- 김옥랑(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 박성우(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 박성진(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 오천수(목포시립도서관), 이상혁(반달어린이도서관), 신성기(원주시립도서관), 이창구(원주시립도서관), 임화숙(원주시립도서관), 정미정(죽변면도서관), 김미정(학나래도서관), 민경옥(화성시병점도서관)이상. 끝.

2) 2차 주제 : 경북 신도청의 풍수와 명문가 집성촌을 찾아서

(1) 3회 : 류동학 교수 강연회

2차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강연회가 2013년 10월 18일(금) 19:00 영주공공도서관 3층 문화강좌실에서 지역주민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북 신도청의 풍수와 명문가 집성촌을 찾아서'란 주제로 열린 류동학 교수의 강연회를 통해 경북 신도청의 풍수와 풍수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주변의 명문가 집성촌으로 알고 있던 하회마을 이외에 오미마을, 소산마을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진 11〉 풍수의 대가 류동학 교수 강연

(2) 4회: 류동학 교수와 함께하는 탐방

다음 날인 10월 19일(토) 강연을 들은 45명이 류동학교수와 함께 탐방을 떠났다. 독립투사를 많이 배출한 오미마을에서 애국지사들의 넋을 기리고 탐방을 시작했다. 신도청지역 북쪽에 위치한 오미마을은 풍산 김씨들이 500년 동안 세거해 온 씨족마을로 유연당 김대현공의 아들 8형제가 모두 진사에 이르고 그 가운데 5형제는 문과에 급제하자 인조임금이 팔연오계(八蓮五桂)라 하여 마을 이름으로 지금의 오미동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오미마을이 되었다.

〈사진 12〉 오미마을 탐방

풍수의 대가이신 류동학교수님을 TV에서 방송으로 많이 보셨다며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에 참가한 우리를 그토록 반갑게 맞아주시던 마을에 살고 계신 후손께서 직접 오미마을에 대해 설명도 해 주시고 이 집 만의 특별한 것도 보여 주셨다. 대문 밖 담에 구멍을 내어 들어오는 손님에 대해 미리 알고 상을 차리기도 했다고……. 후손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는 참가자들 가슴에 깊은 감동으로 자리했다.

〈사진 13〉 실제 거주하고 있는 후손으로부터 직접 듣는 오미마을 이야기

학가산의 한 갈래인 대봉산 줄기가 수십 리를 남으로 뻗어내려 죽자봉을 만들고 동쪽으로는 아미산이 굽어 돌아 마을을 감싸며, 서쪽으로는 멀찍이 도인산이, 남쪽으로는 곱게 솟은 검무산을 바라보는 아늑한 동네, 풍산김씨 집성촌 오미마을에서 인문학이 주는 깊은 매력에 푹 빠진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진 14〉 풍수의 대가 류동학 교수 강연

오미마을 거쳐 우리는 소산마을로 갔다. 구한말 세도정치로 60년 동안 권력을 휘둘렀던 안동김씨는 조선 중기부터 본향인 안동 풍산 소산리를 떠나 한양(청풍계, 장의동)에 세거 하면서 명문거족으로 성장했던 조선 말기 60년 세도가문 장동김씨(신안동김씨) 집성촌이다.

신안동김씨(장동김씨)는 청음 김상헌 선생의 동생집안으로 청음 김상헌 선생은 고향인 안동시 풍산읍 소산마을에서 말년을 보냈고 후손들이 세도정치라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져,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명문집안으로 권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대원군도 살아남기 위해 안동김씨 앞에서 기생 가랑이 사이로 기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사진 15〉 명문가 집성촌 소산마을

여기는 소산마을 삼구정(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3호), 좌청룡 우백호 소산마을의 풍수를 만끽하며 장령공 김영수가 영천군수에서 물러난 후 87세의 노모를 위하여 지었다는 정자 삼구정에서 거북처럼 생긴 바위를 보며 각자의 부모님을 생각하기도 했다. 정자의 경치가 하도 좋아 '어찌 이렇게 좋은 곳을 지척에 두고도 몰랐단 말인가!' 참으로 날씨 좋고 함께 하는 사람 좋고 분위기 좋은 날이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굴욕적인 강화에 반대한 김상헌이 청에 끌려갔다가 6년 옥살이 하고 돌아온 후 중건하고 청을 멀리한다는 의미로 당호를 붙인 청원루(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0호)에서 선조의 숨결을 느끼니 그 옛날 역사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 같았다. 소산마을에서 제일 명당이라는 안동김씨종택, 삼소재(경상북도 민속자료 제66호)에서 명당의 기를 받으며 저마다 마음으로 '모든 좋은 기여 나에게로 오라!' 간절한 염원을 사진 속 미소에 담았다.

〈사진 16〉 명문가 집성촌을 찾아서, 소산마을 최고의 명당

경북 신도청의 풍수는 백두대간을 척추로 하여 북쪽과 서쪽으로는 문수지맥이, 남쪽으로는 보현지맥이 자리하고 있고, 태백산 부근에서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으로 갈라졌던 산의 지세가 경북지역을 돌아서 다시 합쳐지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내성천과 낙동강 사이에 있는 산맥과 강이 어우러진 21세기 경북의 미래를 선도할 '웅도 경북'의 자존과 영광을 지켜줄 명당이다.

〈사진 17〉 경북 신도청 청사 방문, 하회탈춤 공연관람

경북 신도청의 풍수를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 경상북도청 신도시지원과에 '경북 도청 신청사 현장 방문 협조 의뢰' 공문을 보내 신청사 현황 설명 및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미리 가 본 경북 신청사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동영상을 보니 웅도 경북에 대한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점심을 먹고 하회마을로 이동해 하회탈춤 공연도 보았다. 무동, 주지, 할미, 양반, 선비 등 여섯 마당으로 구성된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빈자리가 하나도 없을 만큼 관람객이 많았고 외국인들도 많아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하회탈춤 공연 관람을 마치고 하회마을을 탐방했다. 안동축제추진위원회에 '문화관광해설사 동행안내 협조 의뢰' 공문을 보내 이준용 문화관광해설사를 동행안내 요청하여 우리 선조들의 얼과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3. ‘도서관 속의 물리강연’ 운영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이 사업은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12개 도서관이 ‘도서관 속의 물리강연’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이에 영주공공도서관에서는 4월 27일(토) 타임머신과 블랙홀이라는 주제로 과학공화국법정시리즈의 저자 정완상이 강연하는 ‘도서관 속의 물리강연’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림 2〉 ‘도서관 속의 물리강연’ 안내문

이날 강연에는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 65명이 온라인 선착순 접수를 통해 신청하고 참여하였다. 과학자 정완상 교수의 연사소개, 타임머신과 블랙홀에 관한 강연, 질의응답, 인터뷰 및 사인회로 진행되어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끊임없는 질문으로 과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 행사는 과학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영주 학생 및 일반대중에게 전문가의 과학 강연을 통해 과학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도서관에서 제공하여 과학이 주는 재미를 알게 하고 과학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과학자와 대중과의 만남을 제공하고 타임머신과 블랙홀이라는 주제로 토론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과학문화의 혜택을 몸소 누린 소중한 시간이었다.

〈보도자료 4〉 영주신문(2013. 4. 11.)

영주신문

로그인 | 회원가입

전국 200여 지역신문이 참여하는 뉴스네트워크

뉴스코리아

365일 언제나 새로운 뉴스

최종편집 : 2014.4.27 18:53

전체 | 의회/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청소년 | 문화 | 스포츠 | 오피니언 | 봉화 | 자치 | 북지

전체

• 전체

가장많이본뉴스

• "반듯한 경영을
• 장윤석 국회의원
• 힐링의 허브로
• 2014년 제1
• 국민연금급여액
• 출북선 경유 영
• 김주영 시장,
• 재경영주초등학교
• 소백산 3개시·
• 영주시선거관리위
• 메가마트 영주한
• 안효종 부시장
• 김주영 영주시장
• 코레일 영주관리
• 안효종 영주시
• 김주영 영주시장
• 영주시장애인종합
• 영주비전2020
• 새누리당 영주시
• 영주교육지원청

뉴스홈 >기사보기

영주공공도서관,'도서관 속의 물리강연'

과학강연, 타임머신과 블랙홀

[2013-04-11 오전 10:29:00]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관장 장경숙)은 오는 4월 27일 타임머신과 블랙홀이라는 주제로 과학공화국법정시리즈의 저자 정완상이 강연하는 '도서관 속의 물리강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과학문화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영주 학생 및 일반대중에게 전문가의 과학강연을 통해 과학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도서관에서 제공하여 과학이 주는 재미를 알게 하고 과학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서관 속의 물리강연' 참가자 접수는 4월 15일 10시부터 초등3~6학년, 학부모 50명을 홈페이지(http://www.yl.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연사소개, 과학강연, 인터뷰 및 사인회로 진행되니 과학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이 사업은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12개 도서관이 '도서관 속의 물리강연'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이에 영주공공도서관에서는 4월 27일 시행한다. 과학자와 대중과의 만남을 제공하고 타임머신과 블랙홀이라는 주제로 토론과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과학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권대현(youngju@newsn.com)

4. RFID 기술을 적용한 U-도서관서비스 제공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자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자동화 시스템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System을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구축하여 U-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완벽한 구축을 위해 4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친 견학을 통해 3M, ECO, NICOM, 벼리를 사용하는 기 구축된 도서관 6개관을 방문하여 현 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

자가대출반납기, 도서무인반납기 등 이용자 중심의 자동화기기 도입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이용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 제고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 기　간 : 2013년 9월~11월
○ 구　축 : 사서용리더기 6대, 자가대출반납기 2대, 도서무인반납기 1대, 반납함 1대 분실방지시스템 2조, 회원증발급기 2대, 장서점검기 1대, 장서100,000권에 RFID 태깅작업
○ 관외대출회원증 변경 : 카드형태의 RFID 회원증으로 관외대출회원증 변경
○ 집행액 : 109,481,700원

〈사진 18〉 RFID 시스템 구축-도서무인반납기, 자가대출반납기

일반자료실 및 어린이자료실에 자가대출반납기 설치로 “이용자가 직접 직원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료를 대출, 반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1월 11일부터는 대출권수를 기존의 3권에서 5권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그동안 대출, 반납 업무에 매달려 부족했던 참고봉사 및 자료상담 등 이용자를 위한 질적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서관 현관 입구에 도서무인반납기를 설치하여 자료실 개방시간 이후나 휴관일 에도 실시간 자료를 반납할 수 있어 연체로 인한 이용자 불편사항이 해소되었다.

Ⅲ 나 오 며

이렇듯 영주공공도서관은 비록 자체예산은 빈약했지만 그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2013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에 도전했고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관장 및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그래도 요즘은 참 사업하기 좋아졌다. 우수한 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이 다양하게 많아 관장님과 담당자의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원관으로 선정되어 넉넉한 예산지원 및 저명한 과학자의 과학강연 등 많은 혜택을 받았고 외부자원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서관문화 100배 즐기기, 2013’,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도서관 속의 물리강연’과 같이 이런 일련의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이 배웠고,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이 만족해하는 모습 속에서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다. 2014년 올해에도 우리도서관은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특성화도서관사업,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안동 MBC 뉴스의 한 컷을 장식하기도 했다.

영주공공도서관은 2014년에도 공모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도전으로 책, 현장, 사람이 만나는 독서문화의 장(場)을 열어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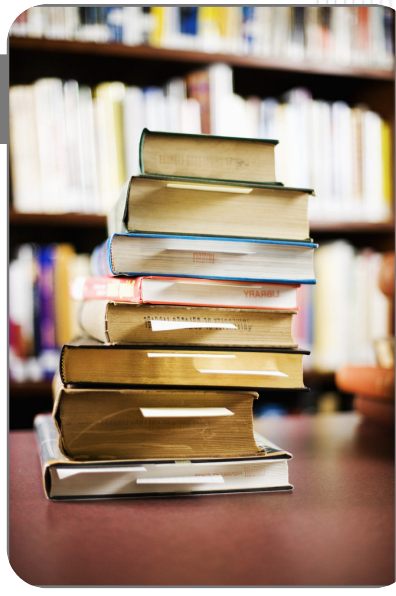
〈보도자료5〉

FM4U
안동MBC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 맵
문화행사
광고 · 문화커뮤니티
안동MBC소개
시청자마당
전체보기
뉴스 데이타베이스
현재위치 : 홈 > NEWS > 뉴스 데이타베이스
기간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안동MBC 영주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2년 연속 선정
목록
2014/04/27 10:40:15 작성자 : 김건엽
[안동MBC뉴스]영주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2년 연속 선정
영주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2년 연속 선정
0:00 / 0:31
경북 도립 영주 공공도서관이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END
영주 공공도서관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찾아서'를 주제로 오는 6월 수원 화성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됐거나
잠정목록에 오른 문화유산을 탐방합니다.
'길위의 인문학' 사업은 공공 도서관이
주축이 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연과
탐방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우 수 상

이제 들으면서 읽는다!
책소리서비스!

: 스마트폰 NFC기능 활용 서비스 사례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 김 태 민

현황 및 소개

인천광역시의 중구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율목도서관은 인천 최초의 도서관인 시립도서관이 1946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 된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의 지식·정보·문화의 보금자리로 정착해왔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여 시간의 역사성을 간직한 채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지향적, 친환경적 도서관으로 2011년 개관하였다.

연면적 1,464.80㎡(대지 4,016㎡)에 지상 2층, 2동의 규모로 216석의 좌석과 약 45,000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으며, 본관 1층은 100여종의 정기간행물실과 일반자료실로, 2층은 디지털자료실, 자유열람실,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인 소극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율목도서관의 대표 사업으로 스마트폰의 NFC기능을 활용하여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소리 서비스'와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생태체험 프로그램 '율목 팜 스테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야간인문학특강 '비움+채움'이 있으며, 정보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순회문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율목도서관은 "소통, 배려, 교감하는 도서관"을 테마로 한다.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하나의 공간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며, 도서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배려의 기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정보의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교감하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우수사례 개요

“이제 들으면서, 읽는다!”『책소리 서비스』

‘책 읽어주기’, ‘책을 듣기’의 중요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이나 독일,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은 부모가 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근거는 ‘책 읽어주기’ 가 언어와 책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어휘력 향상과 언어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이들의 언어능력 향상과 유아기 독서습관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책 읽어주기’는 바쁜 일상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현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좀 더 편하고, 효과적인 ‘책 읽어주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의 약 66.4%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요구와 더불어 ‘책 읽어주기’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까지 대두하게 되었다.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은 도서관에서도 인지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적, 경제적, 물적, 시간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율목도서관에서는 기존 모바일 서비스에 NFC Reader 기능을 추가하고, 출판사의 오디오북 DB와 무선연결을 통해 스마트폰의 스피커로 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책소리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책소리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전용 자료실을 구축하고 각 종 도서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였으며, 아웃리치 서비스로 순회문고와 더불어 찾아가는 책소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활성화 사업의 성과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자연스러운 도서관의 홍보가 되었으며, 많은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와의 연계로

인해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과 더불어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많아졌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에도 활용되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가 변하고, 이에 맞춰 도서관 서비스의 형태도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서비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이에 본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계획 중인 도서관에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많은 도서관에 책소리 자료실이 구축되어 "들으면서 읽는 독서"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독서습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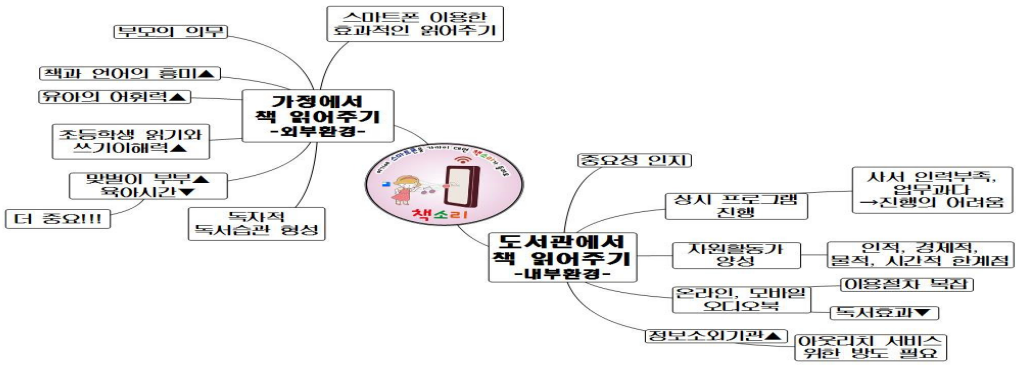
Ⅰ 서 론

1. 책소리 서비스의 필요성

1) 외부환경

‘책 읽어주기’, ‘책을 듣기’의 중요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이나 독일,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부모가 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최근 버클리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장 데이비드 피어슨은 ‘책 읽어주기, 책의 내용 듣기’가 언어와 책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다.[1] ‘책 읽어주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민정(1994)은 이야기책의 듣기가 유아의 어휘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증명했고, 송은경과 이성은(2006)은 소리 내어 읽어주기에 의한 활동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언어이해력, 즉 듣기와 읽기이해력에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과거 박미리(1992), 현은자(1990) 등이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동의 언어적 능력 향상과 독자적 독서습관을 기르는데 좋은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였다.

〈그림 1〉 책소리 서비스의 필요성 내 · 외부 환경



1) 김유엘, “학교란 무엇인가 시즌1: 책 읽기, 생각을 열다(7부)”「EBS」 2010.11.24.

이렇게 아이들의 언어능력 향상과 유아기 독서습관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책 읽어주기'는 바쁜 일상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현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좀 더 편하고, 효과적인 '책 읽어주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의 약 66.4%[2]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요구와 더불어 '책 읽어주기'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까지 대두하게 되었다.

2) 내부환경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은 도서관에서도 인지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도서관 상시 프로그램으로 사서가 책을 읽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이 많이 있으며, 특히, 북스타트 프로그램[3]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도서관에서 자원활동가를 양성하여 부족한 사서 인력을 대신해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동화구연, 독서지도사 등 독서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이나 동아리를 모집하여 재능기부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서관도 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구입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도 많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가 책을 읽어 주는 경우 도서관의 사서가 부족한 도서관은 상시 서비스의 어려움과 더불어 업무의 과중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자원 활동가를 양성하여 서비스할 경우 인적, 경제적, 물적, 시간적 자원의 한계가 있다. 동아리 및 재능기부자의 도움을 받더라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과 모바일 오디오북의 경우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책을 보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책을 보면서 읽는 것보다 독서효과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의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원하는 정보소외기관은 많아지고 있지만 이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2) 윤상호, "국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92%, 애플 7%...나머지는 1%는?"「디지털데일리」, 2013. 10. 16.
3) 그림책을 매개로 아가와 부모가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통해서만 길러지는 소중한 인간적 능력들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북스타트 코리아 2014.04.20. 인용]

없기에 원활한 '책 읽어주기' 아웃리치 서비스[4]를 위한 방안도 필요해졌다.

2. 사업의 목표

앞서 언급한 내·외부적 환경을 고려하여 율목도서관에서는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하여 책을 들으면서 읽을 수 있는 '책소리 서비스'를 고안하고, 별도의 자료실을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였다.

본 "책소리 서비스'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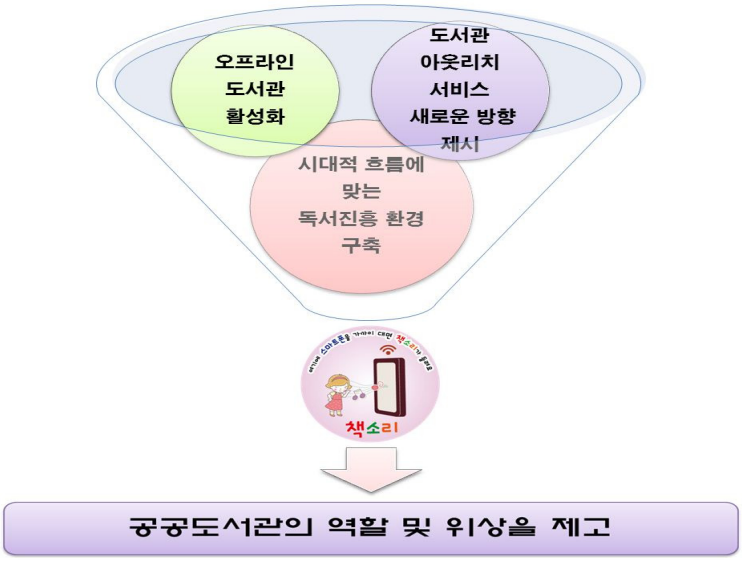
첫째,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독서환경을 개선한다.

둘째, 기존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도서관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셋째, 공공도서관 아웃리치 서비스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의 목표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2〉 사업 목표의 도식화



4) 서비스 권역 내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미치고 있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제3판 인용]

Ⅱ 책소리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시스템의 구성

1) 스마트폰의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

NFC(Near Field Communication)란 무선태그(RFID) 기술 중 하나로 13.56M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비접촉식 통신 기술이다. 통신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 주목받는 차세대 근거리 통신 기술로 데이터 읽기와 쓰기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RFID 사용을 위해 필요했던 동글(리더)이 필요하지 않다. 블루투스 등 기존의 근거리 통신 기술과 비슷하지만 블루투스처럼 기기 간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5] 즉, 스마트폰의 NFC기능이란 기기의 설정 없이 10cm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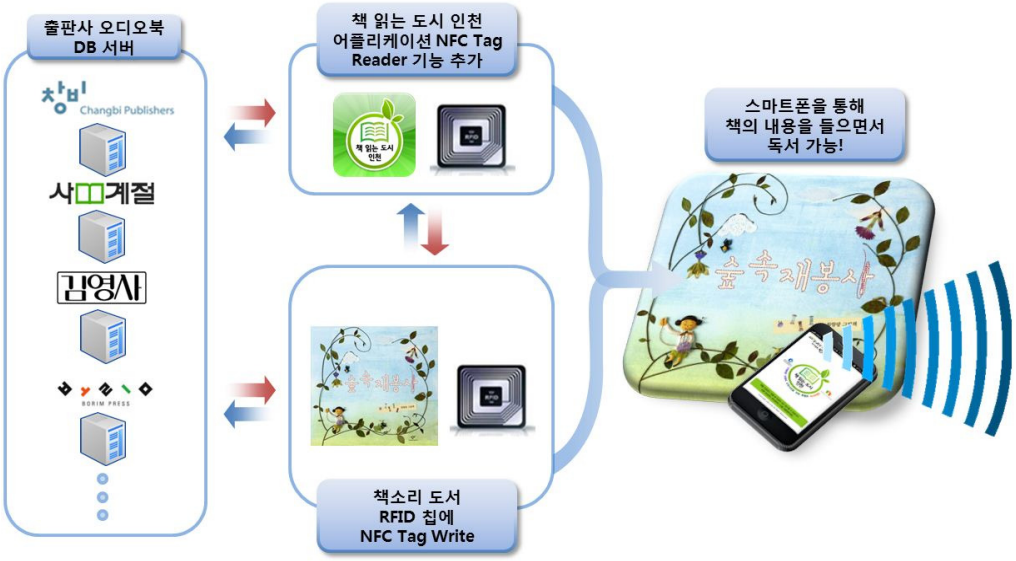
현재 NFC를 활용한 사례로는 결제, 티켓팅, 물품정보 제공, 교통카드, 출입통제 잠금장치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NFC기술에 관한 문헌정보학적 선행연구로 박재영 외(2011)는 NFC 스마트폰의 리더기능을 통해 학생증의 대체와 더불어 좌석예약, 대출반납까지 연계하는 도서관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NFC기술을 실질적인 도서관에 적용시킨 사례는 없지만, RFID칩 내에 NFC write 기능이 있기 때문에 RFID시스템이 구축된 도서관의 경우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NFC [네이버 지식백과 2014.04.20.]

〈그림 3〉 NFC기술의 활용 사례[6)]

2) 책소리 서비스의 설계

〈그림 4〉 책소리 서비스의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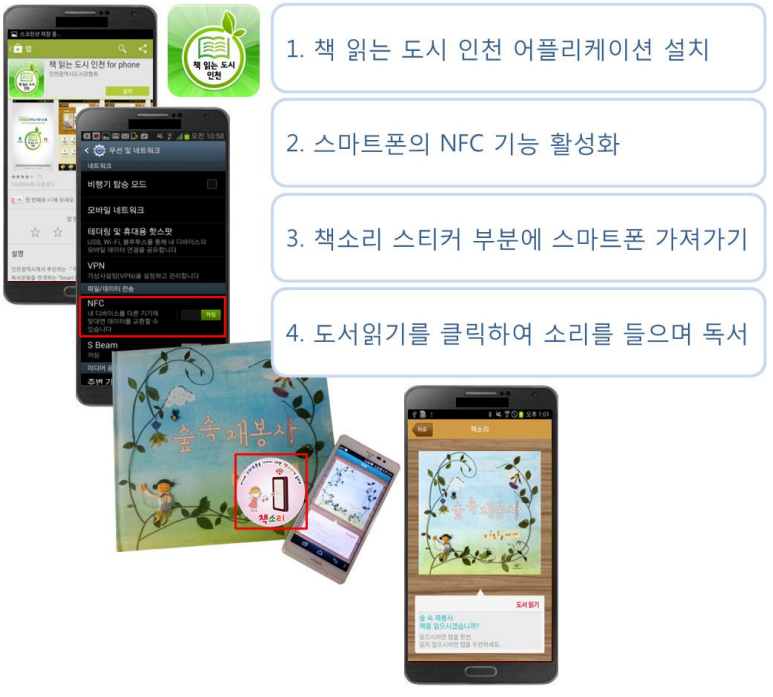
6) 출처: http://www.libramation.com/Pages/nfc.htm [2014.04.20.인용]

율목도서관의 책소리 서비스는 기존의 “책 읽는 도시 인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에 NFC Tag Reader 기능을 추가하여 책소리 도서의 RFID칩 내에 있는 NFC Tag의 Write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스마트폰이 NFC Tag을 읽으면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출판사의 해당 오디오북 DB서버와 연결되어 이용자를 인식하고 스마트폰의 스피커를 통해 스트리밍으로 소리가 출력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책소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책 읽는 도시 인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스마트폰의 NFC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도서의 책소리 스티커가 부착된 부분에 가져다 대면 바로 실행된다. 스마트폰의 음량조절을 통해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유선 스피커나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여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책소리 서비스에 대한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책소리 서비스 이용방법



2. 서비스의 구성

1) 관내 서비스

(1) 책소리 자료실의 구축(책소리 서비스 전용 자료실)

〈그림 6〉 책소리 자료실 구축 전후 사진

책소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어린이실의 2층을 책소리 전용 자료실로 구축하였다. 아이들의 눈에 맞춰 녹색과 주황, 그리고 나무의 원목을 조합하여 친근한 이미지를 주도록 디자인하였으며, 전시서가를 제작하여 도서의 옆면이 아니라 표지 이미지를 통해 책소리 도서가 눈에 띄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부스를 꾸며 놓았으며, 서가 기둥사이에 눈이 편안한 조명을 설치한 열람공간을 제작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책소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선인터넷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Wi-fi Zone을 구축하였다.

〈그림 7〉 책소리 자료실 세부사진

전시서가 및 열람공간

체험부스

현재 총 347권의 책소리 자료를 구성하고 있으며, 문학동네, 보림, 창비 등 국내 유명 출판사들이 참여하여 '감기걸린 날', '똥떡', '줄줄이 꿴 호랑이', '오소리네집 꽃밭' 등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장서로 구성하였다.

(2) 도서관 프로그램 활용

전문 성우들이 녹음을 하여 제작한 책소리 서비스는 유아에서 성인, 그리고 어르신이용자분에게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먼저, 어린이실 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 이용자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에 책소리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어린이 독서동아리 활동 시 필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 보따리 술술'이라는 주 3회 상시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아이들에게 책소리 자료를 들려주고 있으며, 월 2회 '빛 그림 극장' 프로그램을 통해 대형화면으로 '책 읽어주기'를 시행하고 있다.

북스타트 사업 시, 부모들에게 책소리 서비스를 체험하게 함으로서 효과성을 알리고, 이용방법, 추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동화구연 자원활동가 동아리에서는 책소리 서비스를 통해 효과적인 음성전달에 관한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8〉 도서관 프로그램 활용 사진

견학 및 이용자교육

이야기 보따리 술술

빛 그림 극장

북스타트 사업

2) 아웃리치 서비스

(1) 지역 내 도서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서비스

율목도서관은 2014년 대외협력사업으로 '도서관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천광역시 지역 내 도서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서비스 및 사업의 교류를 통해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 율목도서관은 지역 내 작은도서관과 초·중·고등학교의 도서관에 책소리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서 지역 도서관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꿈벗도서관 외 14개 크고, 작은 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해 오는 5월부터 책소리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추후 26개 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9〉 도서관 네트워크 회의 사진

책소리 서비스 설명

도서관 네트워크 간담회 사진

(2) 정보소외기관 순회문고 서비스

책소리 서비스는 개인이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전문 인력이 없이 독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많은 기관에서 순회문고를 신청하고 있다. 특히, 한글이 서툰 부모가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독서를 하기 힘든 장애인 기관, 그림책을 통한 정서의 함양이 필요한 노인기관 등의 정보소외기관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율목도서관은 인천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1개 기관에

〈그림 10〉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책소리 순회문고 서비스

순회문고 설치 사진

책소리 순회문고 이용 사진

각 50권씩 '책소리 순회문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인하대학교병원 소아병동, 중구노인복지관 등 5개 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책소리 순회문고 서비스'는 전용 서가와 책소리 스피커를 동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혜택 기관 자체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3) 찾아가는 책소리 서비스

율목도서관은 '찾아가는 책소리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정보소외계층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책소리 서비스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돈보스꼬 지역아동센터 외 2개 기관에 '찾아가는 책소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5개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찾아가는 책소리 서비스'는 직접 사서가 방문을 하여 책소리 서비스를 활용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는 장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림 11〉 찾아가는 책소리 서비스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돈보스꼬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특히, 책소리 서비스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 사서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기관의 인력만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며,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의 줄거리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이 직접 들으면서 동화구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현재, 4월말까지 12회, 79명의 아이들이 '찾아가는 책소리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혜택기관 및 수혜자의 수가 많아질 전망이다.

Ⅲ 책소리 서비스의 추진성과

1.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도서관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추구

책소리 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의 NFC기능을 활용한 오프라인 자료실 오디오북 서비스여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그 성과로 보도자료가 미디어다음 외 15개 주요 언론사의 노출이 있었고, 라디오 경인방송 외 2회, TV방송 티브로드 외 1회가 방영되어 도서관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

〈그림 12〉 책소리 서비스 언론보도

지역네트워크

인천시 율목도서관 '책소리 자료실' 운영

데스크승인 2014.02.26 13:41:16 정두리 기자 | openwelcom@naver.com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가 운영하는 율목도서관은 NFC기능을 활용해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인 '책소리 자료실'을 운영한다.

책소리 자료실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자도서관시스템인 '책 읽는 도시 인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NFC 활용 도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해당 도서를 읽어주는 체계로 온라인 도서관과 오프라인 도서관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다.

율목도서관 어린이실 2층에 위치한 책소리 자료실에는 약 150종(300권)의 어린이 및 유아도서에 대해 책소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필요시 대출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책소리 서비스 제공에는 창비·보림·문학동네 등 약 14개의 유명 출판사의 참여로 '감기걸린 날', '똥떡', '줄줄이 엮은 호랑이' 등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도서 위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협회에서는 책소리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에 율목도서관 이외 소속도서관(수봉·영종·꿈벗도서관)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율목도서관 홈페이지(www.ymlib.or.kr) 또는 전화(032-770-3808, 3811)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다음 보도자료

티브로드 TV방송

책소리 서비스의 1월~2월 시범운영 기간에 파·오손 도서를 정비하고, 미태깅 자료를 수정하였으며, 체험기기를 설치하여 완성된 모습의 책소리 자료실을 구축하였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여러 차례의 테스트 작업으로 인해 태깅수가 많았다. 초기 운영 시 147권의 적은 장서 수에도 불구하고, 약 41%(60권)가 대출되었으며, 태깅수도 300회를 넘었다. 그리고 장서의 수가 347권으로 늘어 난 후, 4월 20일 현재 약 44%(152권)이 대출되었고, 태깅수도 500회를 넘어섰다. 이처럼 책소리 자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많아짐과 동시에 율목

도서관을 찾는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책소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이 많아졌다. 앞으로도 책소리 서비스의 지속적인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이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 마케팅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서관의 모습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림 13〉 책소리 서비스 운영실적 및 자료실 이용사진

책소리 서비스 운영 실적

책소리 자료실 이용사진

2. 모바일 서비스 및 오프라인 도서관의 활성화 동시 기여

책소리 자료실의 구축을 통한 책소리 서비스의 시작은 오프라인 도서관의 활성화와 더불어 “책 읽는 도시 인천” 모바일 서비스의 활성화를 동시에 가져왔다.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에 책소리 서비스 이용을 위한 NFC Tag 기능을 추가함으로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책소리 서비스를 알릴 수 있었다. 또한 오프라인 도서관만 이용했었던 이용자에게 “책 읽는 도시 인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면서,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가 동시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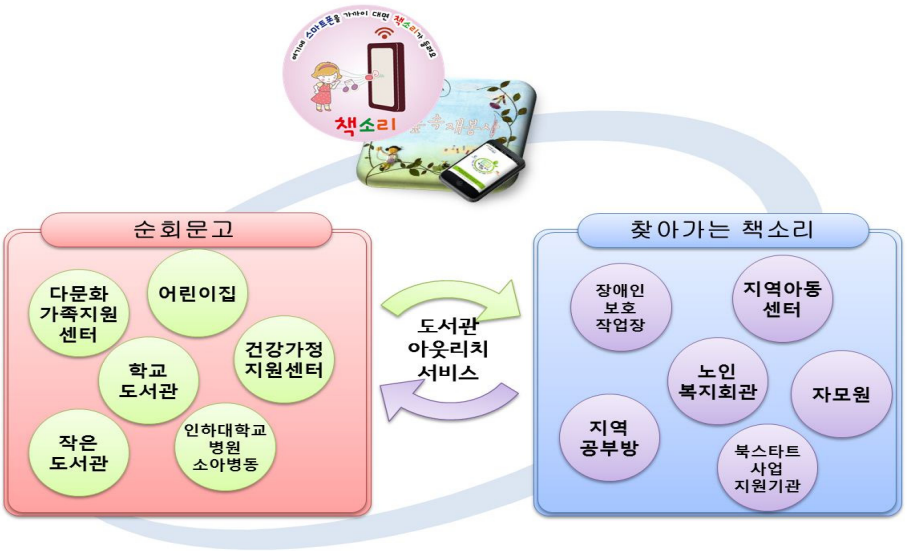
〈표 1〉 모바일 서비스와 책소리 서비스 이용 실적

구 분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수(명)	어린이실 이용자수(명)	책소리 프로그램 횟수(회)	책소리 프로그램 참여자수
2월	1,019	6,009	17	145
3월	1,024	6,840	25	275
4월 20일 현재	1,084	6,846	23	306
합 계	3,126	19,695	65	726

〈표 1〉을 보면 책소리 서비스가 운영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모바일 서비스와 오프라인 어린이실 이용자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가 있다. 뿐만 아니라, 책소리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동아리(도서관 탐험대), 상시 프로그램(이야기보따리 술술, 빛 그림 극장), 견학(이용자교육 및 견학) 등의 횟수와 참여자 수도 점차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책소리 서비스는 다른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지역사회의 활발한 아웃리치 서비스를 통한 도서관 위상 제고

〈그림 14〉 책소리 아웃리치 서비스



최근에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다문화 가정,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도서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많아졌다. 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도서관은 지역 내 독서진흥의 중심 기관으로서 활발한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책소리 서비스는 도서관의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많은 장점이 있다. 기존의 도서만을 장기 대출을 하는 식에 불과했던 순회문고 서비스를 프로그램과 접목시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장애인 보호 작업장, 병원 등 보다 다양한 기관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에 대한 인적, 시간적 한계가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책소리 서비스는 도서관 아웃리치 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Ⅳ 결론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책소리 서비스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오프라인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독서진흥을 위해 기획되었다. 스마트폰의 스피커를 통해 들으면서 책을 읽기 때문에 성장과정의 아이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책에 대한 이해력과 어휘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나 한글을 읽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책을 읽어 줌으로서 이용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책소리 자료실의 구축과 더불어 추진한 활성화 사업은 크게 3가지의 성과가 있다. 첫째,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서관의 홍보와 더불어 이용자의 만족도를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의 NFC기능을 활용한 책소리 서비스는 "들으면서 읽는다"의 모토를 가지고 기존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언론에 홍보가 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와 연계한 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과 오프라인 도서관

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였다. “책 읽는 도시 인천” 모바일 서비스에 NFC Reader 기능을 추가하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책소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도록 유도하였으며, 기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책소리 서비스에 대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모바일 서비스와 오프라인 도서관의 활성화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었다. 셋째, 지역사회 내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아웃리치 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협소한 영역의 도서관 아웃리치 서비스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 내 도서관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책소리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가치에 부합하여 지속적인 발전 방안도 필요하다. 먼저, 스마트폰의 NFC기능은 현재 Android OS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애플사의 iOS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책소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서가 현재 약 300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의 만족을 추구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개발과 더불어 도서관의 지속적인 요청을 통한 장서의 확보가 필요하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가 변하고, 이에 맞춰 도서관 서비스의 형태도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서비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이에 본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계획 중인 도서관에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많은 도서관에 책소리 자료실이 구축되어 “들으면서 읽는 독서”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독서습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남희, 유치원에서 매일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유아교육학과, 2010.

김민정, 이야기책 듣기가 유아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1994.

박미리, 책읽어주기 활동에서 집단크기가 유아의 언어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1992.

박재영, 김용강, 이정현, 최광훈, NFC 모바일 폰을 활용한 도서관 시스템, 한국정보관리학회, 38(2), 한국정보관리학회, pp. 43-45. 2011.

배영희,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이 초등학생의 독해력과 독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독서학과, 2013.

송요셉, NFC 기술의 활용 분야 - 국내외 사례와 전망, 한국정보기술학회지, 9(3), 한국정보기술학회, pp. 93-97. 2011.

송은경, 이성은, 소리내어 읽어주기 활동이 아동의 언어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10(1), pp. 21-36. 2006.

안인자, 박미영,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사례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한국문헌정보학회, pp. 279-301. 2011.

전준수, 유한종, NFC 기술동향, 한국전자파학회지, 24(4), 한국전자파학회, pp. 3-11. 2013.

정인미, 듣는 독서의 재미에 빠져 볼까, 진보시사종합지, 10. pp. 192-193. 2008.

최상기, 공공도서관 아웃리치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1), 한국문헌정보학회, pp. 311-339. 2012.

한수연, 조현양, 독서와 도서관 관련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이 초등학생의 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 23(4), 한국비블리아학회 pp. 347-368. 2012.

현은자, 부모의 반복된 책 읽어주기가 유아의 독자적 읽기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1(1), 아동학회, pp. 1-14. 1990.

【첨부】 책소리 서비스 인터뷰

1. 책소리 서비스 이용자 인터뷰

율목도서관 책소리 서비스 이용자 학부모 김○○ 회원

저는 책소리 서비스로 도서관에서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특히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이런 서비스도 다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아이한테 책을 많이 읽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아이가 흥미도 점점 잃어하고 집안일이나 다른 일 하다보면 점점 소홀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던 중 율목도서관 책소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늘 게임만 하던 스마트폰이 책을 읽어주니 아이 뿐만 아니라 저도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저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으니깐 요즘은 푹 빠져버린 거 같아요. 청소하고 설거지할 때 아이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빠져있는 걸보면 아 정말 도서관이 있어서 좋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책소리 서비스가 더 잘 되어서 많은 엄마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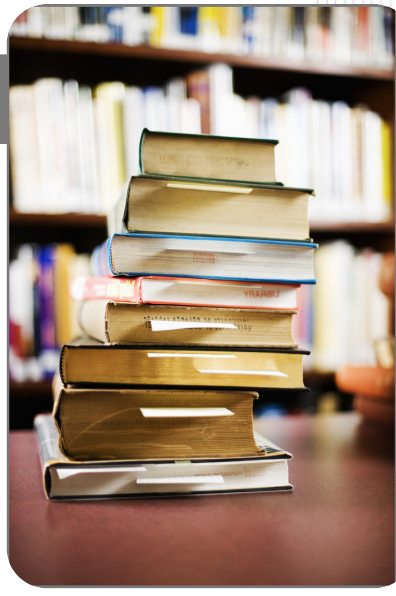
2. 찾아가는 책소리 서비스 수혜기관 인터뷰

찾아가는 책소리 서비스 수혜기관 옹기종기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최○○ 선생님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율목도서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목요일 3시에는 도서관 선생님이랑 책도 읽고, 재밌는 체험 놀이도 한다고 많이 좋아합니다. 사서 선생님께서 책을 직접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은 역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책소리에 정말 재미있어 하더라구요. 전문가분들이 읽어줘서 그런지 산만했던 아이들도 무척 흥미로워 합니다. 수업 잠깐 들어왔다가 저도 재미있어서 몇 권이나 같이 들었는지 몰라요.(웃음) 오디오북 형태라서 그런지 효과음이나 배경음악도 아이들이 책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더욱더 많이 해주셔서 저희 센터 뿐 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분께 많은 사랑받으실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옹기종기 지역아동센터로 많이 찾아와주세요.

국립중앙도서관장상 – 장 려 상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교류협력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 국민 독서 진흥을 위한 도서관기능(역할) 제고방안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 김 보 일 · 최 문 정

현황 및 소개

도서관 현황

○ 인력현황 : 정원 7명(사서 5명, 행정 1명, 기타 1명), 비정규직 4명(사서 4명)

○ 자료현황

- 도 서 : 유아 2,681권, 아동 5,363권, 일반 10,592권, 장애인 & 실버 630권, 다문화 607권 총 19,873권
- 비도서 : 556권
- 연속간행물 : 신문 18종, 잡지 78종

○ 시설현황

- 연면적 : 1,641.17㎡ (화곡문화복지센터 5층~6층)
- 열람석수 : 총 313석
- 5층 : 유아자료실 12석, 어린이자료실 50석, 장애인 및 실버자료실 : 23석, 문화강좌실 24석, 북카페 & 휴게실 33석, 수유실 5석
- 6층 : 종합자료실 68석, 멀티미디어실 16석, 휴게실 12석, 열람실 70석

도서관 소개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은 2013년 3월 29일 학교법인 세민학원이 강서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아 개관한 이래, 이용자 편의의 열린 도서관을 지향하며 RFID 시스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최적의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함께 성장하는 생활중심의 복합문화 허브 도서관을 구현하여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 지역주민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우수사례 개요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는 20개의 공립작은도서관과 23개의 사립작은도서관이 있다. 이에 강서구에서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구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거점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곰달래도서관은 화곡1동 꿈터작은도서관, 화곡2동 옹달샘작은도서관, 화곡8동 배다리작은도서관의 거점도서관으로써 작은도서관과 상호협력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교류협력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이라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컨설팅단은 2013년 6월부터 구성되어 1사서 1작은도서관을 매칭하고 지원체계로 전산사서를 두고 있으며, 컨설팅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작은도서관 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사서직 곰달래도서관장의 자문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문 컨설팅단은 협력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현황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며, 작은도서관 3곳의 정보 및 상황을 컨설팅단이 함께 공유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컨설팅 방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진과의 협의하여 실행되고 평가된다.

컨설팅단의 주요 활동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진 대상의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프로그램 지원의 '우리동네 도서관, 모두의 행복'을 시행하고, 영화상영 지원인 '오감(五感)두레 곰달래도서관', 과월호 잡지 지원,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방학독서교실 운영 등 다양한 상호 지원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곰달래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은 타 구립 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지원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다 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실제 강서구에서는 2014년부터 모범사례로 평가하여 1사서 1작은도서관을 강서구 전체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곰달래도서관의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작은도서관 협력사례를 제시하고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뿐만 아니라 제한된 자원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충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 하고자 한다.

Ⅰ 들어가며

최근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증폭과 함께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자치단체들은 주민의 평생교육 지원과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 등에서 주민의 호응과 지역 편의성이 매우 높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통합서비스의 의의와 효율을 증진하는 연계활성화 모델이 자치단체 도서관지원사업의 비중 있는 사업모델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함)에서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강서구는 20개의 공립작은도서관과 23개의 사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각 동마다 공립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집에서 걸어서 10분내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여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인 지식·정보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서구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진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각 도서관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강서구에서는 주민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도서관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담 전문 인력 배치 없이 자원봉사자로만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강서구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구민사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라는 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집합교육이라는 교육 방법의 특성상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강서구는 20개의

공립작은도서관과 7개의 구립도서관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상호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곰달래도서관은 거점도서관과 연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사서직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지역 내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작은도서관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및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컨설팅단 구성

1. 작은도서관 현황

강서구는 구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거점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곰달래도서관은 화곡1동 꿈터작은도서관, 화곡2동 옹달샘작은도서관, 화곡8동 배다리작은도서관의 거점도서관으로써 각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6월 도서관 자체의 '작은도서관 컨설팅단'을 구성하였다.

〈표 1〉 곰달래도서관 협력 작은도서관 현황

(2013년 6월 기준)

거점도서관	곰달래 도서관		
작은도서관명	꿈터 작은도서관	옹달샘 작은도서관	배다리 작은도서관
동 명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운영단체	새마을문고	곰달래봉사단	-
관 장	한창수	표옥련	김순동
봉사자수	21명	15명	10명

거점도서관	곰달래 도서관		
작은도서관명	꿈터 작은도서관	옹달샘 작은도서관	배다리 작은도서관
연면적	205㎡	232㎡	283㎡
보유장서	5,800권	8,000권	4,800권
회원수	595명	2,700명	350명
1일 이용자수	40명	20명	65명
시설개선 현황	완료	완료	진행예정

1) 화곡1동 꿈터작은도서관 현황 분석

꿈터작은도서관은 2013년 3월 26일 리모델링되어 새롭게 개관한 작은도서관으로 지역주민과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작은도서관에서 활동 중이었다.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자원봉사자 분들이 도서관을 운영 중인 만큼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의 도서관 업무에 대한 기초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점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노하우를 알려드리고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필요해 보였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관리의 노하우 지원도 필요했다.

2) 화곡2동 옹달샘작은도서관 현황 분석

옹달샘작은도서관은 오랫동안 활동하신 자원봉사자들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도서관을 운영 중인 도서관이며, 리모델링 공사완료 시점이 2013년 7월로 계획된 작은도서관이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도서를 등록할 책과 폐기할 책으로 구분하고 소장도서를 목록화 하는 작업이 시급했으며, 리모델링 사업 시 도서관에 맞는 공간구성 컨설팅 및 수서업무 지원이 필요해 보였다. 또한 개관식이 얼마 남

지 않아 개관식 준비에 대한 지원도 시급했다.

그리고 장서 수와 회원 수에 비하여 이용자 수가 적어 도서관 홍보방안의 모색과 함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했다. 특히나 작은 도서관 관장님께서 기존 자원봉사자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새로운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걱정이 크셨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방안 모색과 함께 개관 이후 작은도서관 관리와 운영이 잘 되도록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의 도서관 업무 기초교육도 필요했다.

3) 화곡8동 배다리작은도서관 현황 분석

배다리작은도서관은 거점도서관인 곰달래도서관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며 리모델링 공사가 2014년 초로 제일 늦게 계획된 곳이다.

그래서 화곡2동 옹달샘작은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도서를 등록할 책과 폐기할 책으로 구분하고 소장도서를 목록화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추후 리모델링 사업 시 도서관에 맞는 공간구성에 대한 컨설팅 및 이용자층에 맞는 장서구성을 위한 수서 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곳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연세가 있으시며 다른 작은도서관과는 다르게 자원봉사 단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더 많은 자원봉사자 관리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교육이 필요해 보였다.

2.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컨설팅단 구성

곰달래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을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1사서 1작은도서관을 매칭하여 작은도서관 컨설팅단을 구성하였으며, 지원체계로 전산사서를 두고 곰달래도서관장의 자문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작은도서관 컨설팅단의 구성원은 사서 3명과 자문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의 〈표 2〉와 같이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1〉 곰달래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원 컨설팅단 구성도

※ 자문: 곰달래도서관 김보일 관장

〈표 2〉 작은도서관 컨설팅단 구성원의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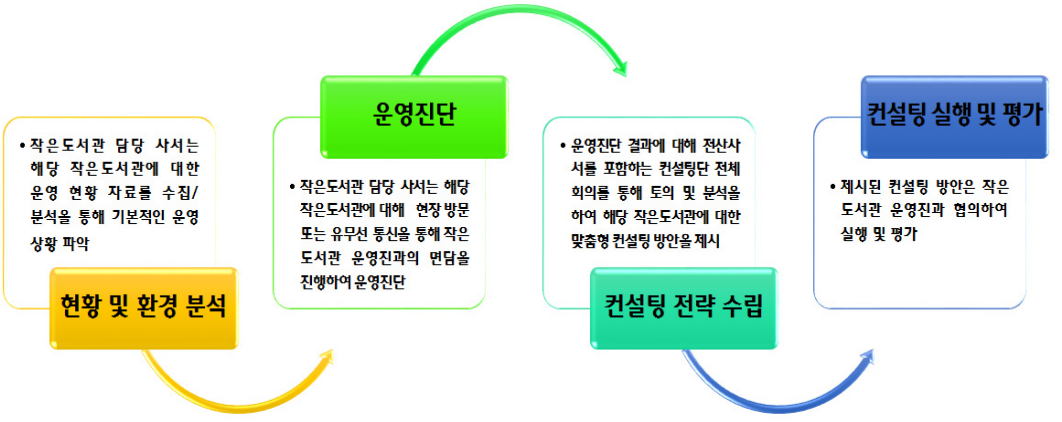
구 분	사서 자격	도서관 경력	개별 전문성 내용
사서 1	2급 정사서	5년	컨설팅단 총괄, 다양한 실무 노하우 함양,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재학
사서 2	2급 정사서	3년	도서관 문화행사(강좌) 및 홍보 담당, 문헌정보학 석사
사서 3	2급 정사서	3년	전산사서로 전산 분야 실무 지원, 문헌정보학 석사
자문	1급 정사서	8년	컨설팅단 자문, 작은도서관 관련 연구 수행, 문헌정보학 박사

이러한 전문 컨설팅단은 협력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현황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며, 작은도서관 3곳의 정보 및 상황을 컨설팅단이 함께 공유하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컨설팅 방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진과의 협의하여 실행되고 평가된다.

3.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컨설팅 프로세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컨성팅단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그림과 같은 일련의 컨설팅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2〉 곰달래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원 컨설팅 프로세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컨설팅은 4단계에 따라 진행된다. 각 단계별 컨설팅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현황 및 환경 분석' 단계에서 작은도서관의 일반 현황 및 환경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 2단계 '운영진단' 단계에서 작은도서관 담당 사서의 현장 방문 및 작은도서관 운영진과의 면담을 통해 운영진단 실시, 3단계 '컨설팅 전략 수립' 단계에서 운영진단 결과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담당 사서를 포함 컨설팅단 회의를 통해 해당 작은도서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전략 수립, 4단계 '컨설팅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 수립된 작은도서관 컨설팅 전략에 대해 작은도서관 운영진과의 협의를 통하여 실행 후 평가를 실시한다.

Ⅲ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컨설팅단 운영

1. 작은도서관 운영단 실무교육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전문성 부족으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실무에 취약하다. 이에 곰달래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원 컨설팅단은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을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서 관리 프로그램(ILUS) 사용 방법에서부터 회원가입 방법, 연체자 관리 컨설턴트까지 업무의 경중에 상관없이 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 사용에 취약한 자원봉사자들 뿐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의 기본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실무교육은 실제 컨설팅단이 담당하는 작은도서관에 수시로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컨설팅단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상세정보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상시 지원체계를 이룰 수 있는 기본 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작은도서관 운영단 실무교육 현장

〈표 3〉 도서관 운영단 실무교육 대표사례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도서관 운영단 실무 교육	도서 관리 프로그램 (ILUS) 점검 및 교육 (대출반납, 회원가입, 청구기호 수정 등)	화곡1동, 화곡8동
	도서구입 절차와 도서정리 방법 교육 (납품확인에서 배가까지)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노하우 전수	화곡1동, 화곡8동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 교육 (책두레서비스)	화곡1동
	파손도서 보수 용품 지원 및 보수방법 교육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연체자 관리 컨설턴트	화곡1동

2. 우리 동네 도서관, 모두의 행복

곰달래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이용자층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동네 도서관, 모두의 행복'이라는 타이틀로 분기별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컨설팅단이 각 작은도서관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화곡1동인 경우, 초등학생의 이용자가 많고 그에 따르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초등학생 대상의 '우리나라 역사 위인 알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화곡2동인 경우, 자원봉사자 분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새로운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방안 모색으로 학부모 대상의 '도란도란 토탈 공예교실'과 '스토리텔링과 책 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화곡8동인 경우 역시 화곡1동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의 이용자가 많아 '수동/전동 과학교실'이라는 초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작은도서관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고 각 작은도서관장님과의 회의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서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프로그램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2013년 10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세 번째 분기의 프로그램을 지원 중에 있다.

〈그림 4〉 작은도서관 지원 프로그램 운영

〈표 4〉 우리 동네 도서관, 모두의 행복

(2013년 10월~2014년 4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명	대 상	한회평균 참여자수	운영횟수
화곡1동 꿈터작은도서관	우리나라 역사위인 알기	초등학생 1-3학년	12명	20회
화곡2동 옹달샘작은도서관	도란도란 토탈 공예교실, 스토리텔링과 책 놀이	학부모	12명	24회
화곡8동 배다리작은도서관	창의력 쑥쑥 레고닥터	초등학생 4-6학년	9명	24회

3. 오감(五感)두레 곰달래도서관

거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영화 상영을 연계한 '오감(五感)두레 곰달래도서관' 프로그램은 한 달을 주기로 첫째 주는 화곡1동, 둘째 주는 화곡2동, 셋째 주는 화곡8동, 넷째 주는 거점도서관인 곰달래도서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이다.

작은도서관과 거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각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서로 근접해 있는 도서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특히 거점도서관

을 이용 중인 이용자들이 작은도서관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곰달래도서관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DVD목록을 작은도서관과 공유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에서 상영을 원하는 희망목록을 받아 '오감(五感)두레 곰달래도서관' 공동 홍보물을 제작하여 월마다 작은도서관에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 상영을 위해 필요한 DVD는 물론 DVD를 재생할 수 있는 노트북, 빔 프로젝터, 롤스트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5〉 작은도서관 지원 영화 상영 운영

〈표 5〉 오감(五感)두레 곰달래도서관

(2013년 9월~2014년 4월)

구 분	도서관	일 시	한회평균 참여자수	운영횟수
오감두레 곰달래도서관	화곡1동 꿈터작은도서관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오후7시	24명	8회
	화곡2동 옹달샘작은도서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오전10시	22명	7회
	화곡8동 배다리작은도서관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오전10시30분	13명	6회
	곰달래도서관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오후6시	30명	8회

4. 과월호 잡지 지원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운영비가 매우 적어 잡지 정기구독이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곰달래도서관은 도서관에서 구독중인 78종의 잡지 중 비교적 신속성이 덜하며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잡지를 2013년 10월부터 작은도서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과월호 잡지 지원으로 작은도서관 이용자들도 잡지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곰달래도서관은 소유하고 있던 잡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2013년에는 6종씩 지원하던 것을 올해 2014년 3월부터는 10종으로 확대하여 작은도서관에 지원중이다.

〈그림 6〉 작은도서관 과월호 잡지 지원

〈표 6〉 과월호 잡지지원

구 분	도서관	잡지명(2014년 기준)	2013년 지원종수	2014년 지원종수	지원횟수
과월호 잡지지원	화곡1동 꿈터작은도서관	내셔널지오그래픽 외	6종	10종	7회
	화곡2동 옹달샘작은도서관	개똥이네 놀이터 외	6종	10종	7회
	화곡8동 배다리작은도서관	과학동아 외	6종	10종	7회

5.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방학독서교실 운영

곰달래도서관은 방학 때 마다 실시되는 '독서교실'을 기획시점부터 3곳의 작은도서관과 함께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 한다.

2013년 7월에는 '걱정인형과 여름나기'라는 주제로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했으며, 2014년 1월에는 '꿈이 자라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겨울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여름독서교실과 겨울독서교실은 각 4일간 진행되었으며 거점도서관과 3개의 작은도서관을 하루씩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도서관별로 3~4명씩의 학생들을 나누어서 모집하여 총1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작은도서관 3곳이 모두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을 나누어서 모집하고 각 도서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다.

각 도서관의 친구들이 함께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른 도서관을 함께 방문한다는 것은 지역 내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실제, 프로그램 진행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러 도서관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가 참여 학생의 78.6%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7〉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여름 · 겨울독서교실

〈표 7〉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겨울독서교실 일정

일 차	활동내용	장 소	진 행
1일차	1.오리엔테이션 2.자기소개 및 조편성	곰달래도서관	곰달래도서관 사서
	1. 직업 적성 진단 테스트 2. 자신의 꿈 발표하기	꿈터작은도서관	곰달래도서관 사서, 작은도서관 관계자
2일차	직업인과 만남(의사, 간호사, 소방관)	옹달샘작은도서관	곰달래도서관 사서, 작은도서관 관계자
	직업 체험(사서)		
3일차	이색 직업 찾아보기(조별활동) 구인광고 포스터만들기(조별활동)	배다리작은도서관	곰달래도서관 사서, 작은도서관 관계자
4일차	20년 후 나의 일기 또는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기	곰달래도서관	곰달래도서관사서
	설문지작성 및 수료식		

6. 기타 지원(외부공보사업, 도서관리 프로그램 교체 등)

이 밖에도 곰달래도서관 컨설팅단은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공모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공모 신청방법, 공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작은도서관에서 이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였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학나눔 사업지원반'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외지역·계층 우수무학도서 보급사업 신청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160종의 우수 문학도서를 보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리고 행복한도서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요 도서관문화학교' 사업을 작은도서관과 연계하여 신청함으로서 프로그램 전문 강사가 작은도서관에 파견되어 책·독서 관련 프로그램이 작은도서관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국회전자도서관 원문검색 시스템 설치와 원화전시 신청 보조, 도서관리 프로그램 교체로 인한 ILUS 프로그램 설치 등의 지원도 작은도서관의 요구가 발생했을 시 바로 지원할 수 있었다.

이것은 컨설팅단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서도 부담 없이 자관 담당 사서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으며, 그 만큼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가 거점도서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도서관을 열심히 운영하고자하는 열의도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곰달래도서관에서 전문능력을 갖춘 재능기부 봉사자를 양성하여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Ⅳ 성과 및 기대효과

1. 작은도서관 방문교육을 통한 운영의 전문화

작은도서관은 규모면에서 일반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형태일 뿐 기본적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의 한 종류이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강서구의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로만 구성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강서구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구민사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라는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집합교육이라는 교육 방법의 특성상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곰달래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자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교육의 효과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소규모 단위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운영지원 컨설팅단을 통해 직접 해당 작은도서관을 방문하여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의 내용은 작은도서관 재개관 컨설팅, 소장 도서 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특히, 최근 구립도서관과의 도서관리 프로그램 통합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자들이 신규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부터 사용자 교육까지 1대 1과 반복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인 배경지식이 부족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방문교육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배양하게 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협력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강서구는 2013년부터 기존의 주민문고를 리모델링을 통해 공립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여 재개관하는 것과 함께 거점도서관인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매칭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강서구의 작은도서관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공을 하였으며, 거점도서관 과의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운영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곰달래도서관은 거점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은 일방적인 지원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호 협력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협력하고 있다. 그 결과로 곰달래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체적인 협력프로그램으로 문화프로그램, 독서교실, 영화상영, 원화전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공동 진행하였다. 이러한 협력프로그램은 서비스 대상 및 강사 선정, 장소 협의, 홍보 전략 수립, 진행 상황 및 결과 공유 등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곰달래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실제적인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3.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작은도서관의 맞춤 · 전문적 컨설팅

곰달래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을 위해 1사서 1작은도서관 전담과 전체 지원인력인 전산사서로 구성된 '작은도서관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컨설팅단의 주요한 특징은 전담 사서가 해당 작은도서관을 현장 방문 또는 유무선 통신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진인 자원봉사자들과 상호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컨설팅단에 의한 작은도서관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개별 작은도서관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게 되었다.

① 작은도서관 담당 사서는 해당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운영 상황 파악
② 작은도서관 담당 사서는 해당 작은도서관에 대해 현장 방문 또는 유무선 통신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진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운영진단
③ 운영진단 결과에 대해 전산사서를 포함하는 컨설팅단 전체 회의를 통해 토의 및 분석을 하여 해당 작은도서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방안을 제시
④ 제시된 컨설팅 방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진과 협의하여 실행 및 평가

이러한 컨설팅단은 전체 2급 정사서 이상의 자격증 소지하고 1년 이상의 도서관 근무 경력을 가진 사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컨설팅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작은도서관 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사서직 관장의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곰달래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은 타 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지원보다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다.

4. 거점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협력

곰달래도서관은 지역 내 작은도서관과의 원활한 상호협력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인 협력을 위해 3개 작은도서관과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4년 4월 1일자로 운영지원 대상 도서관이 곰달래도서관으로 변경된 1개 작은도서관은 2014년 상반기 중으로 성호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거점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체결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거점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분기별 관장회의 진행 [프로그램 연계 지원 및 개발]
○ 전담 전문사서의 순회 방문 교육
○ 거점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서비스 협력체제 구축
○ 작은도서관 수서 및 운영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
○ 기타 지역주민의 도서관 서비스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발전 추진사업

따라서 거점도서관인 곰달래도서관과 지역 내 작은도서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운영지원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도서관서비스 제공 그리고 체계적인 상호협력 모형을 완성함으로써 지역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양 도서관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독서생활을 증진 시키고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문화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Ⅴ 나오며

현재 곰달래도서관이 소재한 강서구는 현재 7개 구립도서관과 20개 공립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개 작은도서관은 전부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운영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의 규모와 작은도서관과의 지역적 위치를 고려하여 많게는 4개 작은도서관 적게는 1개 작은도서관을 매칭 하여 상호간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상황에서 곰달래도서관은 4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교류협력을 위해 전문 사서 인력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곰달래도서관의 컨설팅단 운영은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뿐만 아니라 제한된 자원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충족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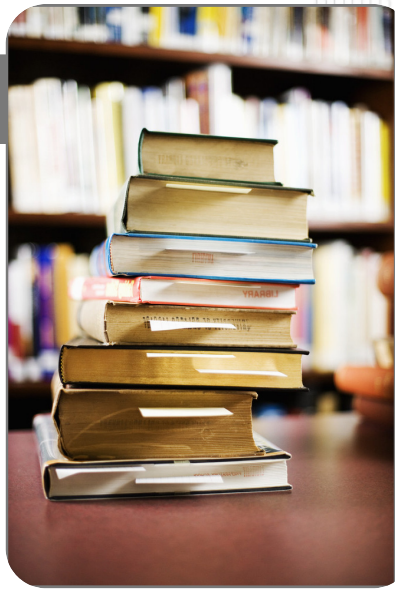
곰달래도서관의 컨설팅단 운영은 현재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인력과 자원 내에서 제안되는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협력사례이나, 전담인력 지원이 되지 않고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채용 및 순회사서 지원 등을 통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컨설팅단은 운영에 따른 미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재로써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진흥법」. [인용 2014. 4.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 2014. 4.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용 2014. 4. 11].
한윤옥 외,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연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2.

국립중앙도서관장상 – 장 려 상



영어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도서관 영어독서 활성화 방안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영어도서관

| 원미경 · 박혜영 · 성재운 · 최종환 · 김지현

현황 및 소개

부산영어도서관은 영어 노출에 대한 기회가 적은 유아, 학생 및 일반인 등 누구나 편히 영어독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영어전용 도서관으로 2009년 7월 1일에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형태로 개관하였다.

총 면적은 1,043㎡이며 열람실, 유아실, 프로그램개발실, 토론학습실, 멀티미디어실, 평가실, 다목적홀 등이 있다. 소장 도서는 문학, 사회과학, 예술 분야 등의 일반도서 38,869권과 참고도서 979권, 영어교과서 434권, 소그룹 수업용 교재 3,297권, 리소스북 1,038권 등 작년 말 현재 총 49,010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부산영어도서관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수준별·주제별로 분류된 영어자료를 갖추어 영어독서능력진단에 의한 맞춤형 영어독서를 지원하며 원어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어독서진흥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영어독서 생활화를 유도하고 있다. 'Reading with Phonics' 등 43개의 상설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학생 및 기관을 대상으로 견학, 체험프로그램과 영어독서 동기부여 프로그램 등 총 6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2013년 5월에는 국내 최초의 공공 영어전자도서관을 개관하여 영어전자책 923권, 오디오북 158권과 구텐베르크프로젝트 4만여 권을 이용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영어독서를 통한 영어능력 향상을 지향하는 부산영어도서관은 개관 초기에 비해 회원 수는 5배로, 이용자 수는 한 해 무려 20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시민이 찾아오는 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학교와 시민을 위하여 찾아가는 사랑받는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기주도적 영어독서를 통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우수사례 개요

작년도의 사교육비는 총액 18조 6천억 원으로 이 중에 영어가 6조 3,318억 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4월 9일 발표된 선행학습금지법으로 더욱 학교 밖의 영어 학습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영어독서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부수적으로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어디서 어떤 영어독서 자료를 수서해야 하는지, 적당한 영어독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는데 애로가 있다.

우리 도서관은 영어독서를 통한 영어능력 향상을 목표로 2009년 7월에 국내 최초의 공공 영어전문도서관으로 개관하여 그간 축적된 나름대로의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즉 영어독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시 영어독서 능력별 영어독서가 효율적이므로, Lexile별 자료의 분류 및 배열과 주 입구에서 부터 이용자가 쉽게 접하도록 Lexile 지수가 낮은 서가부터 높은 단계로 배치하는 등의 도서관 공간 구성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국내도서와는 다른 영어도서의 효율적인 수서 방안과 우리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60여개의 프로그램 중, 일반 도서관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유아, 학생 및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알찬 영어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여 일반 도서관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어독서 운영을 도모한다.

이 외에도 맞춤형 영어독서를 가능케 하는 영어독서능력진단시스템과 견학, 체험 프로그램,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여 일반 도서관에서 약간 수정하면 응용할 수 있는 많은 사례를 소개했다.

영어독서를 통한 양질의 영어교육을 지향하는 부산영어도서관은 앞으로도 자기주도적 영어독서와 영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일반 도서관과 협력하며 끊임없는 성찰과 개발을 통하여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한다.

Ⅰ 서 론

1. 필요성

2014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도의 사교육비 총액 18조 6천억 원 중 영어가 6조 3,318억 원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영어 학습은 학부모들의 절박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게다가 올해 4월 9일 발표된 선행학습금지법으로 초등 1, 2학년생의 경우 교재를 사용한 방과후학교 영어프로그램 학습이 금지되는 등 학교 밖의 영어 학습에 대해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내지 영어독서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영어 학습 열망을 고려하면 도서관에서 영어 관련 수서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영어독서 운영은 영어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의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언어 입력원으로서 학습자 스스로 언어를 신장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1)]

그러나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한글 도서 및 관련 독서 프로그램을 주로 취급하며 부수적으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어떤 영어책을 골라야 하며,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또한 적당한 영어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며 관련 정보를 찾고 있다.

이에 사교육비 부담 및 선행학습금지법 등으로 더욱 중요성이 높아진 도서관의 효율적인 영어독서를 위하여, 2009년 7월 부산영어도서관 개관이래 5년 간 쌓아온 영어 독서를 위한 수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서들의 경험과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및 파견교사를 중심으로 한 영어독서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함께 나누어 도서관의 영어독서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

1) 조경숙(2003). 초등 영어 읽기 쓰기 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2. 용어의 정의

1) 영어독서

도서관에 따라 영어독서 자료는 있으나 관련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영어독서 자료 및 이와 관련한 다양한 영어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2) 상설프로그램

매월 실시되는 월중프로그램과 연중 특정 시기에 실시되는 특별프로그램 둘 다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Ⅱ 영어독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효율적인 영어 장서 구성

1) 기본 방향

영어독서와 영어 평생 학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 수요 분석과 예측을 해야 한다. 아래 〈표 1〉을 보면 우리 도서관 주 이용 대상은 어린이 및 일반인들이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도서관을 방문할 시간이 적은 어린이와 중등학생 자녀를 위해 대출하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 대출 자료는 〈표 2〉와 같이 Lexile 지수 500L이하이며, 주제별로는 〈표 3〉과 같이 800(문학)이 가장 많이 대출된다. 따라서 일반 도서관에서도 Lexile 500이하의 문학자료를 주로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겨진다.

〈표 1〉 대상별 이용 현황

구 분		어린이 (유아, 초등)	청소년 (중・고등)	일반	외국인	계
2012년도	이용자수	73,869	21,106	86,840	5,623	187,438
	비율(%)	39.41	11.26	46.33	3.0	100
2013년도	이용자수	79,058	15,980	91,839	4,733	191,610
	비율(%)	41.26	8.34	47.93	2.47	100

〈표 2〉 Lexile 지수별 대출 현황

(2013.12.31.현재)

지수별	100L	200L	300L	400L	500L	600L	700L	800L	900L	1000L	계
자료수	24,190	27,305	28,755	24,850	22,079	10,897	8,849	5,933	3,627	4,580	161,065
비율 (%)	15.02	16.95	17.85	15.43	13.71	6.77	5.49	3.69	2.25	2.84	100

〈표 3〉 주제별 대출 현황

(2013.12.31.현재)

DDC 주제별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계
자료수	5,139	1,565	1,377	7,027	5,224	6,882	3,174	4,425	102,898	23,354	161,065
비율 (%)	3.19	0.97	0.86	4.36	3.24	4.27	1.97	2.75	63.89	14.50	100

2) 효율적인 수서 방안

도서관에서 영어도서를 수서할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영어도서는 국내도서와 달리 현품을 보고 내용을 확인하며 직접 수서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인터넷이나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수서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하고 믿을 만한 수서 참고 정보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효율적인 수서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도서관의 장서 확충 추진 방향이다.

▶ 장서 확충 추진 방향

○ 영어권 나라(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출판 자료로 장서 구축
○ 온라인 저널과 출판사 웹사이트, 온라인 서점을 통하여 유용한 신간 목록 작성
○ 수상작 리스트를 통하여 우수작가에 대한 정보 및 작품, 추천작품 수집·활용
○ 자료 형태는 도서, 비도서, 전자 자료를 기본으로 함
○ 이용자 및 자료실 희망도서를 우선 반영하되 이용률을 바탕으로 비율 조정
○ 신간자료를 우선 수서하고, 수상작 및 우수작품은 출판년도에 상관없이 수서
○ 영어전자도서관 구축으로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장서 확충

아래 〈표 4〉는 영어도서를 수서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참고자료 예시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첨부한다.

〈표 4〉 수서 시 참고 자료 예시 (부록 참조)

구 분	간략한 내용 소개
영어권 문학상 수상 도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외국 문학상 수상작 소개 http://www.nlcy.go.kr/section/book/literary.asp - 미국어린이도서관협회(ALSC) : 뉴베리상 및 칼데콧상 선정 및 수여 http://www.ala.org/ala/mgrps/divs/alsc/awardsgrants/bookmedia/caldecottmedal/caldecottmedal.cfm 등
독서관련기관 추천 도서	- Childeren's Choices / Teacher's Choices http://www.reading.org/Resources/Booklists/ChildrensChoices.aspx - Kids' Top 100 Books / Teacher's Top 100 Books for Children http://www.nea.org/grants/13154.htm 등
독서 및 도서 정보 제공 웹사이트	- The Horn Book(Bimonthly) : http://www.hbook.com/resources/books/default.asp - School Library Journal : http://www.schoollibraryjournal.com - Booklist Online : http://www.booklistonline.com 등
출판사 및 온라인 서점	- Amazon.com : http://www.amazon.com - ABC-CLIO : http://www.abc-clio.com - Neal Schuman Publisher, Inc. : http://www.alastore.org - Barns & Nobles : http://www.barnesandnoble.com 등
영어전자도서관	- Overdrive : https://www.overdrive.com/ https://marketplace.overdrive.com/Account/Login 등
수서 참고 도서	• 『Best books for boys : a resource for educators』 • 『Best Books for Children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 『1001 children's books』,『Popular series fiction for middle school

2. 유기적 환경 구성

여러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영어 읽기는 이해력, 어휘력 신장, 쓰기 능력과 문법적 지식향상, 듣기와 말하기 등 전반적인 언어능력발달에 도움이 된다(Krashen, 2004).

부산영어도서관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영어독서능력 수준별 읽기자료를 다양하게 갖추고 영어독서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독서능력별 영어독서를 운영하므로, 국내 여느 도서관과 약간 다른, 자료의 분류 및 배열, 프로그램 운영, 인력 운용,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영어전자도서관의 활용 등 영어독서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인 환경 구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자료 분류 및 배열

일반 도서관은 대개 KDC분류에 따르나 우리 도서관은 〈그림 1〉과 같이 Lexile[2] 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류 및 배열하여 이용자가 쉽게 책을 찾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 자료 분류

○ 1단계 : Lexile 지수에 따른 수준별 분류
○ 2단계 : DDC 22판에 의거한 주제별 분류로 요목까지 분류
○ 3단계 : 동일 주제 내에서 수입 순서에 따른 일련 번호 부여

▶ 자료 배열

○ Lexile 지수별→ DDC 주제분류별→ 수입번호순으로 서가에 배치함
○ Lexile 지수 BR 자료는 World for Kids(유아실)에 비치
○ Lexile 지수 100L~1000L까지는 도서관 중앙 서가에 낮은 지수부터 배열
○ 참고도서, 교과서, 리소스북, 코믹북은 북카페쪽 벽면 서가에 배열
○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코믹북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비치

2) Lexile : 미국의 Metametrics 사에서 약 20년간 리서치를 통하여 읽기능력수준을 지수화하여 나타낸 표준단위, 미국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4만 5천여권의 책과 학생들의 읽기능력도 Lexile지수로 표시됨.

〈그림 1〉 영어독서 자료의 배열

일반 도서관은 특별히 영어도서 서가를 따로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이용자가 책의 선택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색이 용이하도록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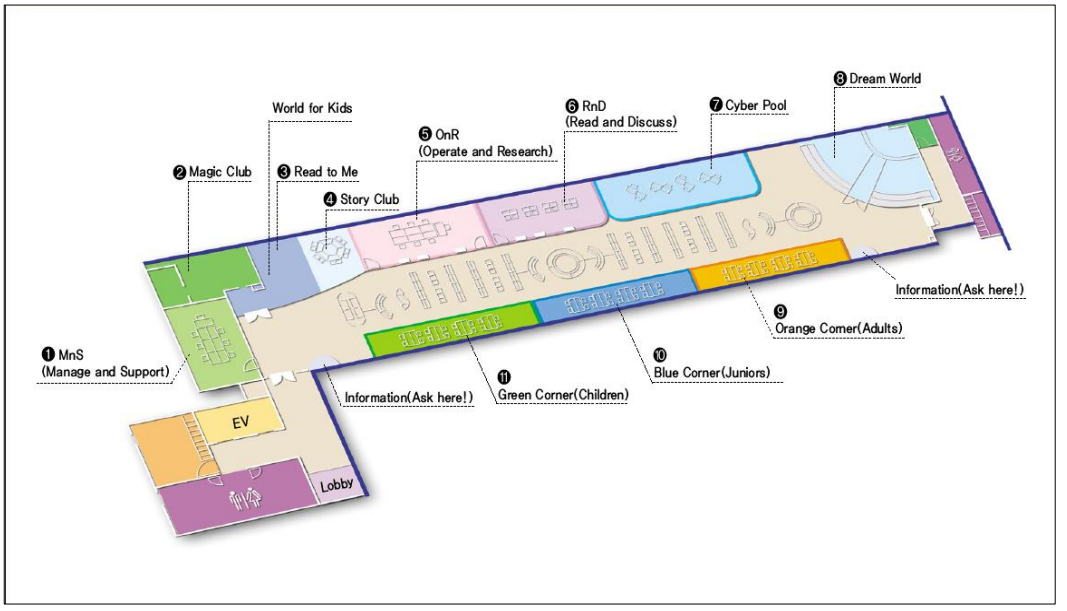
2) 공간의 배치

도서관에 들어오면 주눅 들지 않고 편안히 영어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읽기에 부담이 적은 Lexile 지수가 낮은 순에서 높은 BR-100-200-…1000 순으로 서가를 배치한다.

또한 영어는 국내도서보다 책의 선택에 시간이 걸리므로, 서가 사이에 스툴 및 소파를 설치하여 충분히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유아를 위해 온돌식 마루를 강의실, 독서실, 놀이실에 설치하였으며 유아실내에 화장실도 따로 만들었다. 내부 시설 배치도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내부 시설 배치도



3) 인력의 운용

일반도서보다 영어독서를 위한 영어도서의 수서, 정리 등은 훨씬 더 많은 노력 및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도서관은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필요 인원인 16명보다 적다. 따라서 원활한 영어독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1) 도서관 직원의 인력 운용

가급적 개인의 영어능력이 있는 직원을 뽑아야 한다. 또한 우리 도서관 조직이 기획팀, 프로그램팀, 운영팀 3개로 구분되나 실제로 팀을 떠나 모든 직원이 융통성 있게 수서는 물론 전반적인 도서관 업무에 서로 협조하여 부족한 일손을 메꾸고 있다.

(2) 자원봉사자 활용

다양한 영어독서 프로그램 운영, 서가 정리 등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일손도 덜고 영어도서관 홍보와 영어도서관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삼조가 된다.

▶ 일반인 자원봉사자

유아 및 초등 저학년에 책읽기 프로그램인 Fun Reading이나 서가자료 정리 등 아주 도움이 된다. 1회 4시간 활동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있다.

▶ 학생 자원봉사자

중등학생인 멘토가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인 멘티에게 책을 읽어주는 Reading Buddy 프로그램 운영이나 영어도서관 시설 및 자료 안내, 대출 안내, 서가 자료 정리 등에 상호 도움을 주고받으며, 1일 4시간 한도 내에서 봉사시간을 주어 격려하고 있다.

4) 영어전자도서관 구축 · 운영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바빠서 도서관에 올 여유가 없는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도서관은 인터넷이 되는 곳은 언제 어디서나 영어독서가 가능하도록 2013년 5월 30일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 영어전자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도서관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해외 우수 원서를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산영어도서관은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을 통해 스마트 교육 기반 구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표 1〉, 〈표 2〉와 같이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경제적이고 편리한 자료 이용으로 영어 독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영어전자도서관 운영 현황

○ 신간자료 확충 : 해외원서 전자책/오디오북 1,081 점 +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4만여 권
○ 부산여자중학교 등 정규 및 방과 후 수업, 독서동아리 활동 등 영어 공교육 지원
○ 인터넷을 통해 PC 및 상용 모바일기기 이용 지원
○ 뉴베리, 칼데콧상 수상작 등 우수 영어전자도서 지속적 확충
○ 영어전자자료 서비스 이용 활성화

〈표 5〉 영어전자도서관 이용 현황

구분	신규 회원 (전자도서관전용)	이용자수	페이지조회수	대출자수	대출자료수		
					전자도서관	구텐베르크	계
내용	1,434	23,392	128,897	2,678	4,340	301	4,641

〈표 6〉 매체별 이용 현황

구 분	PC(63.89%)	모바일(36.11%)	계(100%)
전자책 (75.53%)	2,239	1,266	3,505
오디오북 (17.98%)	533	302	835
구텐베르크프로젝트 (6.49%)	192	109	301
계(100%)	2,964	1,677	4,641

Ⅲ 영어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선행학습금지법, 영어 사교육비 경감 등의 영향으로 도서관을 통한 영어독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있다. 이를 활용한 영어독서는 단지 읽기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기를 통한 말하기, 듣기, 쓰기 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

독서는 습관이므로 어렸을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무턱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별로 수준별 단계를 두어야 효율적이다. 대상은 취학 전 만 4세 이상 어린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으로 구분하며, 아래 〈표 7〉과 같이 수준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표 7〉 대상에 따른 단계별 프로그램

<table>
<tr><th>대 상</th><th>단계별 프로그램</th><th>공 통</th></tr>
<tr><td>취학전</td><td>Reading with Phonics ⇧
Reading Starter I ⇧
Reading Starter II</td><td rowspan="2">Fun Reading
Reading with Family
Reading Buddy</td></tr>
<tr><td>초등 저학년 (1~2)</td><td>Reading with Phonics ⇧
Reading Starter I ⇧
Reading Starter II</td></tr>
<tr><td>초등 중학년 (3~4)</td><td>Step-up Reading I ⇧
Step-up Reading II ⇧
Topic Activity</td><td>Reading with Family</td></tr>
<tr><td>초등 고학년 (5~6)</td><td>Intensive Reading ⇧
ENIE</td><td>Reading with Family</td></tr>
<tr><td>중, 고등 학생</td><td>ENIE ⇧
Read & Write</td><td>Reading Buddy</td></tr>
<tr><td>일반 및 가족 회원</td><td>Cinema World ⇧
Reading with Family ⇧
Teacher's Reading Club</td><td>Reading with Family</td></tr>
</table>

1. 상설 프로그램

상설 프로그램은 월중 및 특별프로그램으로 총 43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월중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4~8회 참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가족단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별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사정에 맞추어 알맞은 시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학부모Storyteller교실, 가족영어독서신문 만들기 등이 있다.

일반 도서관에서도 상설 프로그램 중 Fun Reading이나, Reading Buddy처럼 학부모 및 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원어민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예시하고자 한다.

1) Reading Buddy(영어책 읽어주기 자원봉사)

영어 성적 전교 상위 10% 이내의 우수한 중·고등학생(멘토) 자원봉사자들을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유·초등학생 저학년(멘티)에게 영어책 함께 읽기를 통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 고취 및 영어독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그림 3〉과 같이 멘토 40명과 멘티 80명이 1:2로 조를 만들어 상·하반기 각 1회(4월~6월, 9월~11월) 12주 동안 매주 토, 일요일에 운영한다.

〈그림 3〉 활동모습

활동 1주일 전에 멘토는 멘티와 함께 다음 주 읽을 책을 미리 선정, 대출하여 선정된 도서를 미리 읽고 다음 주 활동에 참석하며 다음 〈표 8〉과 같이 활동한다.

〈표 8〉 Reading Buddy 활동 내용

시간배분	10분	30분	20분	10~30분
활동내용	읽기 전 활동	책 읽어주기	읽기 후 활동	활동 일지 및 참여소감문 작성

Reading Buddy 활동을 통해 멘티는 멘토에게서 영어독서 활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좋은 생활 자세까지 본받을 수 있고, 멘트는 쉬운 책을 읽어주며 영어기본 문형을 더욱 충실히 익힐 수 있으며 종료 후 24시간의 봉사활동이 인정되며 활동

내용이 생활기록부에도 등재된다. 해마다 멘트 및 멘 티에 선발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2) Fun Reading for kids(재미있는 영어책 읽어주기)

학부모(성인)중에 영어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뽑아 〈그림 4〉와 같이 유·초등생들에게 영어책을 읽어줌으로써 아이들이 영어독서에 흥미를 갖게 하고 월~금요일 오후 상시 운영으로 아동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영어도서관 활용을 유도한다.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Fun Reading for kids

▶ Before Reading

○ 자원봉사자와 아동이 인사한다.

○ 읽을 책의 표지를 보거나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며 관심을 모은다

▶ During Reading

○ 영어로 책을 읽고 그림 내용도 함께 이야기하여 그림과 문맥으로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아동이 해석을 요구하거나 이야기의 흐름상 중요한 부분 등을 영어와 한국어로 설명하여 아동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

▶ After Reading

○ 책을 다 읽고 아동과 함께 느낌을 공유하며, 책의 내용을 함께 상기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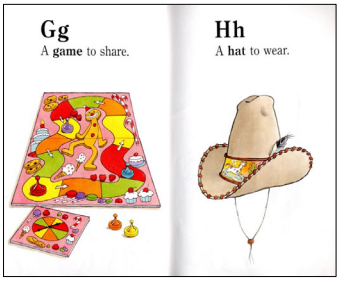
○ 쓰기 활동을 제외한 그림 그리기, 간단한 만들기, 퍼즐 맞추기, 영어단어 빙고게임 등 아동이 공부가 아닌 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독후활동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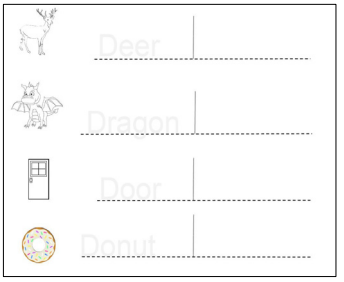
○ 수업의 마무리가 그리기, 만들기 등의 놀이로만 기억되지 않도록 책의 일부분을 교사와 함께 읽는다.

3) Reading with Phonics

Reading with Phonics는 〈그림 5〉와 같이 영어를 읽지 못하거나 읽기 어려워하는 만 4세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스토리를 통해 읽기에 필요한 소리와 문자 간에 존재하는 규칙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한다. 아이의 정서와 영어수준을 고려하여 Lexile 200 이하의 책으로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책을 고른다.

〈그림 5〉 Reading with Phonics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Before Reading

○ 읽어줄 책의 표지를 보면서 책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아이와 질문을 주고받으며 관심을 모은다.

○ 각 장면 이해를 위한 관계된 어휘를 그림과 함께 이야기로 들려주거나 동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읽기 전 가능한 많은 어휘와 표현에 대한 Input을 제공한다.

▶ During Reading

○ 교사가 큰 소리로 책을 읽어 주며, 중간 중간에 계속 질문을 주고받으며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 아이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을 주고받는다.

▶ After Reading

○ 책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읽은 책의 일부분을 다시 읽어준다.

○ 책을 다 읽은 후 아이들의 수준에 적합한 간단한 독후활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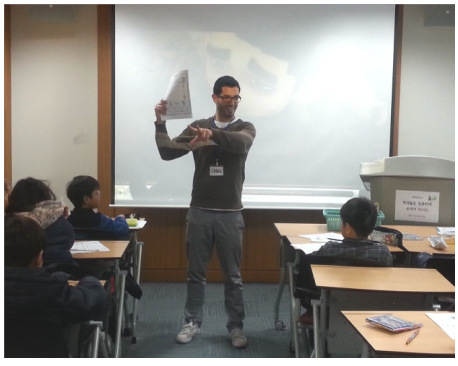
선정된 이야기책은 재미있는 동영상이나 노래와 함께 소개되어지며 문형들이 패턴이 강하고 반복이 많아, 학습자가 음가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기초 읽기 단계에 필요한 문형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된다.

4) Reading Starter / Step-up Reading/ Intensive Reading

Reading Starter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아직 영어를 접하지 않은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Step-up Reading은 영어를 시작했으나 문자언어 교육을 하지 않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Intensive Reading은 초등 고학년을 위해 영어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원어민 또는 자원봉사자가 먼저 책을 읽어주고 학생들이 따라 읽는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책을 통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한다.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Reading Starter



▶ Before Reading

○ 읽어줄 책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아이와 질문을 주고받으며 관심을 모은다.

○ 각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하며 읽기 전에 가능한 많은 어휘와 표현에 대한 Input을 제공한다.

▶ During Reading

○ 교사가 큰 소리로 책을 읽어준다.

○ 책을 읽어주는 사이 〈그림 6〉과 같이 질문을 계속 주고받으며 흥미를 유발한다.

○ 수준별로 교사가 한 문장을 읽고 난 다음 학생들이 따라 읽거나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학생은 혼자 큰 소리로 읽게 한다.

▶ After Reading

○ 책을 다 읽은 후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Retelling 활동을 한다.

○ 책에 읽고 난 후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why 관련 질문

(Why the main character want to be a good fried?)을 통해 말하기 기회를 제공한다.

○ 수준에 적합한 독후활동을 한다.

5) Topic Activity

초등학교 저학년은 통합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통합적 언어학습 방법으로 영어독서를 하게 한다.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 Before Reading

○ 선정된 주제를 학생들 개인적인 경험 및 일상생활과 연관하여 안내한다.

○ 주제에 관련된 기본 어휘 및 표현을 학습한다.

▶ During Reading

○ 교사가 선정한 주제 관련 도서를 읽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한다.

○ 학생이 읽기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양한 조작활동을 통하여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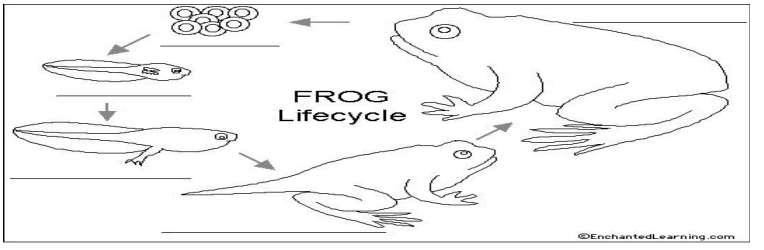
▶ After Reading

○ 다양한 독후활동(쓰기, 만들기, 그리기)등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표현한다.

○ 〈그림 7〉과 같이 자신이 완성한 과제를 발표한다.

〈그림 7〉 학습자료 예시

1. Let students orally explain the life cycle of frogs
2. Check students' summarizing the life cycle of frogs in their own book.



6) ENIE(English Newspaper In Education)

신문, 잡지에는 기사, 만화, 퀴즈, 광고 등 다양한 읽기 자료가 있으므로 영어 읽기의 폭을 넓혀주는데 유용하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동화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읽기자료를 접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Let's Read

○ 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의 습득을 위한 활동을 한다.

○ 핵심 어휘, 어려운 어휘에 대한 간단한 선행학습 활동을 한다.

▶ Let's Talk

○ 뉴스 칼럼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마인드맵 등의 다양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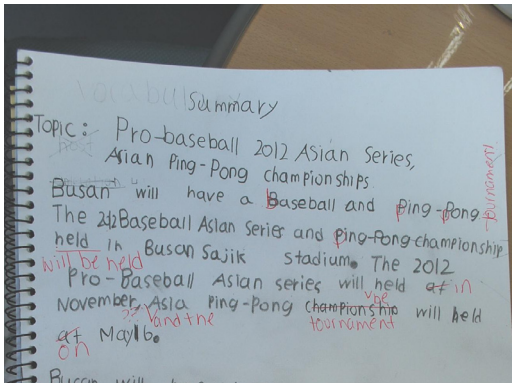
○ 자신의 생각을 서로 이야기한다.

▶ After Reading

○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다.

○ 나만의 이야기를 기사로 작성해 본다.

〈그림 8〉 ENIE 활동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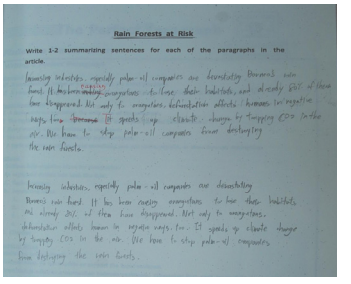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림 8〉과 같이 학생들은 주어진 주제와 관련된 기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쓰는 활동을 통하여 읽기와 쓰기 실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

7) Read & Write

Read and Write는 〈그림 9〉와 같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책을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글을 쓰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그림 9〉 Read and Write 활동 모습



▶ Before Writing

○ 읽어줄 책의 표지를 보면서 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아이와 질문을 주고받으며 관심을 모은다.

○ 각 장면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로 들려주면서 읽기 전 가능한 많은 어휘와 표현에 대한 Input을 제공한다.

○ 교사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기본 어휘와 문장을 학습한다.

▶ During Writing

○ 쓰기 활동 전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 쓰기 활동에 필요한 기본 어휘와 문장을 제시하고 자신의 쓰기에 적합한 표현을 선택하여 쓰도록 한다.

○ 다양한 형태의 쓰기를 제시한 후 학생들이 쓰고 싶은 형태의 글을 쓰게 한다.

○ 기본적인 Guided writing에서 점차 Independent writing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After Writing

○ 자신이 쓴 글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들으면서 서로 비교한다.

○ 각자의 글에서 좋은 점에 대하여 말한다(긍정적 feedback).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쓰기를 다양한 형태로 해 봄으로써 쉽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되어 독서를 기반으로 자기주도적인 쓰기의 향상이 이뤄지게 된다.

8) Cinema World / Kids Animation

가족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든 연령층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여 감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되는 영화는 영어도서를 바탕으로 영화화 된 것을 고르며 이를 통하여 책과 영화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었는지 비교해 볼 수도 있다.

▶ Before Watching

○ 이야기에 관한 배경지식 및 감독 주인공, 배경 등을 〈표 9〉와 같이 소개한다.

○ 영화와 관련된 도서를 소개하여 영화감상 후 독서활동으로 연계한다.

○ 영화감상 관점을 미리 제시하고 영화를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During Watching

○ 내용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감상한다.

▶ After Watching

○ 질문에 대한 퀴즈에 답하기

○ 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말하기 및 영화 내용에 대한 다양한 활동하기

〈표 9〉 6월 영화감상 계획 예시

순서	시기	영화명	감독	줄거리
1	6월 1, 2주	James and the Giant Peach	Henry Selick	James' happy life at the English seaside is rudely ended when his parents are killed by a rhinoceros and he goes to live with his two horrid aunts. Daringly saving the life of a spider he comes into possession of magic boiled crocodile tongues, after which an enormous peach starts to grow in the garden. Venturing inside he meets not only the spider but a number of new friends including a ladybug and a centipede who help him with his plan to try and get to N.York.

9) 학부모 영어 Storyteller 교실 / 명사초청 강연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산영어도서관 회원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림 10〉과 같이 대학교수나 그 외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연 4회, 월~금요일 동안 매일 3시간, 총 15시간을 수업한다. 자녀들이 유아기부터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영어독서습관을 형성하며 동시에 영어독서기반의 저변도 확대된다.

〈그림 10〉 학부모 스토리텔러 교실 활동 모습

강의 내용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강의 시간표

	강 좌 명	시간	주 요 내 용
1	영어도서관 활용방안	1	• 부산영어도서관 소개 • 프로그램 활용 방안 • 최신영어교육동향
	초등영어교육 안내	2	• 초등학교교육과 연계한 영어동화 Storytelling
2	Storytelling의 이론과 기본 방향	3	• Storytelling이란
3	Storytelling의 실제(1)	3	• 실제 스토리텔링 시연 및 실습
4	Storytelling의 실제(2)	3	• 실제 스토리텔링 시연 및 실습
5	외국의 Storytelling	3	• 캐나다 및 미국의 사례 • 내 아이에게 알맞은 영어책 선택 및 스토리텔링 지도법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부모 스스로 자녀 영어교육지도로 영어 사교육비가 절감되며 자녀의 영어독서습관을 형성시킴으로써 자녀의 통합적 영어습득능력 신장을 도모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부모끼리 자연적 동아리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상호발전과 지속적인 영어도서관 지원군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학부모 사이에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2. 영어독서능력 진단 및 평가 프로그램(SRI/S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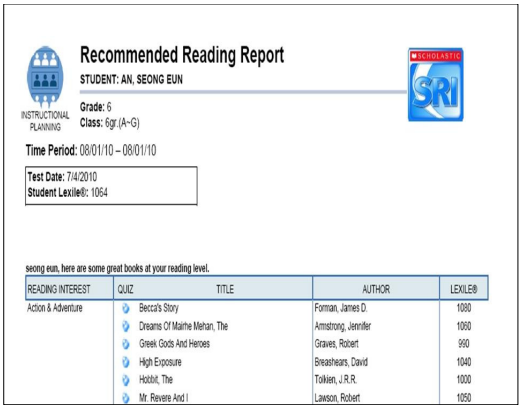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 학교(K-12 : 유치원~고등학교)와 공립도서관에 보급된, 책을 읽기 전 독서 수준을 측정해주는 SRI(Scholastic Reading Inventory) Test와 읽은 후의 이해도를 평가받는 SRC(Scholastic Reading Counts) Test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표 11〉과 같이 체계적인 영어도서 읽기와 더불어 도전감과 성취감을 유도하고 있다.

〈표 11〉 독서 활동 운영 단계

진 단	⇒	독 서	⇒	평 가	⇒	독후감 작성
SRI, Five Finger Test		수준별 독서활동		SRC		Book Report

진행 방법은 우리 도서관 SRI/SRC Room을 방문하여 약 20~30분간의 4지 선다형 테스트를 하고나면 바로 학생의 읽기능력 수준과 Lexile 지수, 그에 맞는 추천도서목록 Report가 〈그림 11〉, 〈그림 12〉와 같이 출력된다.

〈그림 11〉 SRI Report



Recommended Reading Report

STUDENT: AN, SEONG EUN

Grade: 6
Class: 6gr.(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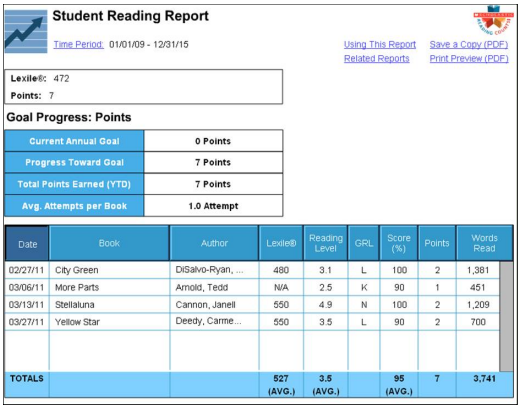
Time Period: 08/01/10 – 08/01/10

Test Date: 7/4/2010
Student Lexile®: 1064

seong eun, here are some great books at your reading level.

READING INTEREST	QUIZ	TITLE	AUTHOR	LEXILE®
Action & Adventure		Becca's Story	Forman, James D.	1080
		Dreams Of Mairhe Mehan, The	Armstrong, Jennifer	1060
		Greek Gods And Heroes	Graves, Robert	990
		High Exposure	Breasheers, David	1040
		Hobbit, The	Tolkien, J.R.R.	1000
		Mr. Revere And I	Lawson, Robert	1050

〈그림 12〉 SRC Report



Student Reading Report

Time Period: 01/01/09 - 12/31/15

Using This Report | Related Reports | Save a Copy (PDF) | Print Preview (PDF)

Lexile®: 472
Points: 7

Goal Progress: Points

Current Annual Goal	0 Points
Progress Toward Goal	7 Points
Total Points Earned (YTD)	7 Points
Avg. Attempts per Book	1.0 Attempt

Date	Book	Author	Lexile®	Reading Level	GRL	Score (%)	Points	Words Read
02/27/11	City Green	DiSalvo-Ryan, ...	480	3.1	L	100	2	1,381
03/06/11	More Parts	Arnold, Tedd	N/A	2.5	K	90	1	451
03/13/11	Stellaluna	Cannon, Janell	550	4.9	N	100	2	1,209
03/27/11	Yellow Star	Deedy, Carme...	550	3.5	L	90	2	700
TOTALS			527 (AVG.)	3.5 (AVG.)		95 (AVG.)	7	3,741

이 프로그램은 〈그림 13〉과 같이 학교에서 방학 중 영어도서읽기 체험학습과제로 추천 가능하며 학생들의 영어도서 읽기에 대한 도전감 및 성취감을 제공하며 학부모의 영어독서에 대한 신뢰성과 도서관 중심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역할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은 예전부터 미국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이 SRI/SRC Test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은 스콜라스틱사

〈그림 13〉 SRI/SRC Test 모습

(scholastic Inc)가 국내의 일반 도서관과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밀양시립 영어도서관 등은 AR(Accelerated Reader)레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혹시 다른 도서관에서 독서 진단 및 평가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참고할 만하다.

3. 영어독서 동기부여 프로그램

영어자료와의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언제나 찾아오고 싶은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표 12〉처럼 월마다 영어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매우 재미있어 많은 사람이 다투어 참가하여 즐겁게 영어활동을 함으로써 영어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일반 도서관에서는 〈그림 14〉처럼 Wow!! Big book & Pop up book이나 Halloween day, Christmas 등 행사를 하면 학생들이 매우 흥미를 갖고 참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4〉 행사 활동 모습

〈표 12〉 독서 동기부여 프로그램

월별	행사명	내 용	담 당	비 고
3월	Wow!! Big book & Pop up book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빅북·팝업북 전시	world for kids	도서관 입구 전시
6월	Award Books	칼데곳 수상작 전시	〃	〃
10월	Halloween day	유래 설명 수준별 관련도서 안내	〃	〃
11월	Thanksgiving day	유래 설명 수준별 관련도서 안내	〃	〃
12월	The best books of this year	이용자들이 1년 동안 가장 많이 대출한 도서 소개	〃	〃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행사 중 하나인 Halloween day 활동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선착순 신청에 운 좋게도 선발된 학생들을 모아 약 100분에 걸쳐 다음 활동을 한다.

▶ 오리엔테이션

▶ 할로윈(크리스마스 등)에 관한 책읽기

▶ Station 활동

○ Station 1 : 페이스페인팅, Trick of Treat 가방 만들기

○ Station 2 : 거미모자 만들기, 색종이 박쥐 접기

○ Station 3 : 할로윈 가면 만들기

▶ Trick or Treat 활동

〈그림 15〉 할로윈데이 및 크리스마스 활동사진

〈그림 15〉와 같이 이용자와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독서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새로운 관심과 요구 사항도 파악하여 적합한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런 행사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매우 재미있어 하며 영어능력향상의 효과가 뛰어나고 학부모 자원봉사자도 가능하므로 적극 권장할 프로그램이다.

Ⅳ 결론 및 제언

해마다 사교육비 중 영어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영어 학습은 학부모들의 절박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올 4월에 발표한 선행학습금지법으로 더욱 학교 밖의 영어 학습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실 도서관에서의 풍부한 장서를 바탕으로 한 영어독서는 영어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의 학습자에게 지속적으로 언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언어 입력원으로서 학습자 스스로 언어를 신장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 도서관에서 개관 이래 5년 간, 영어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도서와 다른 영어도서의 효율적인 수서·확충과 함께, Lexile별 자료의 분류 및 배열 그리고 이용자가 편안히 독서할 수 있도록, Lexile 지수가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의 도서관 공간 구성을 하였다. 또한 상설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 영어독서능력진단 시스템과 견학·체험프로그램,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등의 6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영어전자도서관도 작년 5월에 개관하여 오프라인 도서관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그 결과 개관 초기의 회원 수 9,500명에 비해 현재 50,000여 명으로 약 5배가 늘었으며, 초기 이용자 54,000여 명에서 200,000만 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영어독서 프로그램 만족도는 최소 95% 이상이며, 영어 사교육을 받지 않고 도서관 영어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어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수용 능력상 선착순 접수를 받는 프로그램 신청은 접수 개시 후 30초에서 두어 시간 내에 마감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풍부한 영어독서 자료나 영어독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학부모의 자녀들의 영어 학습에 관한 염려와 사교육비 덜게 되는 것은 물론, 이용자의 영어능력이 향상되고 지속되는 흥미로 평생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도서관에 영어독서를 위한 장서와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는 요즘, 우리 도서관 운영 사례가 일반 도서관에서도 영어독서를 통한 영어능력 향상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제언으로는 해외 영어원서의 수서는 예산, 노력 및 시간이 국내도서보다 한층 더 들기 때문에 예산 및 소속 직원, 나아가 장소의 확충까지 되면 운영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 참고문헌

벳시 디아먼트-코헨(2011).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서울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상교(2010).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부산영어도서관. 부산 :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분관 부산영어도서관

송근향(2014). 학부모 Storytellor 교실. 부산 :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분관 부산영어도서관

에이미 J. 알레시오(2011).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서울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정원(2009). 영어교육의 이해. 충남 : 충남대학교 출판부

조경숙(2007). 자율독을 위한 초등 영어 읽기 프로그램. 한국 언어과학회. 14(2). 121-143.

Cho, K. S. (2004). Teachers' Voices in EFL Teacher Training: Reactions to a Sustained Silent Reading Experi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17-20.

Cho, K. S., Ahn, K. & Krashen S. (2005). The effects of Narrow Reading of Authentic Texts on Interest and Reading Ability i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Reading Improvement 42.1, 58-64.

Heinemann Publishing Company.

Krashen, S. (2005). English Fever. Taipei: Crane Publishing Company. 614-615.

Krashen, S. (2004). *The Power of Reading* (2nd ed.). Portsmouth, NH: Heinemann Publishing Company.

Mem Fox.(2008). Reading Magic(2nd ed.). New York : Houghton Mifflin Harcourt

【부록 1】 월중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대 상	모집 인원	날 짜 및 시간	주요내용
Reading with Phonics (기초)	만 5세 이상 어린이	10	월(15:20-16:00) 화, 수(14:30-15:10)	영어 동화책을 통해 알파벳과 파닉스를 익히는 기초프로그램
	초등(1~2)	15	월(15:20-16:00) 화, 목(14:30-15:10)	
Reading Starter I (기본)	만 5세 이상 어린이	10	화, 수, 목 (15:20-16:00)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Guided Reading을 통해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자율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읽기
	초등(1~2)	15	화, 목(15:20-16:00) 수(14:30-15:10)	
Reading Starter II (심화)	만 5세 이상 어린이	10	월, 목(16:10-16:50)	
	초등(1~2)	15	월(16:10-16:50) 수(15:20~16:00)	
Step-up Reading I (기본)	초등(3~4)	15	화, 목(16:10-16:50) 금(15:20~16:00)	원어민 교사와 함께 Guided Reading을 통해 점진적으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읽기
Step-up Reading II (심화)		15	화, 목(17:00-17:40) 금(16:10-16:50)	
Topic Activity (심화)		15	월, 수(17:00-17:40) ※ 주2회, 월8회	주제를 선정하여 그와 관련된 책을 읽고 독후활동
Intensive Reading (심화)	초등(5~6)	15	화, 금(16:10-16:50) ※ 주2회, 월8회	글을 스스로 읽기 시작하는 고학년을 대상 챕터북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
ENIE (1개월 과정)	초등(5~6) (한달과정)	15	화, 금(17:00-17:40) ※ 주2회, 월8회	사회 관련 영어도서 및 신문기사를 읽고 토론
ENIE (3개월 과정)	초등(5~6)	10	격주 운영(1,3주) 토(16:00-18:00), 일(10:00-12:00)	원어민 교사와 영자신문을 읽고 1:1 개별 첨삭 지도를 받으며 짧은 에세이를 쓰는 프로그램
	중학생	10	격주 운영(2,4주) 토(16:00-18:00), 일(10:00-12:00)	
	고등학생	10	일(15:00-17:00) (2, 4주)	

프로그램	대 상	모집 인원	날 짜 및 시간	주요내용
Read & Write (3개월 과정)	중학생	20	일(15:00-17:00) (1, 3주)	원어민교사와 함께 영어책을 읽고 분석・토론
Reading Alive	일반 성인	20	화(11:00-11:40)	가족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 주제에 맞는 활동
BEL Bookworm		20	목(11:00-11:40)	원어민과 영어책을 읽고 책 내용에 관해 분석・토론
Reading with Family	초등저학년 및 가족	15	토(14:00-15:00)	책을 읽고 주제에 맞는 활동을 하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
	유아 및 가족	26	일(10:00-10:40)	
Read & Talk	교사	5	토(14:00-15:50) (1, 3주)	책을 읽고 일정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
	일반	15	토(14:00-15:50) (2, 4주)	
Adults' Reading Club	일반	7	수(11:00-11:50) (1, 3주)	책을 읽고 내용에 관해 토의해 보는 자율 독서동아리
Kids Animation	유, 초등 및 가족	10	토, 일(11:30-12:30)	미취학 어린이 및 초등학생 대상 영어로 된 교육용 애니메이션 상영
Cinema World	가족회원 및 일반	10	토, 일(16:00-18:00)	가족 및 일반인 대상 영화상영
Fun Reading	유아	5	월~금 15:20~16:00	자원봉사자(성인)가 매일 유아, 초등저학년에게 일정한 시간대에 책 읽어줌
	초등 저학년	4	월~금 16:00~16:40	

【부록 2】 특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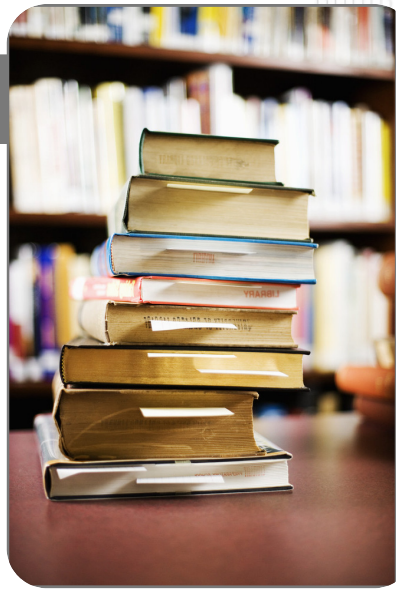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시기	대상 인원	주요 내용
Reading Star (영어독서선도요원)	초, 중, 고	4~11월 (월 2회)	120	SRI·SRC 응시, 수준에 맞는 도서읽기, Book Report 작성 등을 통해 스스로 영어독서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Reading Buddy (영어책 읽어주기 자원봉사)	멘티: 유아, 초등저학년 멘토: 중·고	4~6월,9~11월 (상·하반기 주 1회)	120	중·고등학생이 멘토가 되어 유·초등학생에게 영어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English Adventure (소외계층 영어학습 동기 강화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연중 토(10:00~12:00) 수(16:00~16:40)	40 (2개반)	인근지역아동센터 소속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4기능 향상 프로그램
영어독후감대회	초, 중, 고	6월 중	200	지정된 영어도서를 읽고 일정 주제에 관해 감상문을 쓰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대회
영어독서토론대회	중, 고	11월 중	200	지정된 영어도서를 읽고 논제에 관해 토론하는 대회
학부모 Storyteller 교실	일반인	4,7,10월 중	20	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익히고 직접 실습하는 성인대상 프로그램
Read and Debate (영어독서토론교실)	중학생	겨울방학	20	토론의 기초를 익히고 지정된 영어도서를 읽은 후 논제에 관해 토론하는 방학 프로그램
	고등학생	겨울방학	20	
Read and Write (영어에세이교실)	중학생	여름방학	20	에세이의 기초를 익히고 지정된 영어도서를 읽은 후 일정 주제에 관해 짧은 글짓기를 하는 방학 프로그램
	고등학생	여름방학	20	
Debate Practicum for Teacher	중등 영어교사	여름방학	20	자유토론에 관한 수업기법과 토론의 이론을 익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연수 프로그램
	초등교사	겨울방학	20	
가족과 함께하는 영어 동화 골든벨	가족	9월 중	40	미리 선정된 영어동화를 가족이 함께 읽고 골든벨에 도전하는 가족대상 프로그램
중학생 영어독서퀴즈 대회	중학생	여름방학	20	미리 선정된 영어책에 관한 문제를 푸는 골든벨퀴즈대회
BEL Reading Camp (영어독서캠프)	초등학생과 부모님	여름방학	20	원어민 교사와 일주일간 영어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과 체험활동을 하는 초·중학생 대상 방학 프로그램
	중학생	겨울방학	20	
찾아가는 영어동화 함께 읽기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4~6월 9~11월 (월 1회)	10	원어민이 인근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영어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17개 프로그램		·	970	·

【부록 3】 영어도서 수서 참고 자료

구 분	내 용
영어권 문학상 수상 도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외국 문학상 수상작 소개 http://www.nlcy.go.kr/section/book/literary.asp (뉴베리상, 카네기상, 칼데콧상, 캐나다아동문학상, 케이트그린어웨이상, 한스 크리스천 안데르센상, 호주아동문학상 역대 수상작 및 수상작 소장목록 소개) - 미국어린이도서관협회(ALSC) : 뉴베리상 및 칼데콧상 선정 및 수여 http://www.ala.org/ala/mgrps/divs/alsc/awardsgrants/bookmedia/caldecottmedal/caldecottmedal.cfm http://www.ala.org/ala/mgrps/divs/alsc/awardsgrants/bookmedia/newberymedal/newberymedal.cfm - 국제아동도서협의회(IBBY) : 한스 크리스천 안데르센상 선정 및 수여 http://www.ibby.org/index.php?id=273&L=0 - 영국도서관협회(CILIP) : 카네기상과 케이트 그리너웨이상 선정 및 수여 http://www.carnegiegreenaway.org.uk/home/index.php - 북트러스트(Booktrust) : 출판·독서증진 활동 및 각종 도서상 선정 및 수여 • Best New Illustrators Award • Booktrust Teenage Prize • The Roald Dahl Funny Prize • Booktrust Early Years Award for Best Baby Book 등 http://www.booktrust.org.uk/Prizes-and-awards/
독서관련기관 추천 도서	- Childeren's Choices / Teacher's Choices : 국제독서협회(IRA)에서 어린이·교사의 직접투표로 추천도서 선정 http://www.reading.org/Resources/Booklists/ChildrensChoices.aspx http://www.reading.org/Resources/Booklists/TeachersChoices.aspx - Kids' Top 100 Books / Teacher's Top 100 Books for Children / : 미국교육협의회(NEA) 추천 도서 http://www.nea.org/grants/13154.htm http://www.nea.org/grants/13110.htm - KCLS Book Lists(Ready to Read) : 킹카운티도서관 연령별 추천도서 http://www.kcls.org/parents/kidsandreading/readytoread/booklists.cfm - California Reading List(CRL) :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학년별 권장도서 http://www.cde.ca.gov/ta/tg/sr/readinglist.asp - Kid's Reading List 3 to 5 years : 오프라윈프리 북클럽 http://www.oprah.com/oprahsbookclub/Books-for-3-to-5-Years-Old-2010-Kids-Reading-List

구 분	내 용
독서 및 도서 정보 제공 웹사이트	- The Horn Book(Bimonthly) : http://www.hbook.com/resources/books/default.asp - School Library Journal : http://www.schoollibraryjournal.com - Booklist Online : Book Reviews from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http://www.booklistonline.com - Bookmarks Magazine(Bimonthly) : http://www.bookmarksmagazine.com - BookPage(Monthly, Free) : http://bookpage.com - READKIDDOREAD.com : http://www.readkiddoread.com/home
출판사 및 온라인 서점	- Amazon.com : http://www.amazon.com - ABC-CLIO : http://www.abc-clio.com - Neal Schuman Publisher. Inc. : http://www.alastore.ala.org/ - Barns & Nobles : http://www.barnesandnoble.com - JackFlap : http://www.jacketflap.com/index.asp
영어전자도서관	- Overdrive : https://www.overdrive.com/ https://marketplace.overdrive.com/Account/Login
수서 참고 도서	• 『Best books for boys : a resource for educators』 • 『Best Books for Children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 『1001 children's books』,『Popular series fiction for middle school and teen readers : a reading and selection guide』 • 『1000 Comic Books : You Must Read』 • 『The Best American Series』 • 『Children`s books : a practical guide to selection』 • 『The official YALSA Awards guidebook』 • 『Children's literature in action : a librarian's guide』 • 『The New York Times Parent's Guide to the Best Books for Children』 • 『Developing better readers and writers using Caldecott books』

국립중앙도서관장상 – 장 려 상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부산광역시립 구덕도서관 | 조 수 금 · 김 수 미

현황 및 소개

〈 미래의 꿈과 시민문화를 창조하는 구덕도서관!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 입구에 위치한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은 1978년 개관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보, 문화, 평생학습의 중심 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자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 사회의 독서문화와 평생학습의 대표 기관으로 35년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약 150,000여 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구덕도서관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정기간행물실, 디지털자료실을 통해 맞춤형 자료제공 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40~50여 개의 세대별 차별화 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맞아 변화하는 이용자층에 맞추어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식정보격차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사회통합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사회 실현',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문화'를 도서관 운영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구덕도서관은 운영 방향에 맞춘 많은 노력의 결과로 매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기관 성과평가에서 2013년 기관(부서)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앞으로도 구덕도서관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주민들의 정보 수요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 '미래의 꿈과 시민문화를 창조'해 지역 주민들의 행복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시설 현황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41
○ 대　　지 : 1,850.89㎡
○ 연 면 적 : 1,314.49㎡
○ 건물내역 : 지하층 – 문화강좌실, 휴게실
1층 –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정기간행물실
1층별관 – 디지털자료실
2층 – 일반열람실, 사무실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자료 현황

(2014.4.1. 현재)

도 서	비도서	계
150,212책	5,738점	155,950책(점)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연혁

- 1978. 1. 16. 부산직할시립구덕도서관 설립
- 1978. 3. 28. 도서관 개관
- 1995. 1. 1.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 1998. 2. 3. 건강자료 특성화 도서관 지정
- 1998. 12. 1. 공공도서관 전산협력망 구축
- 2000. 11. 25. 평생학습관 지정
- 2001. 3. 2. 홈페이지 개설(http//www.guducklib.kr)
- 2002. 3. 15. 제34회 한국도서관상 수상
- 2003. 6. 2. 디지털자료실 설치
- 2004. 6. 1. 작은도서관(유진대림아파트) 개소
- 2007. 11. 1. 작은도서관(부민e-편한세상) 이전 개소
- 2008. 3. 1. 부산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시스템 운영
- 2009. 5. 6.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시행
- 2009. 7. 15. 자동무인대출반납시스템 도입
- 2010. 7. 15. 어린이자료실 개관시간 연장 시행
- 2011. 1. 17.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확대 실시
- 2013. 8. 20. 부산광역시 서구 평생학습도시 협력기관 선정
- 2014. 2. 18. 2013년 기관(부서)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우수사례 개요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의 책 읽어주기 활동은 2011년부터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독서와 도서관문화를 나누기 위해 시작하였다. 1980년 이후 공공도서관이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에서는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 센터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이용자 계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용자들을 위한 지식, 정보 자료 제공 및 문화적 요구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지식정보취약계층으로 도서관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계층별 세분화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중 하나인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가끔씩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종합병원 바로 옆에 위치한 도서관의 위치적 특성으로 환자복을 입고 도서관에 찾아와 지루한 병원생활을 이야기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도서관에 올 수 조차 없고 책을 읽을 수 없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한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다.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사서들과 “도서관친구들”(우리도서관 독서토론팀) 회원들로 구성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봉사팀은 프로그램 홍보와 준비기간을 거쳐 병원 측의 의뢰로 40대 여성 말기 암 환자를 위한 1:1 밀착 책 읽어주기를 시작하였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를 찾아가 책도 읽어주고 바깥세상 이야기로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도서관에서는 책 읽어주기 서비스를 병원뿐 아니라 부모의 관심이 부족한 어린이, 유아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은 병원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도서관을 쉽게 찾아오기 힘든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다. 한 권의 책이라도 함께 읽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도서관과 책, 그리고 사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이다.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은 앞으로도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각 대상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독서 관련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여 지식 정보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책으로 지역 사랑 나눔의 중심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다.

Ⅰ 서 론

1.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1980년대 평생교육 개념이 도입된 후,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관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는 달라서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본질을 자기교육의 과정으로 생각할 때, 공공도서관이야말로 자기 교육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평생교육기관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1]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교육적, 사회적 사명과 변화에 따라, 구덕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서비스를 제고하고자 고민하고 그 결과 소외계층을 위한 책 읽어주기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소외계층의 세부적 대상을 선정할 때 구덕도서관의 종합병원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소외된 환자를 위한 책 읽어주기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소외된 저소득층 어린이로 나누어 각 대상의 상황과 정서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활동지를 구안하여 책 읽어주기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다.

책 읽어주기를 각 계층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앞으로의 책 읽어주기 운영에 도움을 주고 책 읽어주기 자원봉사자 양성·훈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안과 사서가 주체가 되는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의 구체적인 연구를 도모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에 전문성을 부여하고 자원봉사자 양성을 통한 책 읽어주기 운동의 확산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1) 박경애(2007).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p.

2. 책 읽어주기의 개념과 가치

1) 책 읽어주기 개념

책 읽어주기는 문자해독이 불가능한 유아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문자해독능력을 증가시킴은 물론 독서에 대한 흥미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다.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의 교육현장에서도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감 형성은 물론이거니와 책에 관한 흥미의 증진, 독서습관 형성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책 읽어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2)]

책 읽어주기는 읽어주는 사람이 그림과 문자언어를 해석하여 읽어주는 것이다. 아직 문학적 경험이 미숙한 대상자들은 읽어주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동화를 감상하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대상자들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상상하면서 글을 보다 입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읽기 지도의 한 방법이 된다. 대상자는 동화를 들으면서 들려주는 사람의 음성적 변화, 표정, 몸짓 등에 따라 그때그때 전개되는 모습과 움직임을 머릿속에 또렷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읽는 동화보다는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다.

2) 책 읽어주기 가치

도서관의 책 읽어주기는 구체적으로 교육적 가치, 언어적 가치, 도서관적 가치를 가진다.

첫째, 책 읽어주기의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면 책 읽어주기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비판적 능력을 키워주며 감성적 성장을 돕는 등 광범위한 교육적 기능을 한다. 어린이들은 교실에서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웃고, 즐거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사회적, 감정적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Ellis & Brewser, 1991). 또한, 책 읽어주기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이어서 이야기 한편을 듣는 것은 직접 한편의 책을 읽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또 다른 책을 연결해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

2) 신혜정(2009). 책 읽어주기 활동이 읽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8~16.

한편으로, 책 읽어주기는 언어발달과 지능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바른말, 고운 말을 쓰게 되며 발음이 정확해진다. 또한 상상력이 풍부해져 창조력을 길러주고 자연을 사랑하게 되며 경험의 폭이 넓어져 동화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과 대화하는 속에서 자연과 친근해지며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더불어 문학을 통해 주인공이 되어보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간접경험하게 되는 효과와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여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동화속의 인물을 통해 바른 생활태도, 습관, 협동심을 배우며 도덕적, 사회적 측면의 분별력을 키울 수 있고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소유하게 돼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며 예술적인 감각을 경험하게 되어 감수성 발달과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책 읽어주기는 어린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상상의 즐거움과 흥미를 더해 줄 뿐만 아니라 사고력 발달에 큰 영향을 주며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한 언어발달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3)]

둘째, 언어적 가치를 보면 책 읽어주기는 어린이들이 언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언어기술을 발달시키는 수단으로서 의미 있고 재미있으며 학습의욕을 자극하는 많은 것들을 제공한다. 어려서 이야기를 듣고 읽음으로써 어린이들은 어휘를 넓혀가고 새로운 문장유형을 접하게 된다. 또한 말과 글에 관심을 갖게 되며 총체적인 언어학습과 전인교육에 도움을 준다. 동화를 듣고 표현함으로써 언어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 재미있는 동화를 들으며 새로운 언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면서 자연스럽게 읽기와 쓰기까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는 실제상황에서 사용되는 대화의 좋은 모델을 보여준다. 어린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언어사용을 인식하게 되며 그 직관적 인식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사용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4)]

또한, 유아와 비교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보다 좀 더 많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언어가 수용언어와 표현 언어로 나뉘어 있고 언어의 수용적인 기능이 표현적인 기능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3) 원미정(2008). 책 읽어주기 수업이 유아의 언어발달 및 도서관 이용과 부모의 도서관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7~8.
4) 원미정(2008). 앞의 책. 8p.

이유로 책 읽어주기 담당자는 유아에게 문학작품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을 때, 유아가 전체적인 개념을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도서관적 가치를 보면 도서관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어준다고 하면, 도서관 방문을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하고 자료를 찾는 방법을 터득 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지켜야할 규칙(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을 길러 줄 수 있다.[5)]

3. 책 읽어주기의 방법

책을 읽는 방법은 그 책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각기 다르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경우와 재미를 위해 책을 읽는 경우는 책을 읽는 방법이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Many & Wiseman(1992)은 책 읽어주기 접근법은 책을 읽어주는 한 가지 방법으로 책을 읽어주기 직전에 아이들로 하여금 동화의 내용을 예측해 보고, 동화를 다 읽어준 다음 그 동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아이들의 적극적인 동화 감상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Enciso(1994)는 아이들이 이야기 속에서 마치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혹은 자신이 등장인물인 것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며, 이런 감정은 풍부한 이야기 나누기가 야기 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동시에 이야기와의 강력한 관계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이들로 하여금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적 인식을 확장시키고 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통한 책 읽어주기 접근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하였다.[6)]

1) 경험적 접근방법(심미적 접근)

경험적 접근 방법은 아이들로 하여금 이야기의 줄거리에 반응하도록 하고,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얻게 되는 생활체험 획득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 읽어주는 사람은 들려주는 과정에서 주인공 및 등장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켜보도록

5) 원미정(2008). 앞의 책. pp.8~9.
6) 신혜정(2009). 앞의 책. pp.13~15.

자극한다. 또한 진행 가능한 결과를 예측해 보도록 하고, 이야기에서 야기된 강력한 이미지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야기된 연상과 느낌 같은 심미적인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

2) 분석적 접근방법(비판적 접근)

분석적 접근방법은 아이들로 하여금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관심을 두도록 하는 접근 방법이다. 즉 읽어주기 시간에 이야기를 들려준 후,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비판하는데 초점을 둔다. 즉 분석적 접근방법은 아이들로 하여금 이야기의 구성요소에 감상의 초점을 두도록 격려하며 이야기에 대한 정보회상적 반응을 나타내도록 한다.

Ⅱ 실태분석

1. 부산공공도서관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현황

공공도서관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26개관(시교육청 소속 13개관(분관 2개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소속 13개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조사방법은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2007) “도서관 어린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각 기관의 담당사서에게 전자우편으로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항목은 크게 부산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개설현황과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실태조사이고,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대상별 구분현황(소외 계층과 비소외 계층),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자 현황, 운영 장소,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점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개설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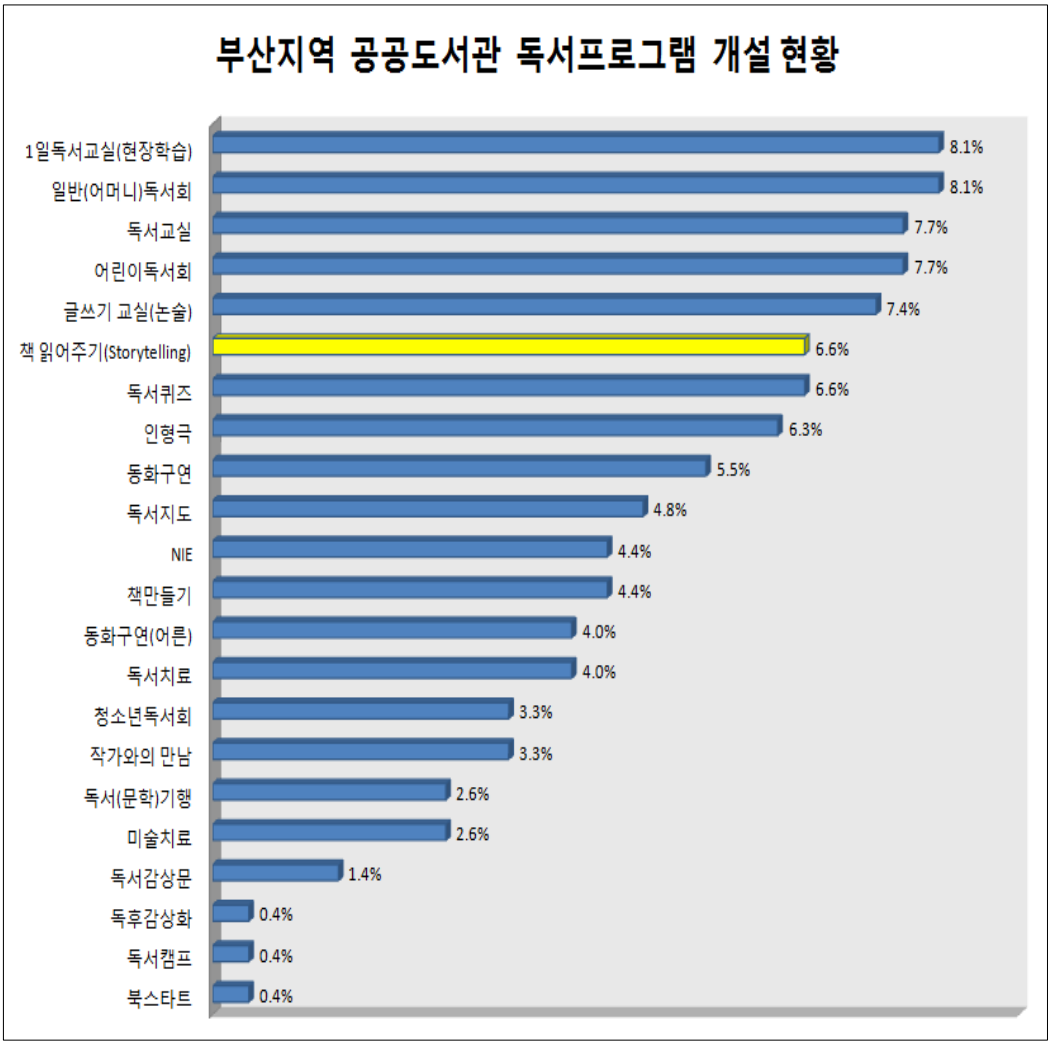
순위	프로그램명	강좌수(건)	비율
1	1일독서 교실(현장학습)	22	8.1%
2	일반(어머니)독서회	22	8.1%
3	독서교실	21	7.7%
4	어린이독서회	21	7.7%
5	글쓰기 교실(논술)	20	7.4%
6	책 읽어주기(Storytelling)	18	6.6%
7	독서퀴즈	18	6.6%
8	인형극	17	6.3%
9	동화구연	15	5.5%
10	독서지도	13	4.8%
11	NIE	12	4.4%
12	책 만들기	12	4.4%
13	동화구연(어른)	11	4.0%
14	독서치료	11	4.0%
15	청소년독서회	9	3.3%
16	작가와의 만남	9	3.3%
17	독서(문학)기행	7	2.6%
18	미술치료	7	2.6%
19	독서감상문	4	1.5%
20	독후감상화	1	0.4%
21	독서캠프	1	0.4%
22	북스타트	1	0.4%
총계		272	100%

위 〈표 1〉에서 살펴보면 부산시내 공공도서관에서 22개의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책 읽어주기(Storytelling), 동화구연 등을 제외하면 책 읽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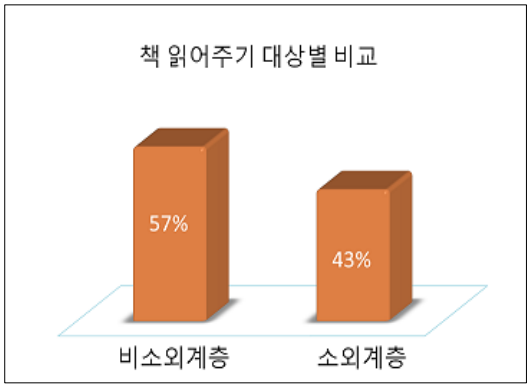
기 관련 프로그램 개설 현황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설문지를 통해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시 대상별 구분현황(소외 계층과 비소외 계층), 운영 장소, 대상별 서비스 비율, 운영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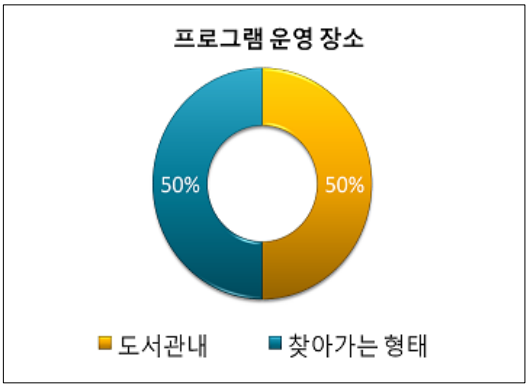
〈그림 1〉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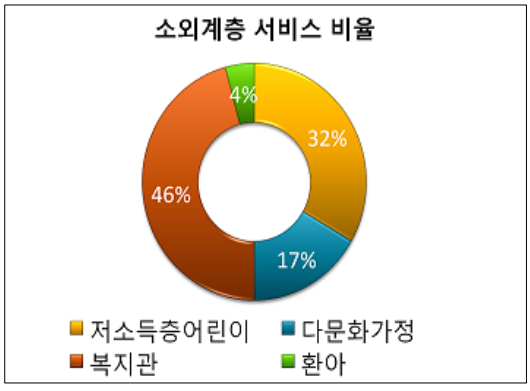
〈그림 2〉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대상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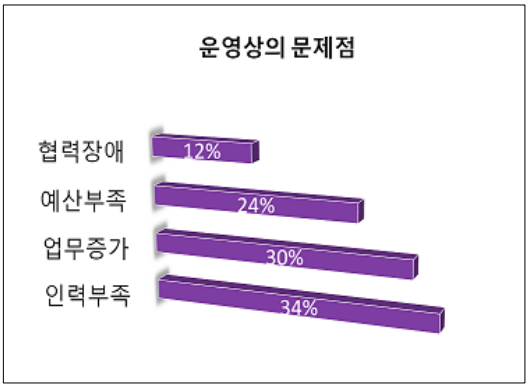
〈그림 3〉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장소



〈그림 4〉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대상별 비교



〈그림 5〉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2. 소외계층 책 읽어주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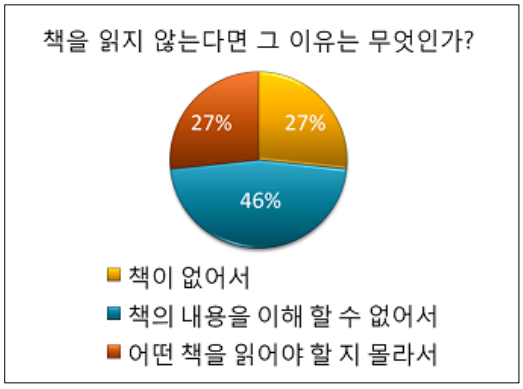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 읽어주기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012년 도서관 인근의 저소득층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독서생활과 독서환경, 책 읽어주기 환경, 독서활동 요구 등을 파악하도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표 2〉 설문조사지 구성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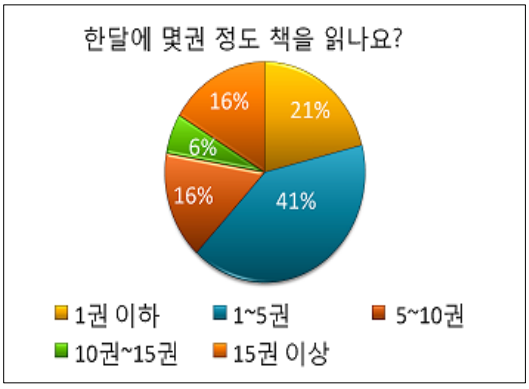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문항수
개인적 사항	• 성별 · 나이	2
독서생활	• 독서에 대한 흥미 • 책을 읽지 않는 이유 • 한 달에 읽는 책 수 • ·독서에 대한 욕구 파악	4
독서환경	• 책 읽기에 관한 주변환경 • 독서 빈도 파악 • 도서 대출여부 • 대출 책수	4
책 읽어주기 환경	•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가의 유무 • 책 읽어주는 사람 유무 • 정기적인 책 읽어주기 요구파악 • 원하는 책 내용 파악 • 책 읽어주기 빈도파악	5
독서활동	• 독서활동 참여 여부 • 원하는 독서활동 종류 • 독서활동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 • 책을 읽은 후 원하는 독서활동 • 독서활동이 도움 되는 분야	5

설문지를 분석해보면, 책을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46%), 책 고르기의 어려움(27%), 책이 없는 환경(27%)을 이유로 들었다. 한 달에 읽는 평균 책 수는 1권이하와 1~5권이 62%로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으며, 책을 읽어주기를 원하는가의 질문에는 59%로, 현재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앞으로 책을 읽어주기를 원하는가의 질문에는 53%의 결과로 책 읽어주기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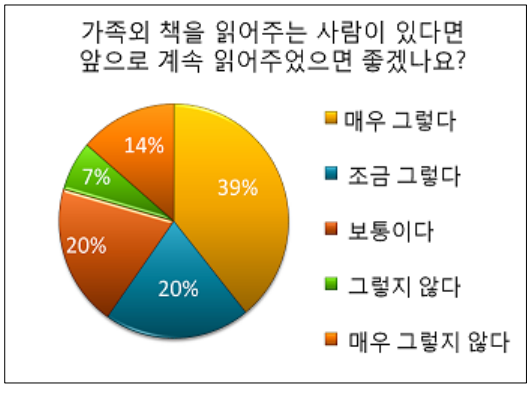
〈그림 6〉 책을 읽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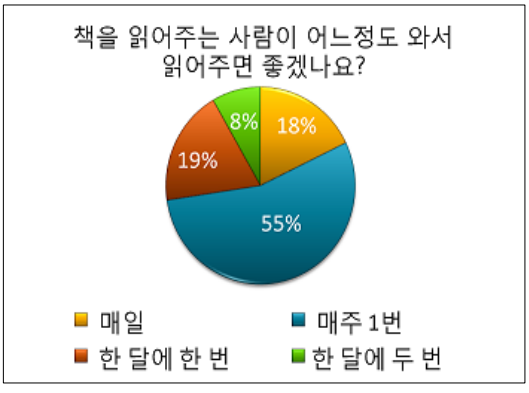
〈그림7〉 한 달에 읽는 책 수



〈그림 8〉 가족 외 책 읽어주기 요구



〈그림 9〉 책 읽어주기 횟수



Ⅲ 책 읽어주기 사례의 실제

1. 소외계층 대상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

1) 환자 책 읽어주기

책 읽어주기를 계획한 후 책 읽어주기에 대해 도서관 인근의 병원에 홍보를 한 결과 동아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인근의 병원에서 책 읽어주기를 요청해왔다.

(1) 동아대학교 어린이병원학교 책 읽어주기

① 활동보고

○ 기　간 : 2012년 4월 1일 ~ 2014년 4월 현재
○ 일　시 : 매주 수요일 11:00~12:00 (주1회)
○ 대　상 : 동아대학교 어린이병원 환아
○ 횟수 및 참여인원수 : 총88회, 195명
○ 장　소 : 동아대학교 어린이 병원학교
○ 봉사자 : 사서 및 도서관친구들[7] 회원
○ 내　용 : 그림책 읽어주기 및 책 이야기 나누기

7)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인 독서치료강좌를 수료한 회원들과 도서관 사서가 중심이 되어 2005년 결성된 평생학습동아리로 독서문화모임(독서토론)과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② 활동일지

환아를 대상으로 한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동아대학교 병원에 '어린이 병원학교'가 있음을 알게 되어 병원학교를 방문하여, 동아대학교 병원 사회사업과 담당직원과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병원학교란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료적 지원과 학업 수행에 따른 교육적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병원 내에 설치한 파견 학급 형태의 무상교육 기관이다.

오전에는 전/학령기 어린이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방과 후 학교 활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프로그램 중 독서활동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학교 선생님과 협의하여 일주일에 한 번 책 읽어주기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치료시간과 겹치거나 입·퇴원 등으로 매 회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2~3명 정도의 환자들이 매주 수요일에는 오전에 자원봉사자들이 읽어주는 책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 책을 펼칠 때는 몸이 아픈 아이들이어서 그냥 앉아 있기도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어느 새 한 권을 다 읽고 책을 덮으면 들은 내용들에 대해 먼저 말하거나 질문을 하고 다음 책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 먼저 읽어달라고 조르는 경우도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자녀가 있는 덕분에 아이들을 엄마 같은 마음으로 책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이들, 자원봉사자 모두 편안한분위기 속에서 책읽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

(2) 구덕병원 책 읽어주기

① 활동보고

○ 기　간 : 2011년 1월 ~ 2012년 7월[8)]

○ 일　시 : 매월 넷째 금요일 10:00~11:00 (월1회)

8) 구덕병원의 폐업으로 2012년 8월부터는 대남병원에서 책 읽어주기를 계속하고 있다.

○ 대　상 : 구덕병원 환우
○ 횟수 및 참여인원수 : 총17회, 962명
○ 장　소 : 구덕병원 강당
○ 봉사자 : 사서 및 도서관친구들 회원 5명 참여
○ 내　용 : 정신지체 성인을 대상으로 그림책 읽어주기 및 레크리에이션

② 활동일지

구덕병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장기입원하고 있는 병원으로 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 하나로 자원봉사자들의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를 원했다. 2011년부터 시작한 구덕병원 자원봉사 활동은 병원을 찾아가는 일부터 쉽지가 않았다. 시내버스에서 내려 산비탈을 30여 분쯤 걸어 올라가야 위치한 병원은 환자들을 만나기 전부터 우리들을(사서와 자원봉사자) 지치게 만들었으나, 봉사를 시작한다는 마음에 설레면서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강당으로 들어갔다.

말과 행동이 모두 불편하고, 생각 또한 제대로 할 수 없는 성인 남, 여 60여 명이 큰 아우성과 어눌한 박수로 우리들을 맞아 주었지만, 막연하게 책을 읽어준다는 상상만 하고 강당에 들어선 우리들은 선뜻 이 환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처음엔 쉽게 손도 잡을 수가 없었다. 전체 인사와 간단한 율동배우기로 어색함을 풀고 책을 읽었으나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환자들도 책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하였다.

고함에 가까운 큰 목소리로 혼자 말을 하거나, 아예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는 환자들과 소통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았다.

어려운 책보다는 재미있는 그림동화를 골라 만날 때마다 2~3권을 읽어주고 읽고 난 책에 대해 질문도 하였다. 엉터리 답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열심히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려는, 변해가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들끼리도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지만 우리들과 함께 몸을 부딪치면서 움직이다보니 얼굴과 마음은 웃고 있었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환우들은 우리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책 내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우리들 역시 처음에는 가까이 가기조차 쉽지 않았으나 게임과 율동도 함께하면서 인간적으로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는 봉사지만 구덕병원의 사회복지사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구덕병원 환우들이 예전에는 노래 배우는 시간을 제일 기다렸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방문하는 넷째 금요일을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한다. 자원봉사자들 역시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날이 되면 지난 시간에 특별했던 환우들을 떠올리면서 발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3) 대남병원 책 읽어주기

① 활동보고

○ 기　간 : 2012년 8월 ~ 2014년 4월 현재
○ 일　시 : 매월 넷째 금요일 10:00~11:00 (월1회)
○ 대　상 : 대남병원 환우
○ 횟수 및 참여인원수 : 총20회, 710명
○ 장　소 : 대남병원 강당
○ 봉사자 : 사서 및 도서관친구들 회원 5명 참여
○ 내　용 : 정신지체 성인 및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그림책 읽어주기 및 레크리에이션

② 활동일지

구덕병원에 이어 새로 책 읽어주기 사업을 시작한 대남병원은 구덕병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같은 정신과 병원이라 구덕병원과 시스템이나 환자 상태가 비슷하리라고 예상했으나 이 병원의 환자는 정신지체보다는 알코올 중독자가 더 많았다. 따라서 환자들의 지적 수준도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다. 유사한 병원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책 읽어주기 사업을 시작했으나 각 병원마다의 특성이 있어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였다. 봉사 첫날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해서 가져간 책이나 레크리에이션 활동들을 다소 유치하게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구덕병원의 경우는 정신지체자들이 많아 책도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동화구연을 하듯이 책을 읽어 드렸다. 그러나 대남병원에서 어떤 환자들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금 당황한 자원봉사자들은 회의를 거쳐 읽어줄 책 내용을 어른들을 위한 동화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철학 동화로 바꾸고 레크리에이션 역시 환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내용을 알차게 만들었다.

1, 2회차의 어색함과 긴장감이 흐르고 나니 차츰 병원 측에서도 책 읽어주기 봉사를 기다리고 자원봉사자들 역시 어려움보다는 무료한 병원 생활 중에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환자들을 생각하며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환자들과 함께 했다. 오가는 길이 힘들기는 하지만 읽어주는 책 내용을 가만히 듣고 짧지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한 생각이 든다.

(4) 동아대학교병원 중환자실 책 읽어주기

① 활동보고

○ 기　간 : 2011년 12월 6일 ~ 2012년 2월 9일
○ 일　시 : 매주 화, 목요일 11:00~12:00 (주2회)
○ 대　상 : 말기 암환자 1명
○ 횟수 및 참여인원수 : 총16회, 1명
○ 장　소 : 동아대학교 중환자실
○ 봉사자 : 사서 및 도서관친구들 회원 3명
○ 내　용 :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1:1 밀착 책 읽어주기

② 활동일지

2011년 12월, 싸늘한 바람이 구덕산 자락을 휘감아 몸과 마음이 모두 시린 겨울에 동아대학교 사회사업과에서 도서관으로 책읽어주는 봉사활동을 부탁한다는 문의가 왔다. 대상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뇌종양 4기 환자로 두 아이를 둔 42세 여성이었다. 보호자도 자주 면회를 할 수 없는 중환자실이기에 혼자 병과 싸워야 하는 환자는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당연히 책 읽어주기 자원봉사를 시작하였다. 중환자실 봉사활동은 다른 기관과는 달랐다. 우선 중환자실에 가면 감염에 대비하여 환자를 만나기 전에 손을 소독하고 면회자들을 위한 병원복을 입고 장갑도 착용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했다. 책을 읽어주기에는 불편한 복장이었지만 병원의 규칙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사서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방문하여 한 사람은 책을 읽고 나머지 한 사람은 환자를 가볍게 주물러 주면서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환자와 봉사자들이 나이가 비슷한 여성들이라 일주일에 2번 만나 책도 읽어주면서 간간히 환자가 보지 못하는 바깥이야기와 변해가는 계절이야기 그리고 아이 이야기도 함께 하면서 어느 새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두 달이 지났을 즈음, 병을 이겨내려는 환자의 마음과 책 읽어주는 봉사자들의 마음이 닿아 환자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입원실을 옮기게 되었다. 이제는 누워있기보다는 물리치료를 열심히 하라는 의사의 지시에 따

라 환자는 치료를 마치고 틈틈이 스스로 읽어보겠다고 하여 아쉽지만 중환자실 봉사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1:1로 책도 읽어주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에게는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기억을 남기는 시간이 되었다.

2)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책 읽어주기

저소득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구덕도서관에서는 지역 저소득층 기관에 단체대출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를 고민하던 중 인근 병원의 책 읽어주기 봉사에 착안하여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실시하였다.

(1) 해강지역아동센터 책 읽어주기

① 활동보고

○ 기　간 : 2012년 3월 7일 ~ 2012년 10월 30일
○ 일　시 : 매주 수 15:30~17:30
○ 대　상 : 해강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
○ 횟수 및 참여인원수 : 총40회, 800명
○ 장　소 : 해강지역아동센터
○ 봉사자 : 사서와 독서지도강사
○ 내　용 : 도서관 이용법, 좋은 책 고르는 법, 여러 가지 독후활동, 독서토론, 뮤지컬감상, 영화감상, 책방나들이, 독서골든벨 등

② 활동일지

우리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후, 이러한 활동을 좀 더 확대 시행하기 위해 2012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에 응모하였다. 책 읽어주기 대상을 저소득층 어린이로 선정하고 응모한 결과 본 도서관이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책 읽어주기를 시작하였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특성상 부모님이 늦게 귀가하고 가정 내 독서환경 부재로 인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독서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논의 결과에 따라,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하고 긍정적인 독서 태도 함양을 도와주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도서관 인근 지역아동센터 한 곳에 책 읽어주기를 제안하였다. 2012년 3월부터 시작한 인근 지역아동센터 책 읽어주기 사업은 책 읽기는 물론 더불어 영화보기, 책방나들이 등 다양한 문화체험도 함께하는 내용으로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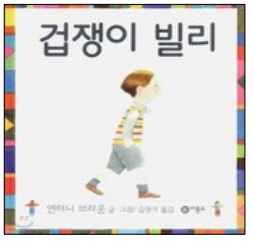
2. 책 읽어주기 선정도서

"책 읽어주기"라고 하면 그냥 책만 읽어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책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책을 가까이에서 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강제로 책을 읽는 것 보다는 독서에 흥미를 가지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책을 읽고 난 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책을 읽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책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책 선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발행한 우수도서목록 및 독서치료 도서목록을 참고로 하여 우리도서관 사서들이 협의하여 각 대상별 도서목록을 선정하였다.

1) 환아 대상 도서

(1) 겁쟁이 빌리 / 앤서니 브라운 글 / 비룡소



① 선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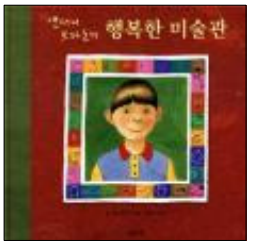
병원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독후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위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② 책 소개

중앙아메리카의 과테말라 인디언에게 전해 내려오는 '걱정 인형'을 소재로,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불안한 심리와 상상력, 사물에 대한 배려 등을 깜찍하게 그려낸 그림책이다. 모자도, 신발도, 구름도, 비도, 커다란 새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걱정하는 빌리가 어느 날, 할머니 집에서 잠을 자게 된다. 빌리는 할머니에게 자기의 걱정거리를 얘기하고, 할머니는 빌리에게 '걱정 인형'을 선물한다.

이 책의 그림은 빌리의 심리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빌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장면에서는 흑백을 주로 사용하였고, 걱정 인형을 받은 후로는 걱정 인형이 입고 있는 화사한 색처럼 원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2) 행복한 미술관 / 앤서니 브라운 글



① 선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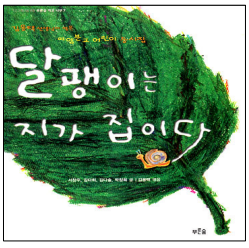
병원이라는 제한된 생활환경에 놓인 환아들에게 미술관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하며, 그림 놀이도 직접 해 보며 미술작품에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책 소개

어느 해 엄마의 생일날, 엄마는 온 가족이 함께 미술관 구경을 가자고 제안한다. 아빠와 형은 마지못해 따라 나서지만 텔레비전에서 하는 축구 경기를 못 본다고 투덜대고, 미술관 가는 길은 그리 신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보고, 서로의 느낌과 생각, 추억들을 나누는 동안 어느새 생기를 되찾고 마음을 열게 된 것이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기차 안에서 엄마가 가르쳐 준 그림놀이를 재미있게 하고, '나'는 그 일이 계기가 되어 평생 그림 그리는 일을 하게 된다.

(3) 달팽이는 지가 집이다 / 김용택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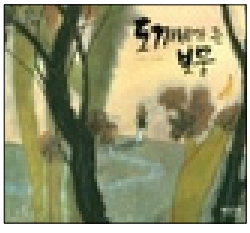
① 선정이유

긴 집중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호흡이 짧은 시의 감상을 통해 부담 없이 보다 더 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책 소개

전라북도 임실의 운암초등학교 마암 분교의 선생님과 선생님 반 어린이 4명이 함께 엮은 동시집이다.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머리 아프게 하는 구구단. 나는 아직 구구단을 못 외운다.〉 - 박창희 〈구구단〉. 네 명의 어린이가 1년간 지은 시와 함께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삽화로 넣었다.

(4) 도깨비가 준 보물 / 서정오 글



① 선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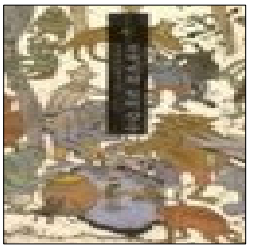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도 알아보아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갖기 위함이다.

② 책 소개

〈도깨비가 준 보물〉은 어리숙한 총각이 집을 나서서 도깨비를 만나 세 가지 보물을 얻고, 마지막에는 도둑맞은 보물을 찾게 되는 이야기이다. 유럽 옛이야기 〈북풍이 준 선물〉과 비슷한 〈도깨비가 준 보물〉은 권선징악의 극명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전해준다.

2)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도서

(1) 도깨비와 범벅장수 / 이상교 글



① 선정이유

책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책은 재미있는 것'이라는 인상을 남겨 주어 다음에 책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함이다.

② 책 소개

장터에 나간 범벅장수는 호박범벅을 하나도 팔지 못한다. 이래저래 고민을 안고 고개를 넘어가던 순간 범벅장수 앞에는 도깨비들이 나타난다. 도깨비들은 호박범벅을 맛있게 먹은 다음, 항아리 가득 금돈과 은돈을 채워준다. 이후로 도깨비들에게 호박범벅을 팔은 범벅장수는 금방 부자가 된다. 그 후 도깨비는 호박범벅을 먹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간다.

(2) 조커; 학교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 / 수지 모건스턴 글

① 선정이유

대화를 충분히 나눌 여건이 되지 않는 아동들이 많아 학교(단체) 생활에서의 힘든 점이나 불만, 선생님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지혜를 배우고, 다양한 조커에서 공감의 즐거움을 갖기 위함이다.

② 책 소개

기발한 아이디어로 아이들에게 교과서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가르침을 주는 할아버지 선생님의 이야기. 새 학기가 시작되어 기대와 두려움을 갖고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기다리는 아이들. 그러나 아이들 앞에 나타난 노엘 선생님은 그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주름투성이에다가 배가 공만 하고 흰머리가 사방으로 뻗친 할아버지 선생님이었다. 실망이 너무 커서 울 지경인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아이들 한명 한명의 책상 위에 선물꾸러미를 올려놓는다.

(3) 왜? / 니콜라이 포포포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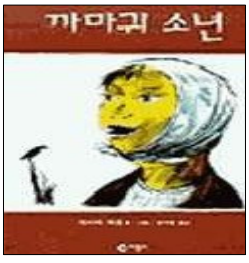
① 선정이유

다투는 일이 잦은 어린이들이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책 소개

어린이를 위한 생각하는 그림책. 개구리와 생쥐의 싸움을 통해 전쟁과 폭력의 어리석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왜? 라는 질문과 그림으로만 표현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전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4) 까마귀 소년 / 야시마 타로 글



① 선정이유

외톨이가 되는 주인공을 보면서 내 주위에 또는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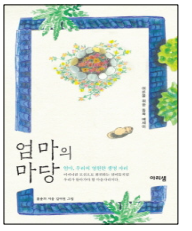
②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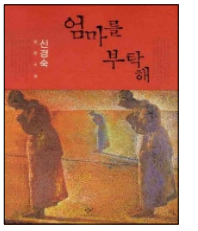
산골 마을 초등학교에 다니는 땅꼬마는 언제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받는 외톨이이다. 그런데 새로 오신 선생님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마을 사람 모두로부터 인정받는 '까마귀 소년'이 된다. 참교육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림동화이다.

- 까마귀 소년 / 야시마 타로 글 / 비룡소

3) 어른 환자 대상 도서

- 울지말고 꽃을 보라 / 정호승 지음 / 해냄
- 향기 자욱 / 정채봉 지음, 이성표 그림 / 샘터
- 엄마의 마당 / 홍종의 지음 / 아리샘
- 위로 / 이철환 지음 / 자음과모음
- 엄마를 부탁해 / 신경숙 지음 / 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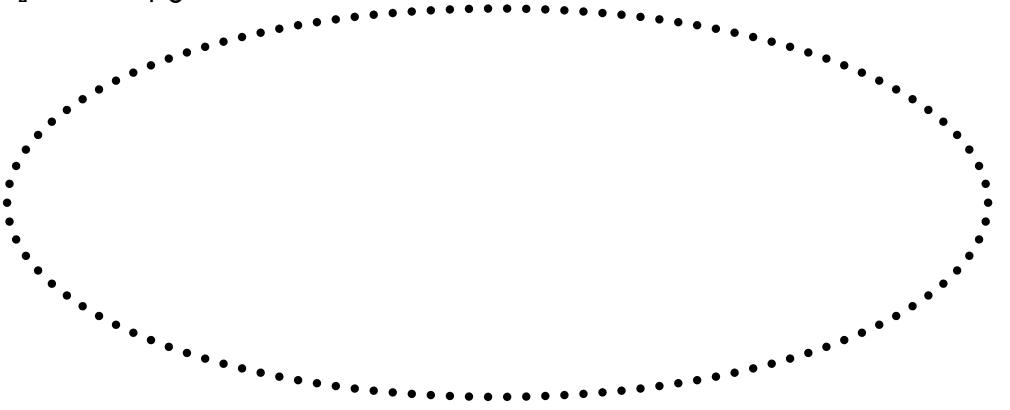


3. 어린이 대상 책 읽어주기 선정도서 활동지 예

1) 환아 대상 도서 활동지 예

〈그림 10〉 '겁쟁이 빌리' 활동지

♧ 나의 걱정거리



여러분도 걱정 인형을 만들어 걱정거리를 털어 놓아 보세요.
그러면 걱정이 조금 덜어진 듯 개운한 기분이 될 거예요.

〈그림 11〉 '행복한 미술관' 활동지

이름 : _____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 내가 처음 만난 화가 ~ 작품 감상을 해요.

*어떤 **작가**가 기억에 남을까요? 그리고 이유도 함께 써 보세요.

_____

*어떤 **작품**이 기억에 남을까요? 그리고 이유도 함께 써 보세요.

_____

〈그림 12〉 '달팽이는 지가 집이다' 활동지

♥ 관련활동

1. 시 제목 알아맞히기

2. 가장 마음에 드는 시, 인상 깊은 시는?

3. 나의 애송시 소개하기

4. 시화 꾸미기

〈그림 13〉 '도깨비가 준 보물' 활동지

'도깨비가 준 보물'

이름 : _____

☺ 퀴즈를 풀어보아요

1. 하루는 부모님이 아들을 불러 놓고 무엇을 하고 일 년 뒤에나 돌아오라고 일렀나요?

2. 깊은 산속 기와집에서 무엇이 나타났나요?

3. 총각은 도깨비와 무엇을 하면서 함께 살았나요?

4. 도깨비를 만나 얻게 된 세 가지 보물은 무엇이었나요?

5. 총각이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게 해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6. 여러분은 친구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편인가요?

7. 여러분은 도깨비에게서 어떤 선물을 받고 싶나요?

2)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도서 활동지 예

〈그림 14〉 '도깨비와 범벅장수' 활동지1-1

♣ 등장인물의 칭찬과 흉 생각해 보기 ♣

범벅장수의 칭찬	범벅장수의 흉
도깨비의 칭찬	도깨비의 흉

〈그림 15〉 '조커 ; 학교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 활동지

책을 읽고 정리해 봐요.

1. 샤를르를 비롯한 반 아이들은 새로운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 무척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_____

2. 노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준 선물을 모두 찾아 적어 봅시다.

_____

3. 선생님이 나누어준 카드에 적힌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것을 3가지 적어 봅시다.

_____

〈그림 16〉 '왜?' 활동지

* 이해 및 자기 적용

1. 개구리와 쥐는 왜 싸우게 되었을까요?
2. 개구리와 쥐가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폐허가 된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개구리라면 쥐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요?
4. 여러분도 친구의 물건을 빼앗아 본 적이 있나요? 빼앗고 난 후 어떻게 되었나요?
5. 이 세상에서 전쟁을 그만두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모아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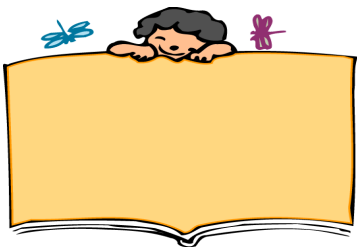
〈그림 17〉 '까마귀 소년' 활동지

* 내용파악퀴즈

1. 왜 다른 아이들은 이 아이를 땅꼬마라고 불렀을까요?
2. 땅꼬마는 왜 사팔뜨기 놀이를 시작했나요?
3. 이소베 선생님이 땅꼬마에게 잘 해 주실 때, 땅꼬마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4. 만일 까마귀 소년이 이소베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관련 활동

1. 관찰하여 자세히 그리기
2. 동물 흉내 내기
3. 까마귀 소년에게 편지 쓰기



Ⅳ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도서관 인근 병원의 장기입원 환아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에 대해, 책 읽어주기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소감 조사를 통해서 책 읽어주기의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았다.

- 책을 예전보다 더 많이 읽게 되었다.
-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감성이 풍부해졌다.
- 책읽기가 재미있고, 행복했다.
- 책은 무조건 내가 읽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읽어주는 내용을 조용히 들으니까 상상도 잘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아 좋았다.
- 처음에는 다소 생소했는데 매월 한 번씩 찾아와 책을 읽어주니 그 시간만큼은 마음이 아주 편안했다.
- 매월 책읽어주러 오는 봉사자들이 기다려진다.
- 책 읽는 수업을 하니까 책의 줄거리, 이야기의 주요인물 등을 파악하기 쉬었다.
- 읽은 책과 관련된 다른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서 읽고 싶다.
- 책을 잘 보지 않았고, 책 안에 있는 뜻을 찾아내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한 후 작가가 전해주고자 하는 뜻을 전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었다.
- 책을 읽고 난 뒤 독후감상문 밖에 할 수 있는 활동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시쓰기, 데칼코마니 등)
- 혼자 책을 읽으면 몹시 지루한데, 선생님이 읽어주시니 책 읽는 도중에 퀴즈도 풀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책 읽어주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을 조사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서관 내에서 시행되어 오던 독서 관련 서비스를 사회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소외계층 대상별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먼저 부산지역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독서관련 프로그램 현황 파악 및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그 중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독서생활과, 독서환경, 책 읽어주기 환경, 독서활동 여부를 조사하였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구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저소득층 어린이(유아포함)와 인근 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책 읽어주기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하고, 활동지를 구상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독서생활화가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을 찾아내어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지식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을 실현한다.

둘째, 지속적인 책 읽어주기에 노출된 대상자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과 자존감을 회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형성한다.

셋째, 책 읽어주기 운동을 위한 대상자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통해 사서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소외계층 정보를 토대로 유관기관과의 독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의 새로운 사업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참고문헌

곽길여,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의 책 읽어주기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독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2011.

윤희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 어린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 연구,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7.

박경애,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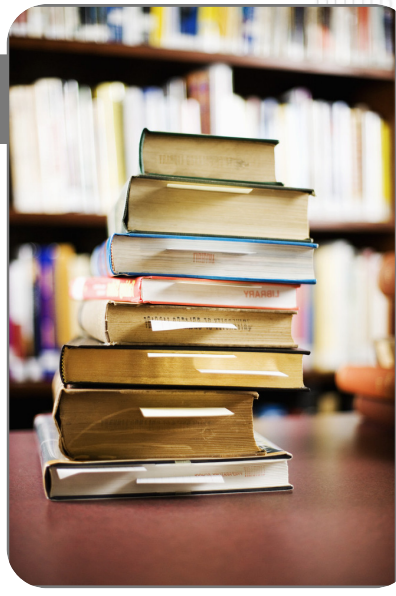
성명희, 공공도서관의 소외계층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서울시교육청 산하 지정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46(1), pp. 53-65, 2009.

신혜정, 책 읽어주기 활동이 읽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2009.

원미정, 책 읽어주기 수업이 유아의 언어발달 및 도서관 이용과 부모의 도서관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8.

이정연,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의 문화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pp. 27-39. 2011.

국립중앙도서관장상 – 장 려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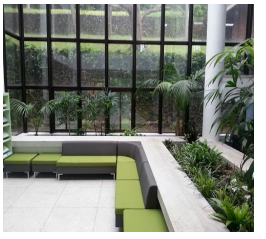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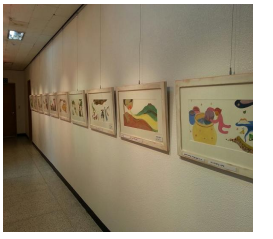
서귀포, 책으로 하나 되다

: 책 읽는 서귀포시 운영사례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 정 순 임

현황 및 소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올레6코스 시작점에 위치한 도서관운영사무소 삼매봉도서관은 1986년 7월 1일에 문예회관으로 처음 개관하여 2004년 8월 삼매봉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지식정보제공 및 독서문화저변의 장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2007년 조직개편을 통해 도서관운영사무소 기구를 설치하여 산하에 삼매봉도서관, 중앙도서관,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안덕산방도서관, 표선도서관, 성산일출도서관 총 8개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삼매봉도서관은 기당미술관,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인접하여 있어 문화예술특화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10년에서는 제주도 최초 8개관 통합시스템을 운영 및 책두레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운영과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 8월부터 책으로 하나 되는 책 읽는 서귀포시 사업을 전개하여 독서 공공체 조성 및 지역 풀뿌리 독서문화확산을 위해 서귀포시민의책읽기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협치사업을 펼쳐 독서문화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시설현황

○ 대　지 : 13,189㎡　　○ 건　물 : 1,624㎡
○ 자료실 : 종합자료실, 아동자료실, 향토자료실, 정보이용실, 문화교육실
○ 열람실 : 1열람실, 2열람실, 1소열람실, 2소열람실
○ 기　타 : 사무실, 반입실, 구내식당

자료현황

계	도서	비도서	비고
86,034	83,428	2,606	

운영방향

비 전 : 책 읽는 문화도시조성, 깨어있는 문화시민

정책목표
- ❍ 책 읽기 운동 확산으로 책으로의 접근방법 다변화
- ❍ 시민들과 소통하는 도서관 운영

중점분야 및 추진과제

책 읽는 서귀포 미래가 있는 열린 도서관
- 1 독서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책읽는 서귀포시 사업추진
- 2 가까운 곳에서 독서할 수 있는 독서인프라 확충
  - ■ 자료이용환경개선 및 정보자료접근권 확대
  - ■ 공통된 읽을 거리 제공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
  - ■ 독서와 토론의 문화를 형성하는 지역경쟁력 향상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 1 감성을 깨우는 인문학프로그램 개발
  - ■ 독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 발굴육성
  - ■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개요

서귀포 책으로 하나 되다.

한 도시 한 책 읽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03년 서산시와 순천시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부산, 서울, 원주 등으로 점차 확산되어 지금은 20여개 지역에서 책 읽는 도시 만들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2010년 8월 서귀포시민의책읽기위원회를 구성하여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민의책읽기위원회는 범시민 책읽기 사업인 책 읽는 서귀포시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여 독서문화저변확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책 읽는 서귀포시 사업은 서귀포시민의 책을 선정하고 선정도서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책 읽기 릴레이, 책방리더학교, 작가와 함께 하는 북콘서트, 올레미니문고, 북카페 개설 등 사업전개를 통하여 책으로 하나 되는 서귀포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기획홍보분과, 교육문화분과, 도서선정분과로 분야로 각분과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년차에 접어든 서귀포시민의 책 읽기 사업은 서귀포시민의 책 읽기 위원회와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가 공동으로 펼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앞으로 다양한 독서문화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Ⅰ 들어가는 말

2010년 8월 서귀포시민의책읽기위원회와 서귀포시가 공동으로 〈서귀포시민 책으로 하나 되다 - 책 읽는 서귀포〉 주제로 책 읽는 도시 사업을 시작하여 독서문화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독서진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서귀포시민의 책을 선정하고 온 시민이 함께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독서와 토론의 문화를 형성하고 독서공동체 조성 및 지역 풀뿌리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책읽기 릴레이, 시민의 책 도서선정, 작가와 함께 하는 북콘서트, 올레미니문고·북카페조성,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운영으로 책 읽기 사업을 하고 있다.

성산에서 대정까지 지역독서운동을 확산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 독서운동이 되기 위해 지역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며 지역독서클럽, 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지역네트워크가 하나 되어 시민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와 책을 매개로 하는 소통이 장이 되도록 그 역할은 확대될 것이다

Ⅱ 서귀포 책으로 하나 되다. 책 읽는 서귀포시 운영사례

1. 서귀포시민의 책 도서선정

책 읽는 서귀포시 사업은 서귀포시민의 책을 선정하고 선정도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독서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의 책 도서선정이 책 읽는 서귀포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2010 - 2013 서귀포시민의 책 도서선정은 책읽기위원 중 3명, 일반시민 3명, 사서 3명으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15회 정도 각 분야별

로 회의를 거친 후 최종 위원회를 통과한 후 일반, 청소년, 아동 총 30권, 대표도서인 One City One Book 1권 총 31권이 선정되었다.

2014 서귀포시민의 책 도서선정은 책읽기위원회 위원 12명이 4명씩 각 분야별로 나누고 두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시민과 공공도서관이 사서들에게 추천을 받은 후 각 분야별 회의와 통합회의 15회를 통해 서귀포시민의 책이 선정되었다.

많은 출판물 중에서 시민의 책을 선정하는 과정이 책 읽기 사업이 기본이 되며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정이며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서귀포시민의 책 도서선정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책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
(2) 지역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여 제주도와 제주문화의 정체성, 우수성을 일깨워 주는 책
(3) 현대인의 관심과 욕구, 사회상이 반영된 책
(4) 주체적 삶과 인격,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책
(5) 창조적 소통 능력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책
(6) 사회적 약자를 북돋우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책
(7) 독서의 기쁨과 의미를 맛볼 수 있는 책
(8) 내용의 풍부성, 표현의 적절성 및 문화적 공감도가 있는 책
(9) 바람직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책

2. 찾아가는 책 읽기 릴레이

찾아가는 책 읽기 릴레이 사업은 내가 읽는 서귀포시민의 책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에 전하여 함께 읽어나가는 공동체 독서운동으로 평소 독서 기회가 적은 사람들도 지인의 권유로 책을 접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15개교 413명(총3,159명), 2013년에는 초・중학교 13개교 413명(2,020명), 2014년 초・중・고 16개교 344명 첫 번째 주자로 릴레이가 시작되었다.

〈표 1〉 2010 – 2014 서귀포시민의 책 선정도서

	One city One book	어린이 (10권)	청소년 (10권)	일반 (10권)
1차 (31)	나비와 함께 날아가다 (오성찬 저)	거상 김만덕 깜근이 엄마 난 왜 엄마 아빠얼굴을 그릴수 없는거야 루이브라이 밥데기 죽데기 숨쉬는 도시꾸지찌바 시리동동 거미동동 오늘은 우리집 김장하는날 제주도 이야기 콩 너는 죽었다	17살 경제학 그섬에 유배된 사람들 날아라 잡상인 눈먼 시계공 대한민국 최남단이어도 저스트라이크헤븐 청소년시와 대화하다 청소년을 위한 뇌과학 테오의 여행 표해록	꿈의도시 꾸리찌바 네가 어떤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빛과 바람의 올레 샘에게 보내는 편지 순이삼촌 엄마를 부탁해 잠들면 안돼 거기 뱀이 있어 제주역사기행 호미
2차 (30)	제주신화 (이석범 저)	길거리 가수 새미 까만나라 노란추장 꼬마해녀와 물할망 꽃 할머니 내가 조금 불편하면 세상은 초록이 돼요 노란양동이 노래하면 우는 새 준치가시 책과 노니는 집 행복한 청소부	광고천재 이제석 괜찮아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국경 없는 마을 그 섬에 내가 있었네 꿈꾸는 다락방 똥깅이 사기 사람에 숲이 있다 우아한 거짓말 유진과 유진	고람직이 들엄직이 놀멍 쉬멍 걸으멍 사람풍경 신도 버린 사람들 오래된 미래 이노베이터 이중섭평전 제주신화 지상에 숟가락 하나 한국의 미 특강
3차 (31)	제주기행 (주강현 저)	난 황금알 낳을거야 바람을 품은 섬 제주도 백산의 책 분황사우물에는 용이산다 비밀의 화원 시간상자 엄마까투리 지도에 없는 마을 톤즈의 약속 환경을 지키는 영웅들	김만덕 떡갈나무 바라보기 마지막 강의 명화 속 비밀이야기 빠빠라기 소피의 세계 시간을 파는 상점 집으로 가는길 책만 보는 바보 천국에서 만난 다섯사람	경영학콘서트 내 젊은날의 숲 농부철학자 피에르 라비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바리데기 별의 방목 생명의 숲,초정리에서 제주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천개의 찬란한 태양
4차 (31)	나의문화유산 답사기,7 (유홍준 저)	바다소 화요일의 두꺼비 마지막 말테우리 초정리 편지 고래나라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빨강연필 박병선 루브르박물관 보다 재미있는 세계100대명화	식탁위의 세계사 세계는 왜 싸우는가 난 빨강 열여덟 소울 길 위의 책 핵폭발 뒤 취후의 아이들 리버보이 국어교과서작품읽기: 고등수필 과학, 10월의 하늘을 날다 생각한다는 것	두근 두근 내인생 그리스인 조르바 지용시선 나는 죽을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마법의 순간 소금 책은 도끼다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집요한 상상 밥상 혁명

책 읽기 릴레이 진행방법은 처음 책을 받은 학생이 1주자가 되고, 한줄 소감을 책 뒷면에 기록하고 책을 읽은 후 친구에게 전달되어 10명까지 릴레이가 이어지고 다 읽은 책은 학교 도서관으로 기증된다.

찾아가는 책 읽기 릴레이는 해당학교에서 여는 마당을 준비한다. 여는 마당은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에서 배운 악기연주. 동화구연, 해당학교 선생님이나 사서 도우미어머니가 책의 좋은 구절을 낭독하여 릴레이시작을 열어준다.

이어 위원회에서 독서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책 읽기 릴레이 진행방법을 소개한다.

진행방법소개 후 첫 번째 주자에게 도서를 전달하여 릴레이가 힘찬 출발을 시작한다.

단순히 독서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북 콘서트 형식으로 오픈무대를 학교에서 준비하여 독서 강의로 학생들에게 책 읽기의 흥미를 유발한다.

2012년에는 관내 동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릴레이가 진행되었고, 2013년부터는 읍면지역 및 중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2014년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릴레이를 진행하였다.

독서릴레이가 완주되고 한줄 소감을 마친 완주 주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아 추진상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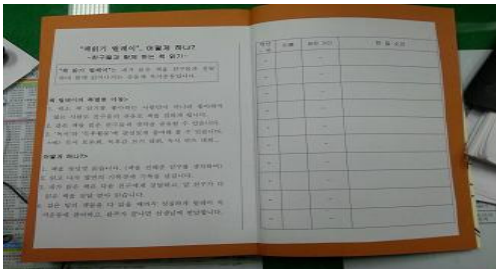
〈표 2〉 찾아가는 릴레이 참여학교 현황

2012년(15개교)			2013년(13개교)			2014년도(16개교)	
장소	인원	총주자	장소	1주자	총주자	장소	1주자
계	413	3,159	계	357	2,020	계	344
서귀중앙	26	355	보목초	27	325	수산초	25
새서귀	33	561	서호초	12	72	법환초	16
동홍	30	130	하원초	30	165	태흥초	18
남원	30	340	서광초	22	127	창천초	25
토평	23	308	한마음초	29	163	동남초	6
서귀서	33	270	보성초	25	105	서호초	9
서귀포	24	152	사계초	10	151	하원초	29
표선	20	220	무릉초	11	45	의귀초	28
효돈	38	50	예래초	30	255	서광초	29
중문	20	100	법환초	51	57	온평초	21
위미	26	120	창천초	29	192	새서귀초	30
동남	30	130	서귀포여중	30	144	남원초	30
서귀북	30	300	중문중	51	219	효돈중	21
안덕	30	90				서귀포고	20
대정	20	33				남주고	20
						서귀포여고	17

〈사진 1〉 찾아가는 책 읽기 릴레이

〈사진 2〉 한 줄 소 감

한줄소감



책뒷면에 부착

3. 작가와 함께 하는 북 콘서트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책 읽는 서귀포시 연중 마무리 사업으로 서귀포시민의 책 선정도서 발표 및 서귀포시민의 책 선정 도서 작가와 음악이 만나는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시민들이 책과 좀 더 편하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북 콘서트로 책을 주제로 한 공연으로 재미있게 소통하고자 하는 공감에서 시작되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북 콘서트가 진행되었으며 소박한 공연이 책 읽는 문화도시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 일　시 : 2013. 11. 29.(금) 18:00
○ 장　소 : 김정문화회관
○ 대　상 : 서귀포시민 200명
○ 내　용 : 서귀포시민의 책 선정도서발표, 별의방목 한기팔시인과 함께 하는 북콘서트
○ 출　연 : 한기팔(시인), 씻다운쓰리맨(밴드), 소히(가수)

〈사진 3〉 작가와 함께 하는 북콘서트

홍보물

오프닝무대

작가와의 만남

클로징무대

4. 칠십리책방

매년 선정된 서귀포시민의 책을 읽은 지역인사, 일반인. 청소년의 인터뷰 대담자료를 지역 언론(서귀포신문)에 정기연재를 통하여 서귀포시민의 책을 홍보하고 있다.

2012년부터 월 2회 서귀포신문에 칠십리 책방으로 기획연재를 운영하고 있으며 책읽기위원회 위원과 대담자를 선정하고 대담도서를 읽고 대담을 진행하고 인터뷰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표 3〉 2013 칠십리 책방 운영 내역

연번	대 담 제 목	대담도서	분야	대담자
1	책읽는 서귀포 함께 읽고 나누자	서귀포시민의 책	총평	이경주/강창주
2	동물의 눈으로 바라본 떡갈나무	떡갈나무 바라보기	청소년	강영식
3	고전의 진정한 가치... 사랑과 배려	비밀의 화원	어린이	김경희,고승윤
4	책바보 이덕무와 그의 벗들 이야기	책만 보는 바보	청소년	김보은
5	소외된 삶, 고난과 역경의 극복	바리데기	일반	오송미
6	흙과 나무를 보살피는 일은 인간 생존의 조건이기도 하다	농부철학자 피에르 라비	일반	정규환
7	제주의 속살, 가슴으로 만나다	제주기행	일반	민경천
8	유배지에서 꽃 피운 예술혼	제주 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일반	오태영
9	따뜻한 심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물과 다르지 않다	지도에 없는 마을	어린이	제성,전미정
10	죽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인연의 소중함	천국에서 만난 다섯사람	청소년	손정기
11	시간은 흐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파는 상점	청소년	고보금
12	각박해진 세상을 향해 따뜻한 위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일반	정영심
13	명화 감상하고 이야기 즐기기	명화 속 비밀이야기	청소년	한정희
14	삶의 참된 의리를 찾아내길	마지막 강의	청소년	김봄빛
15	벽 뒤에 숨은 천 개의 찬란한 태양들	천개의 찬란한 태양	일반	임명옥
16	꿈꾸기의 생활화	별의 방목	일반	한기팔
17	랩퍼를 꿈꾼 열두 살 소년과 전쟁의 비극	집으로 가는 길	청소년	김문성
18	마흔살 손자병법에서 인생을 배우다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	일반	한윤택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마흔살, 손자병법에서 인생을 배우다

'책읽는 서귀포, 칠십리 책방'에서는 '2012-2013 서귀포시민의책읽기' 선정도서를 읽은 독자와 만나 대화를 나눈다. 이번에 만난 사람은 남원읍에 있는 카페 가뫼불 주인장인 한윤택 씨. 제주에 정착한지 이제 2년차인 그는, 제주가 쉼이 있는 땅이고 그래서 더욱 애착이 간다고 말한다. 솜씨 좋은 아내가 짬짬(금귤)으..

진정림 | 2013-12-27

[집으로 가는 길]-래퍼를 꿈꾼 열두살 소년과 전쟁의 비극

'책읽는 서귀포, 칠십리 책방'에서는 '2012-2013 서귀포시민의책읽기' 선정도서를 읽은 독자와 만나 대화를 나눈다. 이번에 만난 사람은 대정읍에 있는 한국국제학교(KIS) 8학년인 김문성 군이다. 15세의 나이로 보이지 않는 진지함을 가진 문성 군과 동네 빵집에서 책에 대한 사춘기 수다(?)를 떨어 보았다. 안재홍(서..

진정림 | 2013-12-27

[천개의 찬란한 태양]-벽 뒤에 숨은 천 개의 찬란한 태양들

책읽는 서귀포, 칠십리 책방에서는 2012-2013 서귀포시민의책읽기선정도서를 읽은 독자와 만나 대화를 나눈다. 이번에 만난 사람은 성산읍 오조리에 사는 임명옥씨. 요양보호사로 밤낮을 바꾸어가며 근무하는 시간외에 틈틈이 독서로 피로를 푼다고 한다. 성산일출도서관 그녀의 전용방(?)에서 진한 커피향을 음미하며 ,,

진정림 | 2013-12-27

[마지막강의]-삶의 즐거움과 용기 전하는 마지막 강의

책읽는 서귀포, 칠십리 책방에서는 2012-2013 서귀포시민의책읽기 선정도서를 읽은 독자와 만나 대화를 나눈다. 이번에 만난 사람은 제주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김봄빛 양. 책방대담은 안덕면 화순리, 봄빛 양 집 가까이 새롭게 선정된 서귀포시민북카페 제10호점 ㅇ 카페에서 이경주 위원장과 유쾌한 대화가 이어졌다. ,,

5. 올레미니문고조성 - 올레에서 책과 힐링하다

올레미니문고는 느림의 미학과 올레꾼에게 읽을거리 제공으로 힐링감성치유의 여행에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 및 올레꾼들에게 책 읽는 문화확산을 위해 조성 및 도서관네트워크 강화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선정기준은 사업주의 마인드가 독서에 관심이 많으며 책읽기 사업을 이해하고 협력하며 지역독서활동에 관심을 갖고 독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하며 접근성과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도서관에서는 서귀포 시민의 책과 명패를 전달하고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서가를 준비한다.

2012년부터 조성된 올레미니문고는 총 9개소 올레코스에 조성되었다.

년 2회 이용현황 및 자료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매년 추가 선정된 도서를 지원하고 있다.

1회성으로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점검을 통하여 이용현황 분석 및 자료관리상태를 점검하여 도서선정에 대한 반응도 살피고 있다. 비오는 날은 투숙객들에게 인기가 좋으며 특히 가족단위여행자들에게 아동도서반응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레와 숙박시설에 대한 이미지에도 업그레이드에 기여 하고 있다.

올레미니문고는 마을 속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올레꾼들에게 읽을거리 제공하여 감성치유여행에 도움을 주고 서귀포시민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4〉 올레미니문고현황

올레미니문고 한눈에 보기

코스	상호명	수용인원	주 소
1	성산일출봉	32	서귀포시 한도로 242번 길 8(성산리)
4	하얀언덕	30	서귀포시 민속해안로35길(표선리)
7	외돌개나라	40	서귀포시 남성로 122(서홍동)
8	살레	30	서귀포시 대포로 132(대포동)
9	돌담에 꽃 머무르는 집	36	서귀포시 대평로 46(안덕면 대평리)
5	모두올레	20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해안로 279-4(태흥리)
10	알뜨르	20	서귀포시 송악관광로 208(대정읍 상모리)
7	가톨	40	서귀포시 법환하로 9번 길 10(법환동)
5	로드37	36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510번길(남원리)

조성지

〈사진 4〉 올레미니문고조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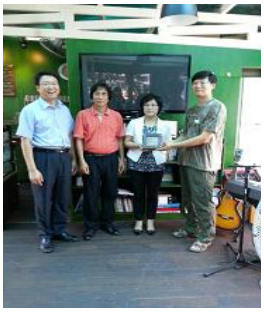
6. 시민북카페조성

북카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카페를 대상으로 북카페를 조성하여 가까이에서 서귀포시민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조성하였다. 올레미니문고와 같은 조건으로 서귀포시민의 책을 홍보하고 커피와 함께 시민들과 여행자들이 좀 더 책과 가까워 질 수 계기가 마련되었다. 조성 초기에는 카페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년차에는 비교적 홍보가 되어 서귀포시민의 책읽기 사업을 이해하는 분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10개소 오픈을 목표로 하여 성산에서 안덕까지 2년에 걸쳐 총 10개소가 조성되어 지역 네트워크 강화 및 시민의 책 홍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사진 5〉 북카페조성사진

	상호명	주 소
1호점	YWCA 무인카페	서귀포시 부두로 3
2호점	메이비	서귀포시 이중섭로 7
3호점	루머팡 모슬포	서귀포시 대정읍 항구로 70
4호점	루머팡 중문	서귀포시 천제연로 182
5호점	라르고	서귀포시 대평로 46
6호점	별주부전	서귀포시 남원읍 남태해안로 13
7호점	씨앤아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96
8호점	백패커스홈	서귀포시 중정로 24
9호점	쉼표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로5
10호점	아일랜드 트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 94

북카페현황



8호점

9호점

7. 책방리더학교

책으로 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독서운동을 이끌어 나갈 관계자 및 일반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한 리더의 독서마인드 함양 및 유대강화를 위해 책방리더학교를 운영하였다. 관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사서도우미, 작은도서관, 독서회 등 독서관련단체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책방리더의 역할과 실천전략이란 주제를 가지고 리더들이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며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책읽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 졌다.

책방리더학교를 통해 도서관의 역할과 책방리더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책 읽는 서귀포시 사업 홍보 및 각 지역에서 독서확대에 중심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 일　시 : 2013. 4. 25.(목) 10:00~12:00
○ 장　소 :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대　상 : 독서관련기관(단체) 관계자 100명
  - 학교도서관(사서교사, 사서도우미, 학부모봉사자)
  - 작은도서관(관장, 담당자, 봉사자)
  - 문고(협회관계자, 문고회장, 문고실무자)
  - 독서회, 독서관련단체, 일반시민 등
○ 내　용 : 책 읽는 서귀포시에 대한 제언 및 책방리더의 역할과 실천전략

〈사진 6〉 책방리더학교운영사진

8. 작가와의 만남

One City One Book 작가를 초청하여 시민의 책 대표도서로 선정된 배경과 작가의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2013년도 대표도서로 선정된 제주기행 주강현 작가를 초청하여 인문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제주의 풍경과 관광의 섬 제주도를 살펴보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하여 역사, 자연, 신화, 생태, 민속, 관광 등 총체적으로 제주도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작가외의 만남과 강연이 끝난 후 자유토론 작가 사인회도 개최하여 제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일　시 : 2013. 6. 21(금)　10:00~12:00
○ 장　소 : 서귀포시 기적의도서관 시청각실
○ 대　상 : 서귀포시민, 청소년등 100명
○ 내　용 : 원시티원북 작가와의 만남, 사인회 등

〈사진 7〉 작가와의 만남 운영사진

홍보포스터

작가와의 만남

Ⅲ 맺 음 말

서귀포시민의책읽기위원회와 도서관운영사무소 공동으로 책 읽는 서귀포시 사업이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성산에서 대정까지 책 읽는 서귀포시 지역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독서운동에 앞장 서고 있다.

각 지역 위원, 북클럽, 북카페, 올레미니문고, 작은 도서관, 학교 도서관 사서도우미등 독서 리더들 모두 하나가 되어서 지역독서운동에 붐을 조성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독서운동이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그 동안의 활동 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야 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책 읽는 서귀포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이로서 책을 매개로 하여 함께 읽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앞으로 책 읽는 서귀포시는 내실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책으로 여는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서관연구소자료집 : 41)

2014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2014년 6월 24일 인쇄
2014년 6월 26일 발행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전 화 (02)590-0779
팩 스 (02)590-0502

인 쇄 (주)계문사 (Tel. 02-725-5216)

ISBN 979-11-5687-031-9
ISBN 978-89-7383-223-1 (세트)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4018881)